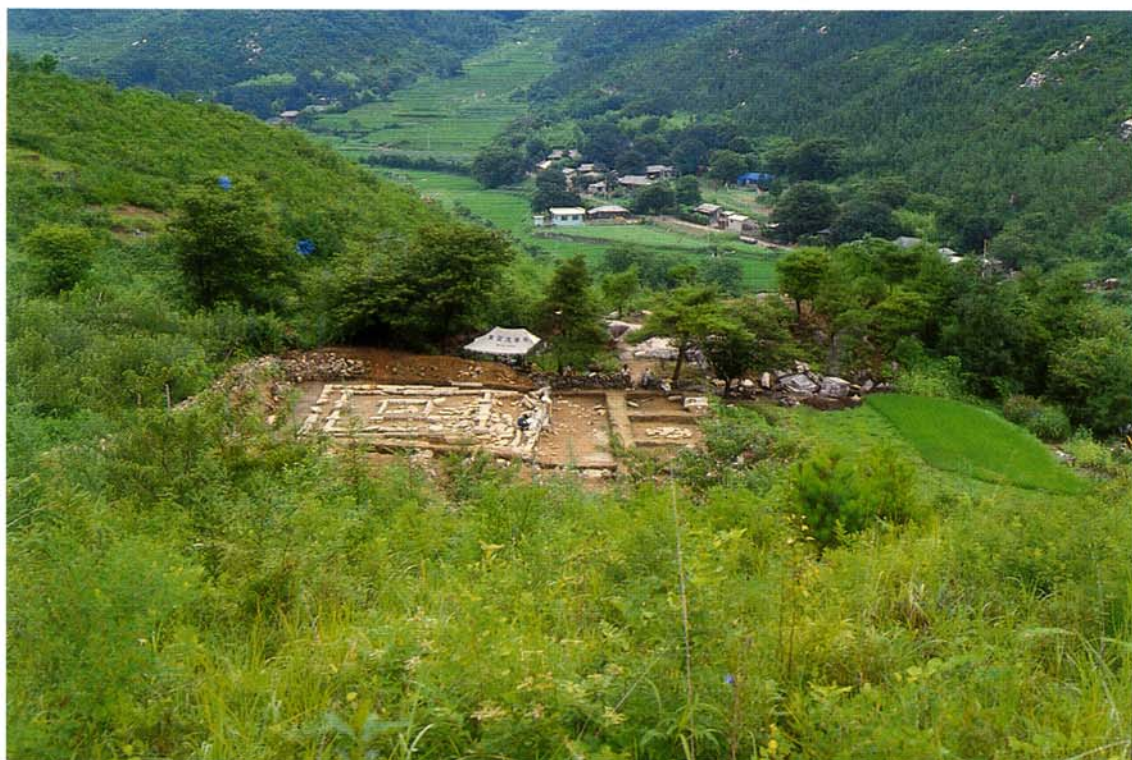


古蹟調查報告書 第十冊

# 蔚州澗月寺址

I

沈 奉 謹



澗月寺址 全景

東亞大學校博物館

1985





復元된 北塔



一部 露出된 金堂址



露出完了된 金堂址



南塔 一層 屋身



青銅菩薩立像・青銅如來立像

# 發 刊 辭

本大學校 古蹟調查報告 第10冊으로 「蔚州潤月寺址 I」을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發掘調査는 潤月寺址의 性格 把握과 寺址內 南·北 兩塔의 復元을 위한 基礎調査에 重點을 두고 全體 伽藍의 一部에 該當되는 金堂址와 兩塔址 調査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結果는 意外로 큰 것이었습니다.

특히 潤月寺가 8世紀 中葉을 前後하는 時期에 創建된 山地伽藍으로서 金堂과 兩塔의 位置가 一般 寺刹과는 다른 構造를 갖고 있다는 點과 倒壞된 兩塔의 경우 一部 塔材를 補完하면 原狀을 復元할 수 있을 程度로 이번 調査에서 資料의 蒐集이 可能하였다는 點 等은 매우 다행스럽고 한편으로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部分的인 小規模의 調査이긴 하였지만, 어려운 事情에도 불구하고 兩塔復元과 發掘調査를 위한 豫算을 뒷받침해 주신 慶尙南道와 蔚州郡 當局 및 이번 發掘에 最善의 協助를 다해 주신 發掘調査 關係者 여러분께 感謝드립니다. 아울러 調査에서 報告書 作成에 이르기까지 積極的인 支援을 다해 주신 本大學校 鄭樹鳳 總長님께 깊이 感謝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今後 未調査된 部分에 대해서도 계속 調査가 實施되어 潤月寺의 全體 伽藍構造를 把握하고 이를 整理 復元할 수 있게 되기를 期待하면서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우리나라 佛教文化研究를 위한 資料로서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이에 發刊辭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1985年 2月 日

東亞大學校 博物館長 沈 奉 謹

## 序

本道는 우리나라 三寶 寺刹 가운데 佛寶宗刹인 梁山 通度寺와 法寶宗刹인 陝川 海印寺가 있을 程度로 三國時代부터 朝鮮朝에 이르는 貴重한 佛敎遺蹟이 곳곳에 散在하고 있는 佛敎文化의 寶庫입니다.

本道 蔚州郡 上北面 登億里에 있는 澗月寺址는 그 歷史性이나 規模로 보아 學界에 널리 關心을 끌어난 곳으로 學術調査를 통한 確實한 性格의 糾明이 切實히 要請되어 왔던 廢寺址의 하나였습니다.

多幸스럽게도 '84年度 文化財 補修事業의 一環으로 本寺址에 대한 學術調査가 이루어진 結果 澗月寺址는 8世紀 中葉인 新羅時代에 創建된 山地伽藍의 特殊構造를 가진 古刹로서 朝鮮朝 後期까지 傳해져 왔음이 確認되었으며 그간 毀損滅失의 危機에 있던 南·北의 두 塔도 考證이 밝혀지므로 原形대로의 復元이 可能하게 되었다는 點은 石造文化財의 保存上 큰 成果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本道는 앞으로 與件이 주어지는 대로 未調査 部分에 對한 繼續的인 調査를 實施하여 考證에 의한 遺蹟의 保存은 勿論, 보다 詳細한 學術調査 報告書를 남김으로써 祖上傳來의 빛나는 文化遺産이 後世에 기리 保存 傳承될 수 있도록 努力해 나갈 方針입니다.

아무쪼록 本 調査報告書가 寺刹 伽藍의 理解와 研究에 크게 寄與하게 되길 期待하면서 本 調査에 積極 協助해 주신 東亞大學校 鄭樹鳳 總長님께

感謝드리며 同大學校 博物館 發掘調査團과 文化財 關係 公務員 여러분의  
勞苦를 높이 致賀하는 바입니다.

1985年 2月 日

慶尚南道知事 李 圭 孝

# 本文目次

發刊辭 博物館長 .....	9
序 慶尚南道知事 .....	11
第I章 序 言 .....	19
第II章 遺蹟發掘調查概要 .....	21
第1節 位置와 環境 .....	21
第2節 遺蹟現況 .....	27
第3節 調查團構成 .....	30
第4節 調查日誌 .....	32
第III章 發掘調查內容 .....	39
第1節 調查範圍와 方法 .....	39
第2節 金堂址의 構造와 塔의 特色 .....	41
가. 金堂址 .....	41
나. 石 塔 .....	52
다. 石燈址 .....	88
라. 其 他 .....	97
第IV章 遺 物 .....	98
가. 石造物 .....	98
나. 青銅如來像과 青銅菩薩像 .....	103
다. 瓦 當 .....	107
라. 螺髮形土製品 .....	132
마. 土 器 .....	139
바. 鐵製品 .....	148
第V章 綜合考察 .....	149

## 圖 面 目 次

圖面 1. 蔚州 潤月寺址 位置圖 .....	22
圖面 2. 潤月寺址 發掘現況 測量圖 .....	28
圖面 3. 金堂址의 腐蝕土層 斷面圖 .....	42
圖面 4. 礎石과 平面狀態 .....	49
圖面 5. 北塔址 基壇部 .....	53
圖面 6. 北塔址에서 確認된 各種 塔材片 實測圖 .....	55
圖面 7. 北塔 地臺石과 上臺中石 復元 實測圖 .....	57
圖面 8. 北塔 上·下臺甲石 復元實測圖 .....	59
圖面 9. 北塔初層屋身·屋蓋石 實測圖 .....	61
圖面 10. 北塔 南面 仁旺像 實測圖 .....	64
圖面 11. 北塔 西面 仁旺像 實測圖 .....	65
圖面 12. 北塔 東面 仁旺像 實測圖 .....	66
圖面 13. 北塔 復元斷面圖 .....	67
圖面 14. 北塔 2·3層屋身·屋蓋石 實測圖 .....	68
圖面 15. 北塔 北面 仁旺像 實測圖 .....	69
圖面 16. 北塔 復元實測圖 .....	71
圖面 17. 南塔址 實測圖 .....	73
圖面 18. 南塔址에서 確認된 各種 塔材片 實測圖 .....	75
圖面 19. 南塔址에서 確認된 各種 塔材片 實測圖 .....	77
圖面 20. 南塔 地臺石과 上臺中石 復元 實測圖 .....	79
圖面 21. 南塔 上·下臺甲石 復元實測圖 .....	81
圖面 22. 南塔 初層屋身·屋蓋石 實測圖 .....	83

圖面23. 南塔 南面 仁旺像 實測圖 .....	89
圖面24. 南塔 西面 仁旺像 實測圖 .....	90
圖面25. 南塔 東面 仁旺像 實測圖 .....	91
圖面26. 南塔 北面 仁旺像 實測圖 .....	92
圖面27. 南塔 2・3層屋身・屋蓋石 實測圖 .....	93
圖面28. 南塔 復元斷面圖 .....	95
圖面29. 南塔 復元實測圖 .....	96
圖面30. 石造如來坐像 實測圖 .....	99
圖面31. 破損된 石造如來坐像 實測圖 .....	101
圖面32. 破損된 石造如來坐像 實測圖 .....	102
圖面33. 八角臺座 實測圖 .....	104
圖面34. 青銅如來像과 青銅菩薩像 實測圖 .....	106
圖面35. 숫막새 實測圖 ①~⑥ .....	108
圖面36. 숫막새 實測圖 ①~⑥ .....	110
圖面37. 숫막새 實測圖 ①~⑥ .....	112
圖面38. 숫막새 實測圖 ①~④ .....	114
圖面39. 숫막새 實測圖 ①~⑥ .....	115
圖面40. 숫막새 實測圖 ①~⑥ .....	116
圖面41. 숫막새 實測圖 ①~⑤ .....	117
圖面42. 숫막새 實測圖 ①~⑤ .....	118
圖面43. 숫막새 및 암막새 實測圖 ①~⑥ .....	120
圖面44. 암막새 實測圖 ①~⑥ .....	122
圖面45. 암막새 實測圖 ①~⑥ .....	124
圖面46. 암막새 實測圖 ①~⑥ .....	125

圖面47. 암막새 實測圖 ①~⑥	126
圖面48. 암막새 實測圖 ①~⑥	127
圖面49. 암막새 實測圖 ①~⑥	128
圖面50. 암막새 實測圖 ①~⑦	129
圖面51. 암막새 實測圖 ①~⑦	131
圖面52. 各種 솥기와 實測圖	133
圖面53. 各種 암기와 實測圖	134
圖面54. 各種 암기와 實測圖	135
圖面55. 各種 암기와 實測圖	136
圖面56. 螺髮形土製品 實測圖	137
圖面57. 螺髮形土製品 實測圖	138
圖面58. 各種 土器 實測圖 ①~⑦	140
圖面59. 各種 土器 實測圖 ①~⑥	142
圖面60. 各種 土器 實測圖 ①~⑥	143
圖面61. 把手 및 各種 磁器 實測圖 ①~⑥	146
圖面62. 各種 磁器 및 鐵器 實測圖 ①~⑦	147

## 圖 版 目 次

圖版 1. 潤月寺 金堂址 全景 .....	157
圖版 2. 發掘調查後 金堂址 全景 .....	158
圖版 3. 露出된 金堂址 各種 遺構 .....	159
圖版 4. 整理된 金堂址 基壇築臺 .....	160
圖版 5. 整理된 金堂址 基壇築臺 .....	161
圖版 6. 後面 築臺와 남쪽 用途未詳 遺構 .....	162
圖版 7. 남쪽 基壇築臺와 礎石間의 長臺石 .....	163
圖版 8. 柱礎石과 長臺石의 連結部分 .....	164
圖版 9. 地枋石 近景 .....	165
圖版 10. 地枋石과 長臺石 細部 .....	166
圖版 11. 階段石과 復元整理後 모습 .....	167
圖版 12. 發掘前 北塔址 全景 .....	168
圖版 13. 露出된 北塔址 .....	169
圖版 14. 露出된 北塔 初層屋身 全景 .....	170
圖版 15. 復元된 北塔 細部 .....	171
圖版 16. 復元된 北塔 .....	172
圖版 17. 南塔址 全景 .....	173
圖版 18. 南塔 初層屋身 全景 .....	174
圖版 19. 南塔 屋身石 近景 .....	175
圖版 20. 石燈址 心礎石과 周圍 砂礫層 .....	176
圖版 21. 潤月寺址에서 出土된 佛像 .....	177

圖版22.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佛像 .....	178
圖版23. 八角臺座 .....	179
圖版24.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숫막새 各種 .....	180
圖版25.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숫막새 各種 .....	181
圖版26.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숫막새 各種 .....	182
圖版27.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숫막새 各種 .....	183
圖版28.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암막새 各種 .....	184
圖版29.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암막새 各種 .....	185
圖版30.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암막새 各種 .....	186
圖版31.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암막새 및 숫기와 各種 .....	187
圖版32.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암기와片 各種 .....	188
圖版33.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암기와片 各種 .....	189
圖版34. 螺髮形土製品 .....	190
圖版35.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土器 各種 .....	191
圖版36.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土·磁器 各種 .....	192
圖版37.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磁器 및 鐵器 各種 .....	193

## 第 I 章 序 言

慶尙南道 蔚州郡에서는 道當局의 支援을 얻어 郡內 上北面 登億里 所在 澗月寺址內에 南·北으로 倒壞되어 있는 두 塔을 復元키로 決定하고, 事前에 寺址 및 塔址에 대한 學術的인 發掘調査를 實施해 줄 것을 當館에 依頼하여 왔다. 이에 따라 當館에서는 먼저 文化公報部의 發掘許可를 얻은 뒤 調査團을 構成하고 곧 調査에 着手하였다. 調査는 1984年 7月 3日부터 同年 8月 3日까지 約 1個月間에 걸쳐 實施하였는데, 調査對像地域은 金堂址와 南·北塔址 및 石燈址 등을 中心으로 하였다.

調査 直前에는 金堂址와 塔址가 樹木과 雜草에 뒤덮혀서 그 殘存狀態에 대한 懷疑感도 없지 않았으나, 정작 調査를 끝낸 結果는 우리의 注意를 要하는 刮目할 만한 것이었다. 즉 金堂址는 周邊의 築臺를 除外한 礎石, 長臺石 등 나머지 部分은 比較的 良好하게 殘存하고 있었으며, 倒壞되어 一部 破失되긴 하였으나, 石塔도 原狀을 把握할 수 있을 程度로 남아 있어서 石塔 復元에는 크게 支障이 없는 狀態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調査過程에서 發見된 遺物들은 澗月寺의 創建 및 改修時期를 推定하는데 好資料가 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끝으로 今番 發掘調査를 成功的으로 이끌기 위해서 夏節期 炎天에도 불구하고 現地를 訪問하여 直接 指導하여 주신 黃壽永 博士, 秦弘燮 博士,

金正基 博士님과 激勵次 現地를 訪問하신 本校 金秉圭 副總長님을 비롯한  
여러 學長님, 教授님, 그리고 關係研究所의 研究員 여러분께 이번 機會를  
빌려 깊은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 第Ⅱ章 遺蹟發掘調查概要

### 第1節 位置와 環境(圖面 1)

蔚州 澗月寺址는 行政區域上으로 慶尙南道 蔚州郡 上北面 登億里 山 139 番地 一帶에 該當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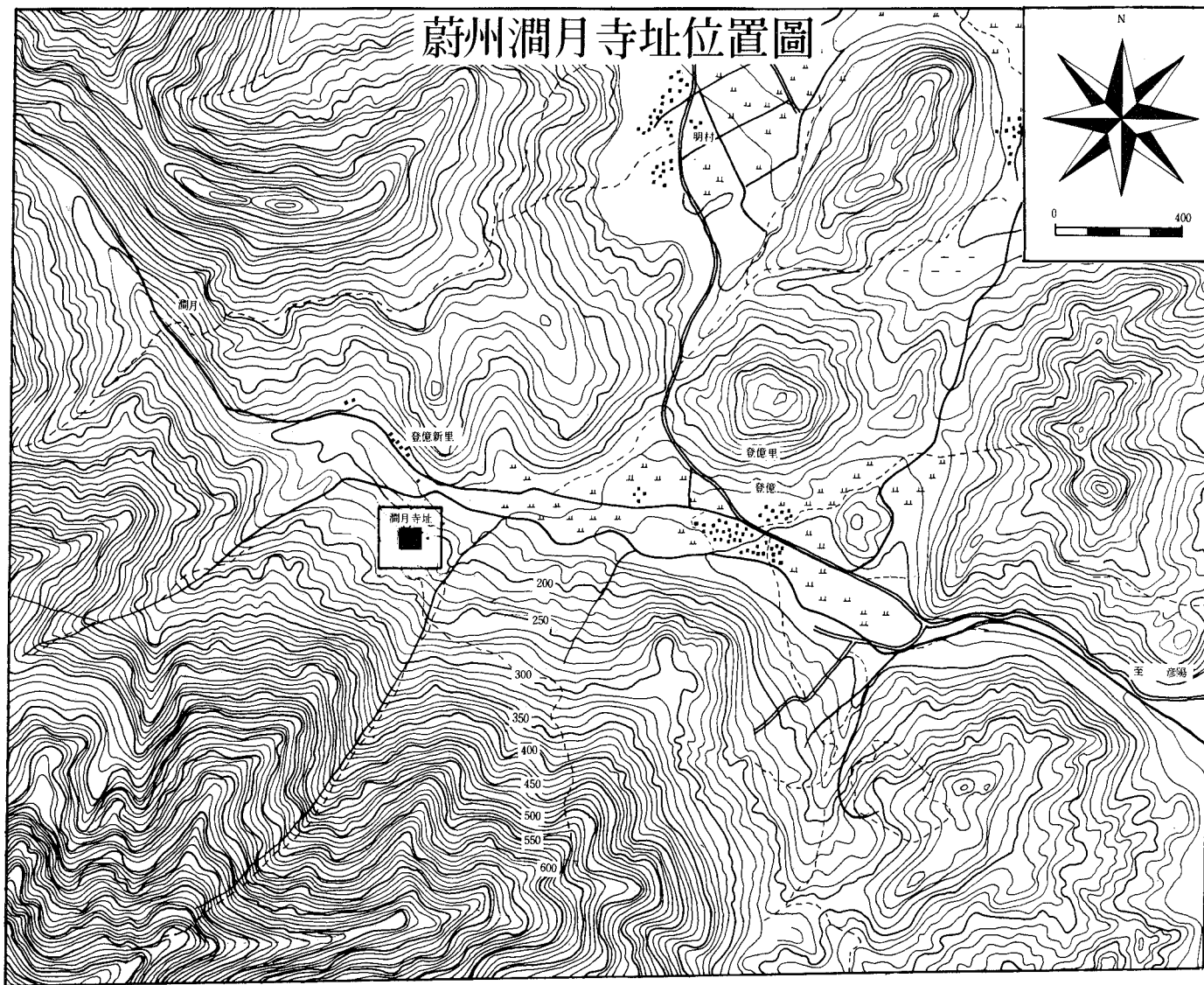
이곳은 京釜高速道路 彦陽인터체인지에서 서쪽 約 6km 地點에 있는 肝月山(標高 1083m) 기슭으로, 周圍에는 神佛山(標高 1208m), 鷲棲山(標高 1088m), 迦智山(標高 1240m) 등으로 둘러 싸여 있고, 남쪽 溪谷에는 酌掛川이 흘러 蔚山 太和江으로 이어지는 比較的 山中에 位置하는 寺刹이라고 할 수 있다.

澗月寺址 周圍의 遺蹟으로서는 表忠寺<sup>1)</sup>, 石南寺<sup>2)</sup>, 通度寺<sup>3)</sup>가 그렇게 멀

---

1) 1974年 12月 28日 地方有形文化財 17號로 指定된 寺刹로서 慶尙南道 密陽郡 丹陽面 九川里 天皇山 아래에 位置하고 있다. 新羅 興德王 4年(829) 黃面禪師가 創建하여 靈井寺라고 하였으며 朝鮮 肅宗 41年(1715) 坦英·道閑이 重創하였다. 그 후 1926年 大火災로 應眞殿을 除外한 大部分의 建物이 燒失되었고, 1929年頃에 再建되었다. 朝鮮 憲宗 5年(1839)에는 松雲大師의 八世 法孫인 月坡大師가 密陽郡 武安面에 있던 表忠祠를 現在의 位置로 옮겨 表忠寺로 改稱하였다. 境內에 地方有形文化財 14號 및 131號로 各各 指定된 表忠寺石燈과 表忠寺大光殿을 비롯하여 寶物 467號인 表忠寺三層石塔 等の 遺物이 있다. 특히 松雲大師인 泗溟堂의 遺品이 이곳에 保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靑銅舍銀香爐는 高麗 明宗 때 製作된 것으로 現存하는 最古의 高麗香爐이다.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 中卷」 參照)

圖面 1. 蔚州 潤月寺址 位置圖



지않은 溪谷에 各各 位置하고 있으며, 朝鮮朝의 彦陽城<sup>4)</sup>, 高麗朝의 象川里 國長生石標<sup>5)</sup>, 新羅時代의 蓴池里土城<sup>6)</sup>, 川前里刻石<sup>7)</sup>, 先史時代의 盤龜臺岩

- 2) 慶尙南道 蔚州郡 上北面 德峴里 1064에 位置하고 있다. 本寺는 新羅時代 道義國師가 創建하였다고 傳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禮山 修德寺, 淸道 雲門寺, 山淸 大源寺 등과 함께 代表的인 女僧 修道場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現在 地方有形文化財 22號인 石南寺三層石塔과 寶物 369號인 石南寺浮屠 및 禪敎兩宗 知峰堂 巨磯大師塔 등 朝鮮時代 石鍾形 浮屠 2基가 境內에 자리잡고 있다. (上揭書 參照)
- 3) 陝川 海印寺, 順天 松廣寺와 함께 우리나라 三寶寺刹의 하나로서 慶尙南道 梁山郡 下北面 芝山里 583番地에 位置하고 있다. 新羅 27代 善德王 15年(646)에 慈藏律師가 創建하였다고 傳한다. 三國遺事 卷第4 慈藏定律條에 의하면 慈藏은 王 5年(636)에 王命을 받아 入唐하여 淸凉山에 들어가 文殊大聖을 拜하고 袈娑, 舍利 등을 얻어 歸國하여 大國統이 되었고 通度寺를 開創하고 戒壇을 修築하여 四來를 濟度하였다고 한다. 境內에 通度寺梵鍾閣, 通度寺三層石塔(地方有形文化財18號), 通度寺大光明殿(地方有形文化財94號), 通度寺大雄殿(寶物144號), 通度寺石燈(地方有形文化財70號), 通度寺靈山殿, 通度寺奉鉢塔(寶物471號) 등의 遺物이 散在해 있다. 特記할 만한 것은 大雄殿 內에 佛壇만 있을 뿐 佛像이 없는 寺刹로 유명한데 그것은 釋迦의 眞身舍利를 奉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上揭書 參照)
- 4) 慶尙南道 蔚州郡 彦陽面 西部里에 位置하고 있다. 史蹟 153號로 指定된 平地城으로서 三國時代 土城을 1500年頃에 縣監 李聃龍이 改築 擴張하였다. 거대한 바위를 面만 거칠게 다듬어 礎를 잡고 上部에 큰 돌을 얹어 사이에는 무수한 잔돌을 끼워 쌓았으므로 대단히 堅固하며 門址와 砲樓를 갖추고 있는 邑城이다. 원래는 둘레가 約 1km에 達하였으나 지금은 一部만 殘存한다. (上揭書 參照)
- 5) 慶尙南道 蔚州郡 三南面 象川里 565番地에 位置하고 있다. 通度寺의 境內를 標하는 石碑로서 高 1.72m, 幅 30cm 크기인데 前面에 다음과 같은 네줄의 吏讀文이 새겨져 있다.

國長生一坐段寺  
 戶部乙丑五月日牒前  
 立□是於爲了等以立  
 □年乙丑十二月日記

刻畫<sup>8)</sup> 等 各種 遺蹟들도 가까운 距離內에 있다.

澗月寺址는 朝鮮時代 까지만 해도 彦陽縣에 屬하였는데, 東國輿地勝覽 彦陽縣 佛宇條에는 「澗月寺 在鷺棲山下」라 하였고, 睡聳先生文集<sup>9)</sup> 所載 澗月寺記에는 「有客 入招提境 詰澗上樹曰 樹老矣 是名爲鉢羅樹乎 樹下有以大年爭者 鳥與大衆獼猴也 鳥言樹以糞子生 而長如許 於是 鳥爲最大 有頃 風從鷺嶺來溪流 有聲 白月揚輝 鳥驚而鳴 於澗中 夫水與月 生於有生之初者也 鳥安得爭爲長 唐人詩云 月出鷺山鳥 時鳴春澗中 或以是夫寺以澗月名 寺亦古矣 世言此寺地靈之奮 越乎通度者 如人之心肝 故題以肝越 友雲以爲無稽

---

이 石標는 遼 大安元年 즉 高麗 宣宗 2年 (A.D 1085)에 세운 것으로 現在 地方 有形文化財 第16號로 指定되어 있다.

6) 東亞大學校博物館 「梁山蕁池里土城」古蹟調查報告書 第九冊, 1984.

7) 慶尙南道 蔚州郡 斗東面 川前里 太和江 上流의 川邊에 位置하고 있다. 一名 花郎遺蹟址로 불려지고 있는데 岩面에 陰刻된 글자가 새겨져 있으며 그 주위로 同心圓, 渦文, 菱形 等 幾何文이 岩面에 陰刻되어 있다. 1970年 12月에 發見되어 現在 國寶 第147號로 指定되어 있다. 이 川前里刻石에 대한 다음과 같은 研究成果가 있어 注目된다.

黃壽永 「新羅의 蔚州書石」 東大新聞 1971. 5. 10.

金龍善 「蔚州 川前里 書石銘文의 研究」 歷史學報 81, 1979.

武田幸男 「金石文資料からみた新羅官位制」 江上波夫古稀記念論叢, 1977.

8) 金元龍 「蔚州盤龜臺岩刻畫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9. 1980. 12.

9) 睡聳 徐錫麟 先生의 文集이다. 徐錫麟(肅宗36, 1710 ~ 英祖41, 1765)의 字는 夢膺, 號가 睡聳 또는 希鷗齋이며 本貫은 利川으로 戶曹參議 弘漸의 아들이다. 英祖23年(1747)에 司馬試에 合格하였으나 平生을 鄉里인 彦陽에서 學問研究와 後進養成에 힘쓴 學者이다. 文集의 內容體系를 살펴보면 書頭에 盧相稷이 擇한 序文을 비롯하여 卷之 1, 2, 3의 詩, 卷之 4의 書, 雜著, 卷之 5의 記, 跋, 箴, 卷之 6의 上樑文, 祝文, 墓碣, 行狀 卷之 7의 附錄 等 全 7卷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澗月寺記」는 卷之 5의 記篇에 收錄되어 있다.

而取義於溪月 淨人心之語 其亦透夫三明四智之義乎 是寺 蓋新羅眞德王朝 慈藏國師之所創 慈藏之錫 自終南雲際寺 先住乎此 再至于通度 今佛頭骨舍利 奉安處 卽此寺 丹土所填 地靈之著異 可驗 創設之年 實在唐貞觀中 而廢於 壬辰倭亂 重於萬曆崇禎之間 蓋明彥三明 玉環大珠眞淨普悟 六上人之力 今 去崇禎 亦遠矣 鯨棟將頽 龍像欲泣 今甲戌 山之大德鵬雁與籌室定宇 協謀而 倡檀 越心普悟而法堂復新 志眞淨而鍾閣重修 始于正概之辰 訖于祠源之月 若 鬼傭而非人役也 其廢也 殆同萬曆之季 其興也 有若崇禎之末 然則雁之幹事 宇之用力 與明彥輩六上人 功德同歸於無量邊 其色身燿殊 心法一般 師是空 門下壞之身 轉輪往來者也 抑惟寺之興廢有數 成毀在人 余聞流而不腐者水也 虧而復盈者月也 蘇軾有言 水以日流 故不朽 月以日行 故能明 日流日行者 乃 自然不息之理 而此理之著於物 在乎人者 儒家所謂誠一 而佛家所謂善心成實 者也 苟以誠實一心 作相傳之印板 懼明月之將虧 而圖流水之不腐 則何患乎 廢而不興 毀而不成也 寺名之取義於澗月者 殆以是 夫雁師索余 記甚勤 書以 歸」라고 記錄하고 있으며, 丁時翰 先生의 山中日記<sup>10</sup>에는 「(前略) 十九日 庚寅陰 寺中饋食 食後發行十五餘里 過彥陽城外及驛村 欲見肝月寺 洞口仙

10) 愚潭 丁時翰(仁祖 3, 1625~肅宗 3, 1707) 先生이 肅宗 12年(1686) 3月 13日에서 同王 14年 9月 19日까지 江原, 慶尚, 全羅, 忠清 等 各道의 名山 古刹을 두루 旅行하면서 그 느낀 바를 記錄한 紀行隨筆文이다. 愚潭先生文集中에 上·下 2卷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上卷에는 1686年 3月 13일부터 1687年 3月 17日까지, 下卷에는 1687年 8月 2日에서 1688年 9月 19日까지의 內容이 各各 收錄되어 있다. 本稿에서 言及하고자 하는 著者의 澗月寺에 대한 記錄은 山中日記下에 記錄되어 있고 그 날짜는 1688年 5月 19日이다.

遊巖石 迷失道 過栗發村 至仙遊洞」이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文獻上에 나타난 潤月寺는 鷲棲山下에 新羅 眞德왕 때, 慈藏律師가 創建한 寺刹로 계속 傳하여 오다가 朝鮮朝 壬辰倭亂때 불타 없어진 것을 다시 뒤에 復元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潤月寺는 朝鮮朝 18世紀 末葉까지 存立해 있었으나, 뒤에 어떤 事情에 의해서 消滅되어 흙속에 묻힌 채 發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 第2節 遺蹟現況(圖面 2, 圖版 1)

潤月寺址는 海拔 215m(金堂址) 程度의 肝月山 중턱에 東向하여 位置하고 있으나, 廢寺된 以後 周圍가 대부분 開墾되면서 原狀維持가 不可하게 되었다.

즉 金堂址는 처음 밭으로 開墾되었다가 뒤에 中央部位에 民墓 2基가 들어서면서부터 耕作은 중지되었으나, 대신 民墓 周圍에 植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過程에서 原狀破損이 많았고 특히 開墾을 위한 平坦作業時에 前面築臺가 대부분 破損된 듯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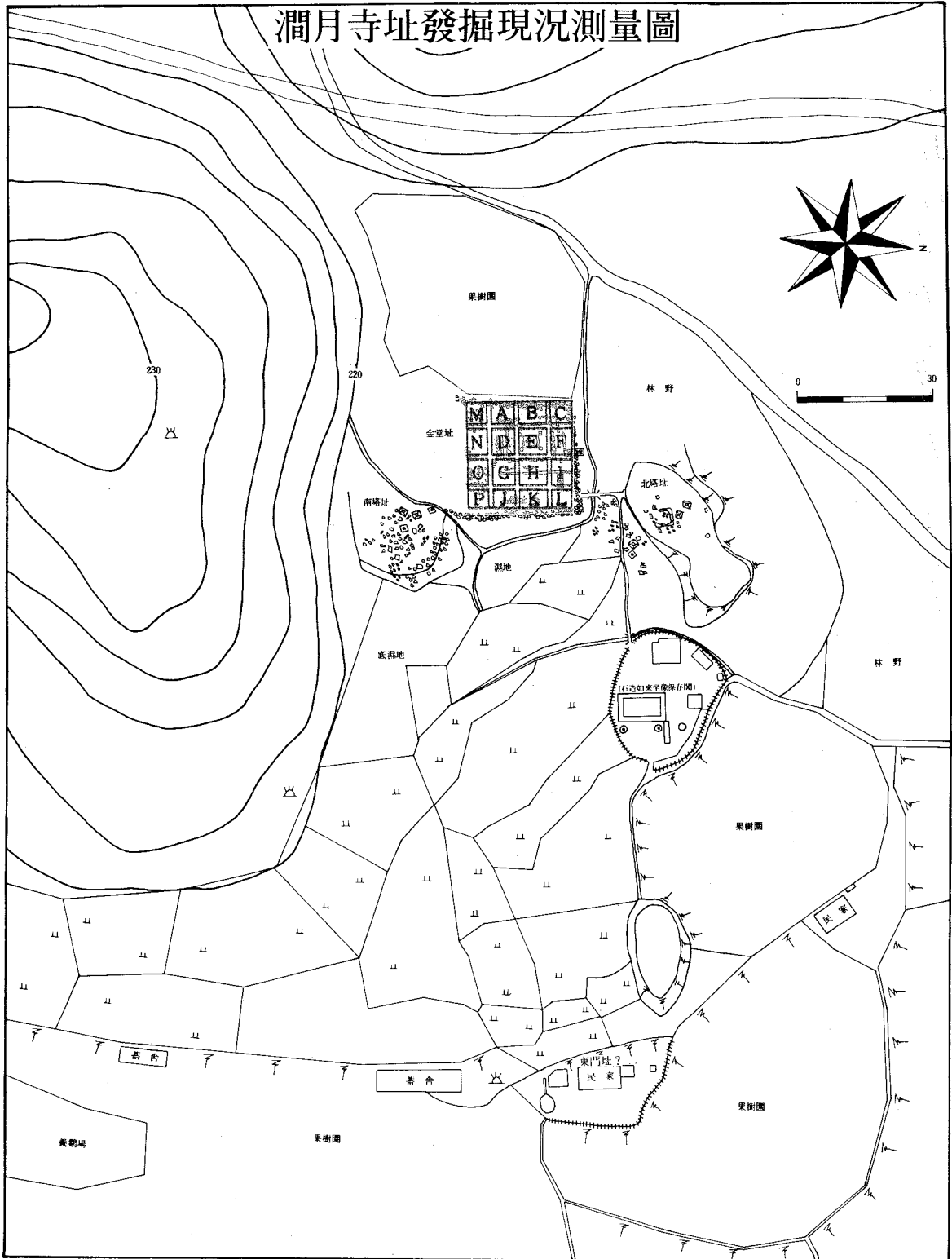
따라서 調査 當時에는 民墓 前面에 長臺石을 모아 築造한 墓築 一部가 눈에 뜨일 뿐 대부분 地下에 埋沒되어 있는 狀態였고, 더우기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곳곳에 질펀하게 地下水가 배여 있었다.

그리고 南·北의 兩塔은 모두 崩壞되어 있었는데 北塔의 경우 地臺石은 原位置에서 약간 일그러진 채로 놓여 있었으나 甲石, 屋蓋石, 屋身石 等的 上層構造物은 대부분 南쪽 溪谷에 倒壞된 채 흩어져 있었고, 一部는 切斷하여 다른 用途에 使用한 듯하였다.

南塔은 북쪽으로 倒壞되면서 初層屋蓋石 以上 部分은 한 곳에 묻혀 있었고, 初層屋身石과 甲石, 隅柱石, 撐石 等은 대부분 切斷된 채 地臺石 위에 흩어져 있었으며, 地臺石 아래는 盜掘된 痕迹이 남아 있었다.

한편 金堂址 前方의 中門址나 東門址 位置는 모두 논으로 開墾되어 耕作中인데, 現在 寶物 370號로 指定되어 있는 潤月寺 石造如來坐像은 東門

圖面 2. 澗月寺址 發掘現況 測量圖



址와 中門址 사이의 논에서 耕作中에 出土되었다고 한다. 그 밖에 남쪽에도 建物の 長臺石과 築臺石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金堂址外에도 伽藍内에는 여러 寮舎가 配置되어 있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 第 3 節 調查團構成

當館에서는 今番 蔚州 潤月寺 址의 學術調查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發掘 調查團을 構成하여 調査에 臨하였다.

- 團 長 沈奉謹 (東亞大學校)
- 指 導 委 員 黃壽永 (東國大學校)
- 秦弘燮 (梨花女子大學校)
- 丁仲煥 (東亞大學校)
- 金正基 (文化財研究所)
- 調 查 委 員 李容玆 ( " )
- 李宏址 (慶尚南道)
- 調 查 員 朴文國 (東亞大學校)
- 鄭在勳 ( " )
- 閔晶美 ( " )
- 調 查 補 助 員 鄭孝雲 (東亞大學校 大學院)
- 金明愛 ( " )
- 金宰賢 (東亞大學校 學生)
- 朴銀卿 ( " )
- 韓美仙 ( " )
- 金知玆 ( " )
- 李彦卿 ( " )

- 調査補助員 孫貞大 (東亞大學校 學生)
- 金英淑 ( " )
- 成耆燮 ( " )
- 梁雲龍 ( " )
- 金明煥 ( " )
- 洪鍾業 ( " )

이밖에도 報告書 作成을 위한 整理作業과 實測作業에서 本校 史學科 鄭聖喜, 高命希, 蔡敬在, 具賢子, 黃善英, 李善愛, 朴貞姬, 曹貞美, 嚴美香, 金芝淑 諸君의 協助가 많았음을 附記하여 두는 바이다.

#### 第4節 調查日誌

1984年 7月 3日 (火) 晴

發掘調査를 위한 諸般準備 完了. 調査團 全員 12:00頃 蔚州郡 上北面 登億里 所在 潤月寺址 發掘現場 到着. 開土祭 奉行.(沈奉謹 發掘團長外 團員 一同 및 慶尚南道 蔚州郡 文化財擔當官 等 關係者 30餘名 參席) 發掘前 現場 近·遠景 寫眞撮影. 現場 除草作業 및 試掘地點 設定과 測量作業. 幕舍 設置作業.

1984年 7月 4日 (水) 曇·雨

現場 除草作業 및 幕舍 整理作業. 石造如來坐像保存閣(通稱 法堂) 앞 石佛 2軀 및 臺座 1基 方眼 設置作業. 雨天으로 因하여 午後作業 不可.

1984年 7月 5日 (木) 雨

雨天으로 因하여 現場作業 不可. 石佛 및 臺座 方眼 設置作業. 法堂內 石造如來坐像 方眼 設置作業.

1984年 7月 6日 (金) 曇

現場 除草作業 完了. 近·遠景 寫眞撮影. A, B, C, D, E, F, G, H, I, Pit 設置作業 및 Epit 表土 除去作業. 石佛 및 臺座 實測作業. 石造如來坐像 方眼 設置作業. Epit內 表土下 20cm 地點에서 攪亂狀態의 瓦片 약간과 螺髮形土製品 出土.

1984年 7月 7日 (土) 雨

雨天으로 因하여 現場作業 不可.

1984年 7月 8日 (日)曇·晴

Epit 表土 除去作業. 南·北塔址 Tr. 設置 및 表土 除去作業. 石佛 및 臺座 實測作業. 石造如來坐像 方眼 設置作業. Epit內에서 螺髮形土製品 및 瓦片, 土器口緣部片 多數 出土. 出土遺物 洗滌作業. 圖版 및 寫眞 整理作業.

1984年 7月 9日 (月) 晴

A, B, C, F Pit 表土 除去作業. 南·北塔址 表土除去 및 自然石과 塔材 區分作業. 出土遺物 洗滌作業 및 寺址 前方 除草作業. A, B, C, F Pit內에서 圓瓦當片 4點, 암막새片 1點, 平瓦 2點, 螺髮形土製品과 南·北塔址에서 用途 不明의 土器片 및 瓦片 多數 出土.

1984年 7月 10日 (火) 雨

出土瓦片 洗滌 및 整理作業. 石佛과 臺座 및 石造如來坐像 實測作業. 孫泰兵 蔚州郡守 및 郡廳 關係職員 一行 來訪.

1984年 7月 11日 (水)曇

出土遺物 整理 및 洗滌作業. 石佛 및 臺座 實測完了. 石造如來坐像 實測作業. 寫眞 및 圖版 整理作業.

1984年 7月 12日 (木)曇·雨

D, F, G, H Pit 表土 除去作業. A, B, C, D, E, F Pit內 遺構 露出作業. 南·北塔址內 腐蝕土 除去作業 및 攪亂狀態의 石列 整理作業. DPit 地表下 30cm 地點에서 青銅 菩薩立像 1軀(高 6.5cm) 出土. HPit內에서 螺髮形土製品 및 各 Pit內에서 銘文瓦片, 암막새片, 솥막새片 等이 多數 出土.

1984年 7月 13日 (金) 晴

F, G, IPit 表土 除去作業. A, B, C, D, E, FPit內 遺構 整理作業. 南·北塔址 遺構整理 및 塔材 實測作業. 發掘 全地域 近·遠景 寫眞攝影. IPit 地表下 30cm 地點에서 青銅如來立像 1 軀(高 6.7cm)와 銘文平瓦片 3點 및 螺髮形土製品 出土.

1984年 7月 14日 (土) 晴

A, B, CPit 擴張作業. M, N, OPit 表土 除去作業. 南·北塔址 塔材 實測作業. 出土瓦片 洗滌作業. A, BPit에서 銘文瓦片 및 암막새 1點 出土.

1984年 7月 15日 (日) 晴

南·北塔址 塔材 實測作業. A, B, C, M, N, OPit 擴張 및 腐蝕土 除去作業. BPit內에서 圓瓦當 2點 및 銘文瓦片 2點, CPit內에서 螺髮形土製品과 瓦片 多數, OPit內에서 銘文瓦片 3點 等이 各各 出土. 東亞高等學校 金桂弘 校長先生 및 周禮國民學校 金敬烘 校長先生과 鄭宗鉉 先生 一行 來訪.

1984年 7月 16日 (月) 晴

A, B, C, M, N, OPit內 遺構 整理作業. 南·北塔址 塔材 實測作業. 發掘 全地域 近·遠景 寫眞攝影. 出土遺物 洗滌 및 分類作業. 圖版 및 寫眞 整理作業. 本校 史學科 主任教授 黃雲龍 博士, 趙啓嶺 教授, 繪畫科 成昌慶 教授, 白聖道 教授 一行 來訪.

1984年 7月 17日 (火) 晴

A, B, C, D, E, F, N, OPit內 遺構 整理作業. L, MPit 表土 除去作業.

南·北塔址 塔材 實測作業. 出土瓦片 洗滌 및 分類作業. 發掘 全地域 寫眞  
攝影. LPit內에서 瓦片 多數 出土.

1984年 7月 18日 (水) 晴

D, E, F, MPit 腐蝕土 除去 및 遺構 整理作業. G, HPit 表土 除去作業.  
南·北塔址 塔材 實測作業. E, MPit內에서 螺髮形土製品 및 多數의 瓦片  
出土.

1984年 7月 19日 (木) 晴

D, E, F, G, H, IPit 腐蝕土 除去 및 遺構整理作業. M, PPit 腐蝕土 除去  
作業. 南·北塔址 塔材 實測作業. 發掘 全地域 測量(Scale;1/600)作業. E,  
GPit內에서 螺髮形土製品 및 瓦片 多數 出土. 本校 農科大學長 金正基  
博士, 理科大學長 崔在龍 博士, 東義工專 都東烈 教授 一行 來訪.

1984年 7月 20日 (金) 晴

G, H, NPit 腐蝕土 除去 및 遺構 整理作業. 全 Pit 遺構整理 및 寫眞撮  
影. 南塔址 塔材 實測完了 및 圖版 復元作業. 北塔址 塔石 實測作業. D, E,  
F, M, N, OPit 壁面 實測作業. 發掘 全地域 測量(Scale;1/300)作業. H,  
NPit內에서 瓦片 多數 出土.

1984年 7月 21日 (土) 晴

D, E, F, M, N, OPit 壁面 實測作業 完了. G, K, NPit 腐蝕土 除去 및  
遺構 整理作業. 發掘 全地域 測量(Scale;1/300)作業. NPit內에서 多數의  
瓦片 出土.

1984年 7月 22日 (日) 晴

A, B, CPit 間壁 除去作業. 北塔址 塔材 實測作業 完了. KPit內 遺構 露出作業. 發掘 全地域 近·遠景 寫眞攝影. BPit에서 螺髮形土製品 및 瓦片多數 出土. 圖版 및 寫眞 整理作業.

1984年 7月 23日 (月) 雨·曇

雨天으로 因하여 午前作業 不可. 出土 瓦片 洗滌 및 分類作業. 全 Pit內 排水作業. A, B, DPit 間壁 除去作業.

1984年 7月 24日 (火) 曇

C, G, H, IPit 間壁 除去作業. 發掘 全地域 整理作業. 南·北塔址 基壇石 方眼 設置作業. 出土遺物 分類 및 整理作業.

1984年 7月 25日 (水) 晴·曇

發掘 全地域 大清掃 및 整理作業. 出土遺物 分類 및 洗滌作業. 南·北塔址 基壇石 方眼 設置作業. KPit內 遺構 露出作業. 本發掘團 指導委員 東國大學校 黃壽永 總長, 本校 丁仲煥 博士, 文化財研究所長 金正基 博士, 梨花女子大學校 秦弘燮 博士, 趙由典 皇龍寺址發掘團長 및 蔚州郡 公報室長 一行 來訪.

1984年 7月 26日 (木) 晴

發掘 全地域 近·遠景 寫眞攝影. A, B, C, D, E, F, G, H, I, M, N, OPit 方眼 設置作業. 南·北塔址 方眼設置 및 實測作業. KPit內 遺構 露出作業. 圖版 및 寫眞 整理作業.

1984年 7月 27日 (金) 晴

A, B, C, D, E, F, G, H, I, KPit 方眼設置 및 實測作業. 南·北塔址 方眼設置 및 實測作業. 南·北塔址 方眼設置 및 實測作業. 本校 企劃室長 趙炳太 博士, 化學科 嚴泰燮 博士 來訪.

1984年 7月 28日 (土) 晴

A, B, C, D, E, F, G, H, I, KPit 方眼設置 및 實測作業. 南·北塔址 實測作業.

1984年 7月 29日 (日) 曇

A, B, C, D, E, F, G, H, I, KPit 및 南·北塔址 實測作業斗 寫眞撮影. M, NPit 間壁 除去作業 및 遺構 整理作業.

1984年 7月 30日 (月) 晴

A, B, C, D, E, F, G, H, I, KPit 實測作業. M, N, OPit 方眼 設置作業. 南·北塔址 實測作業 完了. 本校 法大學長 朴源永 博士 來訪.

1984年 7月 31日 (火) 晴

A, B, C, D, E, F, G, H, I, K, M, N, OPit 實測作業 完了. 南·北塔址 心礎石 調査作業. 發掘 全地域 近·遠景 寫眞撮影 및 圖版 整理作業. 本校 副總長 金秉圭 博士, 文科大学長 文永相 博士 및 朴敬源 釜山市立博物館長 一行 來訪.

1984年 8月 1日 (水) 晴

發掘 全地域 寫眞撮影 및 現場 復舊作業. 本校 工科大学長 李相潤 博士,

東國大學校 慶州大學 博物館長 張忠植 教授，慶州博物館 金誠龜 學藝研究  
官 一行 來訪。

1984年 8月 2日 (木) 晴

發掘 全地域 復舊作業 完了 및 寫眞撮影，圖版 및 寫眞 整理作業，出土  
遺物 包裝 및 撤收 準備作業。

1984年 8月 3日 (金) 晴

發掘調查作業 終了 地鎮祭 奉行，發掘團 全員 撤收。

## 第Ⅲ章 發掘調査內容

### 第1節 調査範圍와 方法

이번 調査는 澗月寺址內 南·北 兩塔의 復元을 위해서 塔材를 收拾하고, 金堂址를 調査하여 澗月寺의 實存時期를 把握하는 것이 目的이었으므로 調査範圍도 自然히 金堂址와 兩塔址 周圍로 限定해서 發掘調査를 實施하였다.

그 중·金堂址는 比較的 傾斜度가 緩慢한 地域에 前面에는 그렇게 높지 않은 築臺를 쌓아 建物を 配置하였는데 中央에 位置한 石燈址가 築臺에 닿을 程度로 金堂址 前面이 좁았다. 調査는 圖面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렇게 좁은 前面臺地를 포함해서 金堂址 全面에 中央柱礎石을 中心으로 幅 1m 크기의 楯을 남기고 가로, 세로 各 5m 크기의 Pit를 各各 設置하여 部分的인 調査를 始作하고, 점차 全面的인 調査로 擴大해 가는 方法을 취하면서 遺構와 遺物을 確認하였다.

그리고 南·北 두 塔址는 一般 雙塔伽藍 構造와는 다르게 金堂址 前面 中央에서 많이 벗어난 前方側面에다가 塔을 配置하되, 南塔址의 경우 人工으로 築臺를 만들어 그위에 基壇部를 設置하였고, 北塔은 野山의 稜線上에 基壇部를 設置하고 있다. 그러나 두 塔 모두 盜掘에 의해 倒壞되고 破損되었으며, 地臺石 内部까지 攪亂되고 말았다.

調査는 이렇게 破壞된 塔의 基壇部와 塔材가 흩어져 있는 部分에 Trench를 設置하여 塔의 본디 構造와 性格을 把握하려고 노력하였는데, 一部는 깨어져서 이미 損失된 部分도 없지 않았으나, 一部 塔材는 確認되었으므로 이 塔을 復元하기에는 큰 支障이 없을 程度였다.

이 밖에도 中門址, 東門址, 講堂址를 비롯한 各種 附屬建物址가 金堂址 前面의 田畚 가운데 埋没되어 있음도 確認되었으므로 次後 與件이 許諾하는대로 계속적인 調査를 實施하여 두 塔의 復元은 물론 澗月寺址의 全面的인 伽藍構造가 밝혀져서 整備 復元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第2節 金堂址의 構造와 塔의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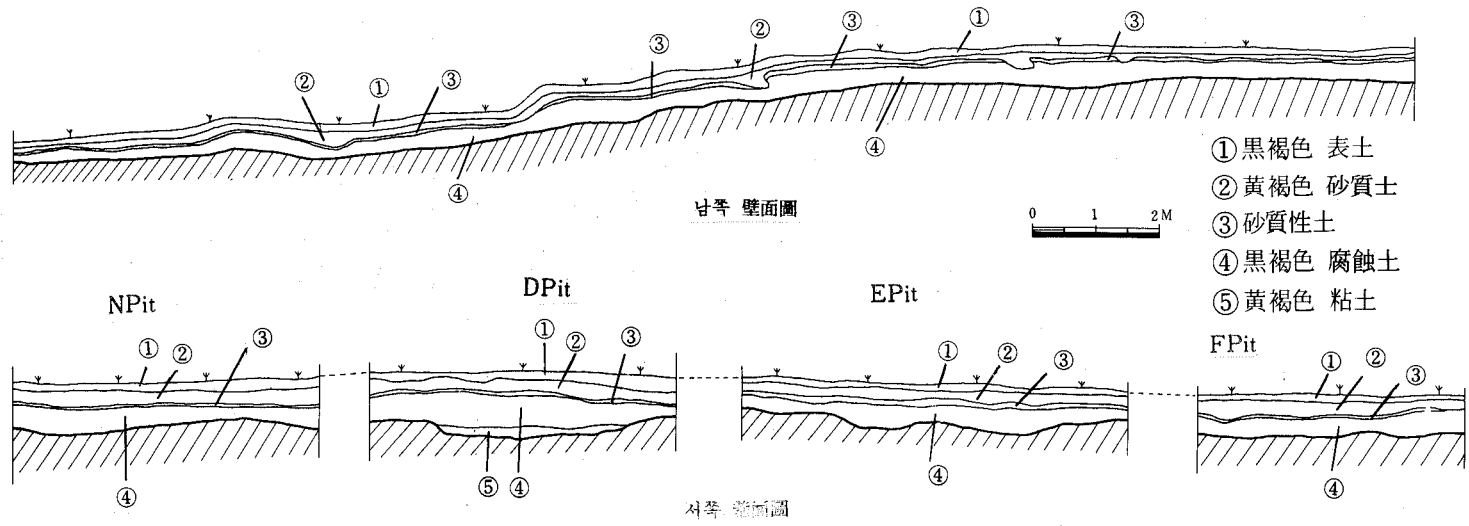
### 가. 金堂址

#### 1) 調査前狀態(圖面 3, 圖版 1)

金堂址는 澗月寺址 伽藍構造上 西쪽에서 東向하는 位置에 있으면서 地形上으로도 高地에 해당한다. 먼저 現在의 伽藍内部를 약간 說明한다면 入口인 東門址는 地形的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지금은 周圍가 果樹園으로 되어 있고 門址에 해당되는 곳에는 民家가 1棟 들어서 있다. 이 東門址와 金堂址 사이는 논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사이는 約 142m의 間隔을 두고 있으며, 金堂址 보다는 5~6m 程度가 낮다. 그리고 金堂址에서 동북쪽의 낮은 臺地에는 寶物로 指定된 石造如來坐像을 모시기 위한 保存閣이 있는데, 이 佛像을 中心으로 하여 現在 澗月寺라는 조그마한 庵子가 있고, 뒷편에는 역시 배나무 果樹園이 있다. 아직도 金堂址와 東門址 사이의 田畝中에는 建物の 長臺石, 瓦片 등이 많이 埋沒되어 있다고 하며 現在 地上에 露出된 것도 많다.

發掘調査前의 金堂址는 前記한 바와 같이 階段狀을 이룬 평평한 臺地 위에 소나무, 밤나무를 비롯한 各種 樹木이 茂盛하였고, 金堂址 中心部分에는 民墓 2基가 左右로 나란히 配置되어 있으며, 간혹 建物の 礎石과 長臺石이 露出된 곳도 있었다. 金堂址 周圍는 북쪽과 남쪽에 조그마한 개울이 現在의 澗月寺 뒷편으로 흐르고 있고, 墓築臺 아래의 좁은 平地에도 地下水가 배여 있었으므로 金堂址가 比較的 濕氣가 많은 곳을 메워서 配置되

圖面 3. 金堂址의 腐蝕土層 斷面圖



있음을 直感할 수 있었다. 過去의 伽藍內部가 모두 논으로 변해버린 것도 이 곳에서 흘러내린 地下水를 利用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느껴졌다.

그리고 金堂址 周圍가 평평한 臺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곳에 民墓가 들어서기 전에 모두 開墾해서 밭으로 使用한데 基因한 것이며 開墾 當時 遺蹟의 原狀破損이 심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基壇狀態

앞에서 밝혔듯이 처음 發掘現場에는 2基의 民墓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데 그 位置가 마침 金堂址의 中央에 있었기 때문에 緣故者를 찾아 移葬을 시키기에 이르렀는데, 바로 그 民墓가 位置하고 있었던 地點에서 佛像臺座의 四角地臺石이 나타났던 것이다. 때문에 이 佛像臺座의 地臺石을 中心으로 圖面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前後左右 1m씩의 篤을 남기고, 四方 5m 幅의 Pit를 設置하여 調査를 實施하였다.

그 結果 意外로 金堂의 柱礎石과 長臺石, 地枋石 등의 各種 遺構는 比較的 良好한 殘存狀態를 維持하고 있는 듯하였으나, 內部는 이에 비해 그 攪亂된 狀態가 대단히 심한 편이었다. 이것은 물론 甞 進行된 耕作地 開墾으로 因한 結果이기도 하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金堂의 增·改築時 입은 攪亂이 또한 무시하지 못할 理由로 指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狀態에서 金堂址의 基壇狀態를 把握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나, 部分的으로 確認된 事實을 綜合하여 說明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

본디 金堂址가 位置한 地形은 後面인 서쪽이 약간 높고 前面인 동쪽이

낮은 緩慢한 傾斜를 이루는 地形으로서 雨水期가 되면 地下水가 스며들기에 충분한 地形的 與件을 갖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金堂址의 基壇은 이러한 地形 위에 表面의 腐蝕土조차도 되파기를 하지 않은 채 直徑 20~25cm 前後의 넷돌과 모래가 混入된 黃褐色砂礫을 75cm 程度 쌓아 다지고, 다시 그 위에 黃褐色土를 덮어 다진 후 그 위에 礎石과 長臺石을 配置하는 약간 粗雜한 感を 갖게 하였으며, 그 範圍는 가로 1377cm, 세로 1072cm의 金堂址와 그 前面의 石燈址 部分이었는데, 前面의 石燈址 周圍는 約 20cm 程度로 얇게 깔려 있었다.

따라서 後代에 와서 變形되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現在의 狀態로서는 板築과 같은 特殊手法은 使用하지 않았음이 分明하였다.

이를 좀더 자세히 說明한다면 圖面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草木이 茂盛한 맨 위의 黑褐色表土를 30cm 程度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柱礎石과 樑間, 道里間의 長臺石, 地枋石 그리고 築臺石이 一部 攪亂되기는 하였으나, 比較的 整然하게 露出되었고, 그 아래에 다시 黃褐色의 砂質土가 20cm 程度 얇게 깔려 있었다. 그리고 이 砂質土層 아래는 다시 砂礫으로 다져진 砂礫層이 있었고, 그 밑에는 얇은 黑褐色腐蝕土層이 生土層 위에 있었다. 이와 같은 砂礫層은 金堂址에는 두겹게, 그리고 前面의 石燈 周圍는 얇게 깔려 있었으며, 여기에 使用된 砂礫은 모두 潤月寺址 前方에 흐르고 있는 酌掛川에서 옮겨온 것인 듯하였다.

한편 金堂址의 築臺는 基壇部가 높게 構築된 前面의 경우는 1m 이상 높

게 造成되었기 때문에 그 돌레를 自然石 또는 加工한 花崗岩으로 받쳐 쌓았다. 그러나 동쪽인 前面은 대부분 破損되어 그 形態를 確認하기 어려웠으나, 서쪽인 後面과 南·北側面은 다소 잘 남아 있어서 築臺가 있었음이 確認 可能하였다.

즉 築臺는 中央에 놓인 金堂 建物を 中心으로 前面인 동쪽은 外陣 心心에서 地臺石 外緣까지 310cm, 남쪽은 230cm, 서쪽 230cm, 북쪽은 132cm의 間隔을 두고 있었는데 동쪽과 남쪽, 북쪽 側面의 中間 前方地點까지는 花崗岩으로 加工된 地臺石을 具備하고 있었으나, 서쪽 後面과 左右側面의 中間 後方에는 이를 使用하지 않고 약간 모나게 加工한 1枚의 自然大石을 나란히 排列할 程度로 간략하게 處理하였다. 이와 같은 手法은 본디 傾斜진 生土層 위에 建物の 基壇部를 構築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낮은 동쪽은 높게, 그리고 높은 서쪽은 얇게 砂礫이 쌓이게 되므로 서쪽의 生土層을 되 파기하지 않고는 동쪽과 같은 面石을 排列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 남쪽에 面石을 排列하였던 地臺石이 있던 곳은 上下成基壇을 가진 2중의 階段式 築臺였던 것 같다.

즉 이 部分이 比較的 攪亂이 심해서 確實하지는 않지만 圖面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쪽의 경우는 自然石을, 바깥 쪽은 加工한 굽달린 地臺石이 各各 殘存하고 있음이 確認되었고, 前面 中央에는 組立한 二段의 돌계단이 配置되어 있었다. 물론 周圍에는 自然石 뿐만 아니라 面石 等の 石物이

대부분攪亂되어 본디의 位置를 維持하지 못한 흠은 있으나, 만약 처음부터 二重基壇의 築臺를 갖지 않은 것이라면 創建以後 增·改築 過程에서 前面을 二重으로 된 部分 만큼 擴大 또는 縮小한 結果라고 생각되는데 地形上으로 보아서는 二重基壇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理解하기에는 쉬운 感이 있다. 그러나 안쪽의 築臺石 一部는 地臺石 위의 面石으로 使用되었던 花崗岩을 길게 눕혀놓은 狀態로 後에 變形되었을 可能性을 示唆하는 點도 있다. 現存하는 동쪽의 甲石은 一般 建築物의 甲石과 같은 윗면은 평평한 長方形이나, 모난 部分도 마찬가지로이며 中間의 面石에는 隅柱 또는 撐柱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地臺石은 生土層上에 設置되어 있는데 안으로 꺾어진 1段의 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築臺 正面 中央에 놓여있는 石階는 現在 2段이 殘存하고 있는데 左右의 長方形 隅石을 비스듬히 눕히고 斷面 直角의 長臺石인 階段石 (길이 191cm, 폭 33cm, 두께 20cm)을 그 사이에 끼워서 階段狀의 形態를 取하고 있었다. 역시 이 階段도 攪亂되어 본디의 모습을 維持하고 있지 않아서 確實한 構造를 說明할 수 없다.

圖面上에 나타난 正面의 築臺石은 階段石의 位置로 보아서는 크게 移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나, 築造된 모습은 原狀이 아니다. 즉 金堂 廢墟 後에 耕作地로 使用되면서 발독으로 築造하였기 때문에 自然石, 面石, 甲石等 各種 築臺石을 모아서 쌓아둔데 지나지 않는다.

한편 後面部位의 築臺石은 自然 山石을 方形으로 모나게 약간 加工한 뒤

地形에 따라서 生土層을 깊게 혹은 얇게 되어서 그저 排列한 形態인데 後에 攪亂되어 原狀이 破壞된 일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正面을 除外한 側面이나 後面에서는 階段 같은 것도 確認되지 않았다.

다시 여기서 金堂址의 基壇構築과 築臺를 要約한다면 먼저 傾斜진 肝月山 동쪽 기슭에 東向하게 金堂을 配置하되 基壇部는 본디의 腐蝕土層 위에 가로 1377cm, 세로 1072cm 規模로 前方 酌掛川에서 砂礫을 運搬해 와서 높이 75cm 程度로 쌓아 다진후 다시 黃褐色의 砂質土를 덮고 그 위에 礎石과 長臺石을 配置하였다. 이와 같은 基壇部의 構築手法은 얇긴 하지만 前面의 石燈址 附近에서도 確認할 수 있었다.

築臺는 이렇게 構築된 基壇 둘레에 自然石 또는 加工된 花崗岩으로 받쳐 쌓았는데 前面인 동쪽과 側面인 서쪽과 북쪽의 中間地點에서 前方은 안 쪽은 自然石으로, 바깥 쪽은 花崗岩으로 된 上·下成基壇의 築臺 痕迹이 있었으며 나머지 部分은 약간 治石한 自然石을 두른 狀態였다. 그러나 築臺石의 攪亂이 심해서 二重 또는 後의 增·改築에 의한 擴大 혹은 縮小에 基因한 것 인지는 確實하지 않아서 次後 이와 같은 時期의 建物址 調査例를 기다려 밝히기로 한다.

其他 金堂址 둘레에는 正面 中央 1個所에만 階段을 配置하였으며, 築臺의 地臺石, 面石, 甲石의 特徵은 統一新羅末의 一般 建物의 基壇部 築臺 例와 同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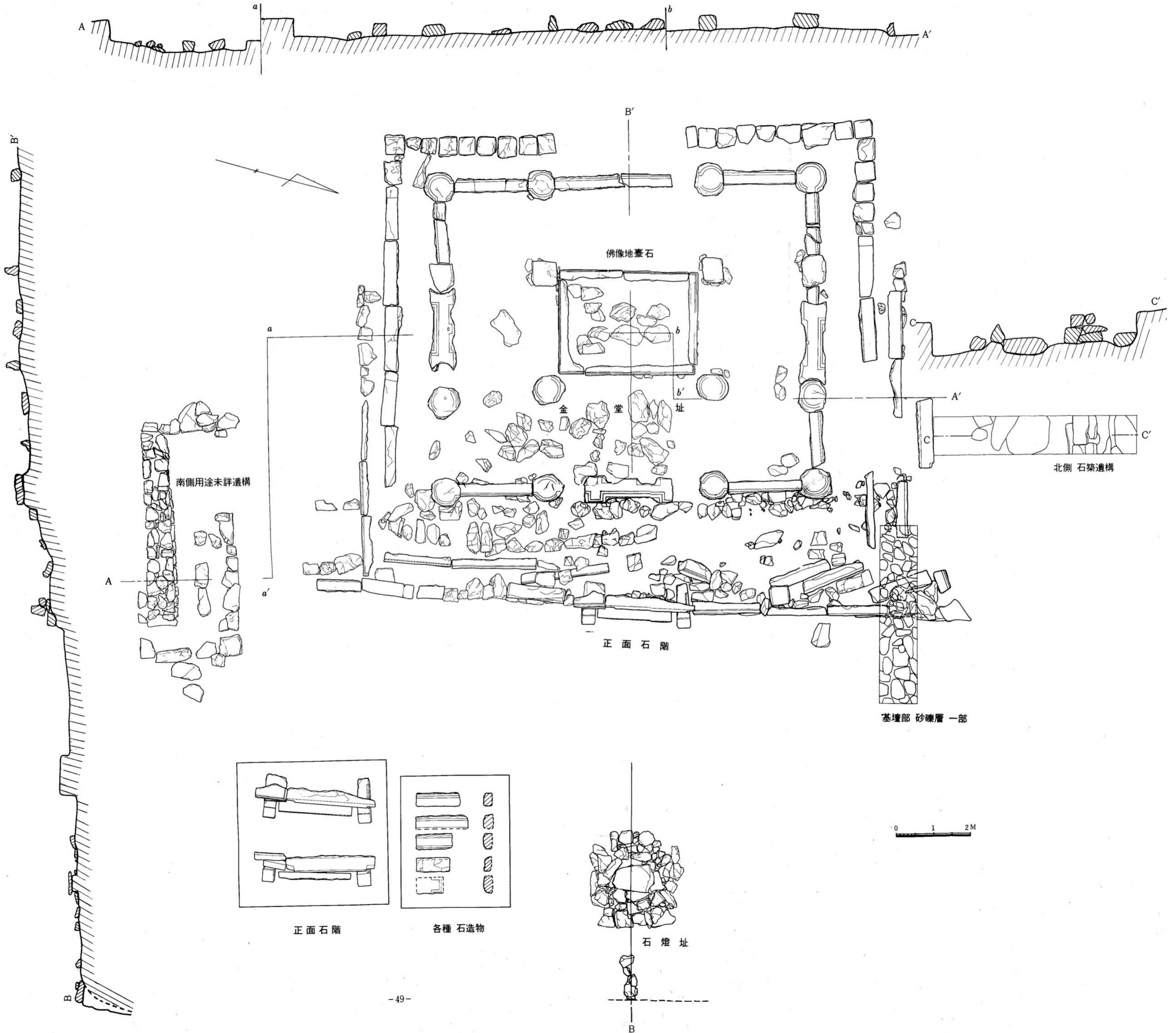
### 3) 礎石과 平面狀態(圖面 4, 圖版 2~11)

金堂址는 内外陣의 礎石이 調査過程에서 모두 밝혀져서 그 規模를 確認하기가 容易하였다. 즉 正面 3間, 側面 3間の 거의 正方形에 가까운 平面 中央에는 方形의 佛像臺座 地臺石을 남기고 있고, 外陣 道里間, 樑間에는 長臺石과 地枋石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이들 礎石과 長臺石은 前記한 黃褐色砂質土層을 되파기한 뒤 直徑 30cm 前後의 積心石을 깔고 이를 다진 뒤에 配置하였다.

그러나 이 平面構造가 創建 當時의 그대로인지 아니면 後에 變形시킨 것인지는 確實하게 밝힐 수 없었지만 現在의 礎石과 地臺石은 1次 移動된 痕迹을 갖고 있었다. 즉 본디 外陣의 柱礎石은 모두 圓形柱座를 갖고, 内陣의 柱礎石은 柱座없는 方形礎石을 그대로 使用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북쪽과 남쪽의 外陣 礎石 가운데 中間의 地枋石 다음의 礎石이 양쪽 모두 柱座없는 方形石인데 비해 内陣의 前面에 該當되는 道里間 礎石은 柱座를 가진 것이며, 礎石에 새겨진 柱座의 方向도 서로 어울리지 않고 어긋지게 配置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 内, 外陣 礎石을 後에 바꾸어 놓은 듯하였다. 그렇다고 크게 建物 自體의 基壇部를 攪亂시키면서까지 變形시킨 것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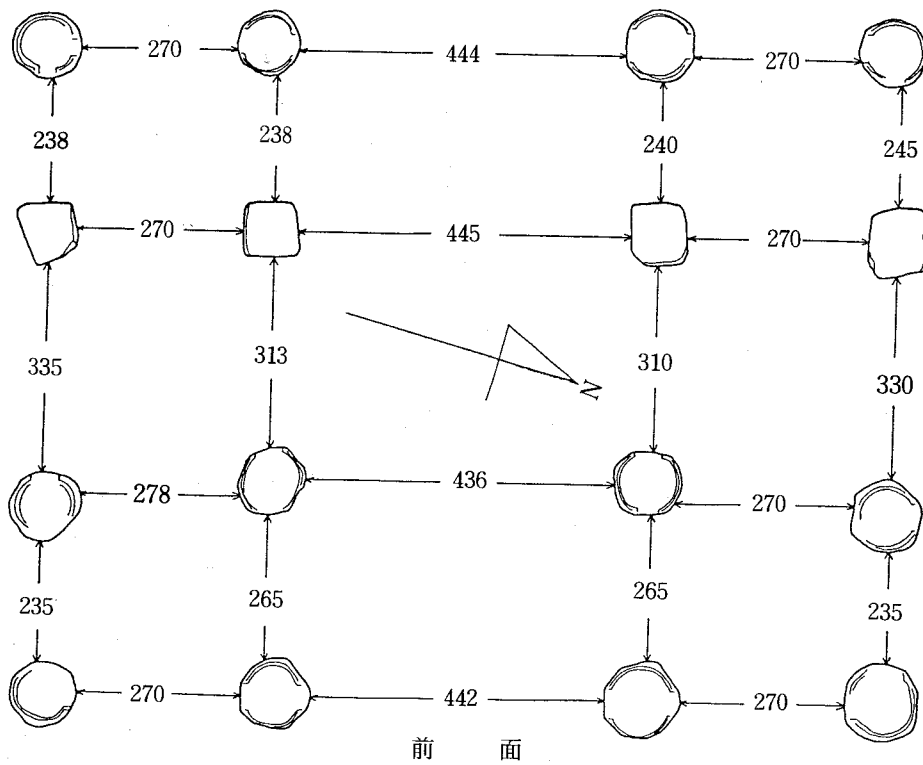
그리고 道里間 樑間에 配置된 長臺石의 서쪽 中央道里間을 除外하면 比較的 良好하게 殘存하고 있는데 外緣側으로 層段을 새기고 있다. 또한 門址에 該當하는 地枋石은 동쪽, 남쪽, 북쪽의 3面의 中央에 各各 配置되어

圖面 4. 礎石斗 平面狀態



있고 모두 内外側으로 區分되며 各側은 層段을 表示하여 門은 開閉케 하였는데 안쪽으로 門을 固定시킨 홈이 파여져 있다.

各内外陣 礎石間의 心心거리는 다음 表와 같으나 廢墟 後에 攪亂이 심하였던 탓으로 一定하지 않아 尺度를 確認하기에는 적당치 못하였다.



(단위 : cm)

〈金堂址 道里間 樑間 實測值〉

한편 内陣 礎石 中央에 位置한 佛像臺座의 地臺石은 5枚의 長臺石으로 組立한 것인데 역시 積心石을 굳게 다진 위에 直接 設置하였으며 外緣에 희미한 層段와 隅角部에는 隅柱를, 中央에는 撐柱를 새기고 있다. 그리고 이 四角地臺石의 中心部分에는 直徑 1m 크기의 自然大石 2枚를 묻어 心礎石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地臺石의 形態로 미루어 보아 本尊佛은 四角臺座를 가진 比較的 大型에 속하는 佛像이었다고 짐작되는데 現在 寶物 370號로 指定된 澗月寺址石造如來坐像을 이곳에 모셔두었을 可能性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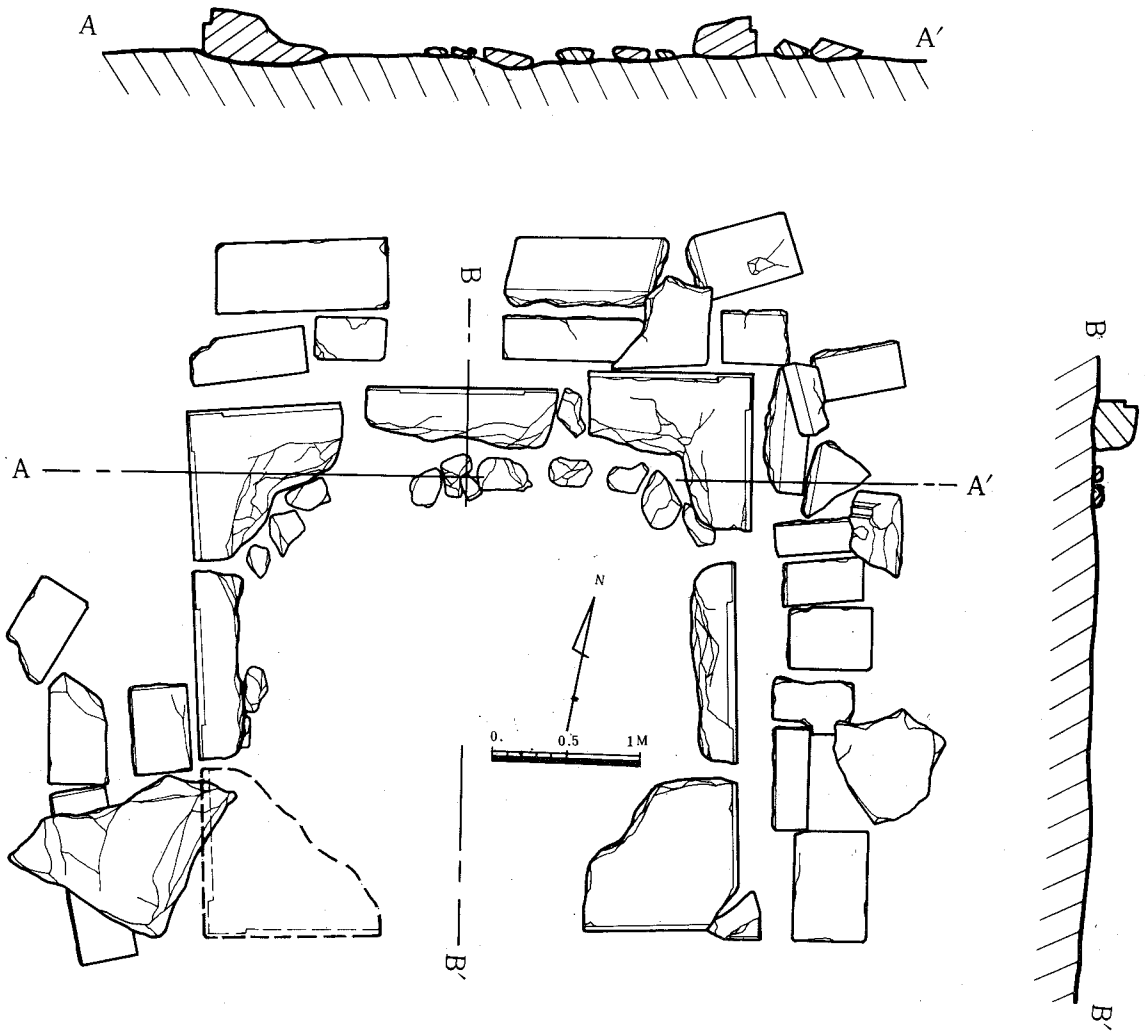
#### 나. 石 塔

澗月寺는 雙塔伽藍 形式이나 金堂이 東向하고 있으므로 一般 南向하는 金堂을 가진 東·西塔과는 달리 南·北塔으로 되어 있고, 石塔의 位置도 보통 寺刹과는 달리 金堂에서 左右로 各各 34m 程度 떨어져 있는 點이 特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南·北 兩塔은 모두 崩壞되고 塔材가 一部 毀損되어 完全한 모습으로 復元하기는 어려우나 部分的인 塔材를 相互 比較하면 거의 原狀에 가까운 形態로 復元될 수 있을 것이다.

##### 1) 北塔(圖面 5~16, 圖版 12~16)

北塔은 一般 伽藍의 東塔에 該當하는 石塔으로 본디 金堂址 北東쪽에 있는 작은 野山의 稜線 頂上에 位置하고 있었는데 調査 當時는 初層屋身과 屋蓋石, 中臺石, 中臺甲石은 모두 稜線 남쪽의 溪谷 아래에 떨어져 있었고, 塔址 周圍에는 地臺石과 2,3層屋蓋石, 3層屋身 등의 작은 石物만 흩

圖面 5. 北塔址 基壇部



어진 채 남아 있었다.

北塔址가 있는 稜線은 花崗岩으로 된 岩盤 頂上이므로 이 岩盤을 곧 塔의 地盤으로 삼아 塔을 세웠고 塔材도 이 周圍의 花崗岩을 加工하여 使用하고 있다.

北塔의 構造는 이렇게 단단한 自然岩盤 위에 얇게 黃褐色粘土를 다져 깔고 그 위에 地臺石을 겸한 下臺底石을 配置하고 있는데 이 下臺底石은 모두 8枚로 組立되어 있고 下臺中石과 同一石이다. 그리고 下臺中石에는 隅柱와 2面의 撐柱가 새겨져 있고, 下臺底石 周圍에는 납작한 長方形石을 깔아 塔區로 삼은 듯한데 攪亂이 심하여 明確히 말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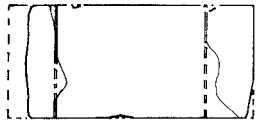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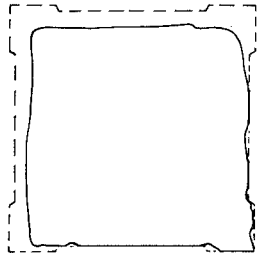
下臺甲石은 4枚로 組立하였는데, 中石받침을 갖고 있었으나 얇아서 原狀을 維持하지 못하고 대부분 破損된 破片石만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의 上臺中石은 모두 8枚로 組立하였는데 역시 隅柱와 2面의 撐柱를 갖추고 있으며 上臺甲石은 4枚로 組立하고 아래로 甲石副緣과 위로 屋身과임을 具備시키고 있는데 역시 대부분 破損되고 一部 破片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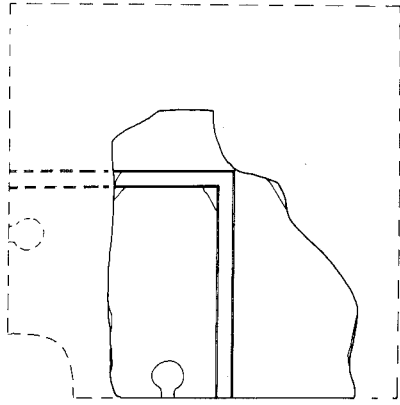
1枚石으로 된 初層屋身石은 高 125cm, 幅 132cm의 大形으로 四面에는 兩隅柱 사이에 仁旺像 2軀를, 그리고 그 中間에는 三重의 門扉를 各各 模刻하고 있으며 上面 中央에는 가로 23cm, 세로 23cm, 깊이 17cm의 方形舍利孔을 뚫어놓은 比較的 完全한 狀態를 維持하고 있었다.

또한 四面에는 무서운 얼굴을 한 仁旺이 구름을 타고 飛天하는 모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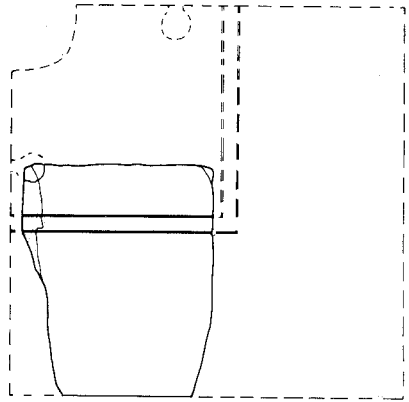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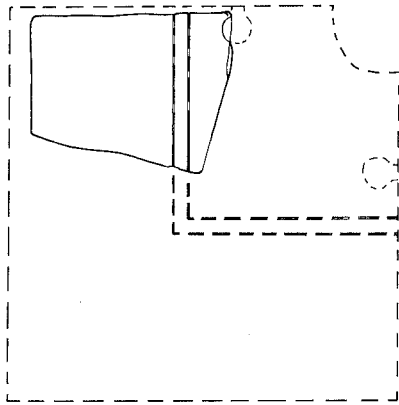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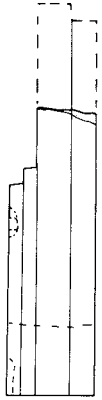
圖面 6. 北塔地에서 確認된 各種 塔材片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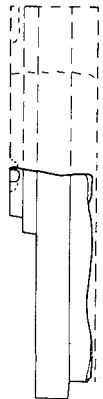
三層 屋身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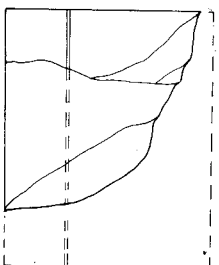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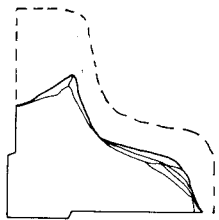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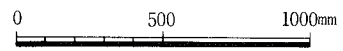
上臺甲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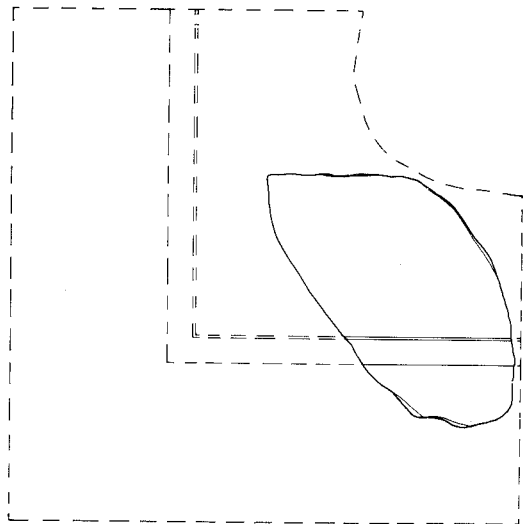
上臺甲石



上臺甲石



上臺中石 (隅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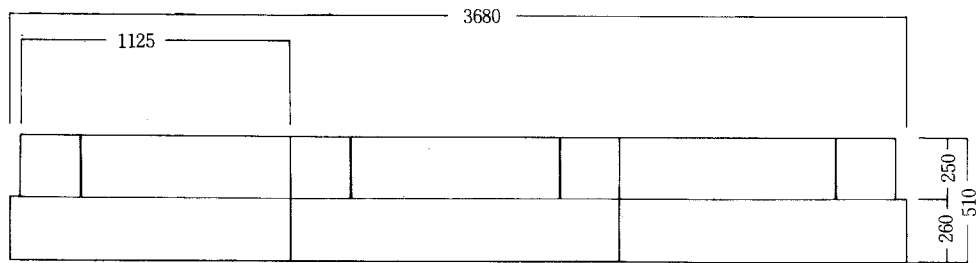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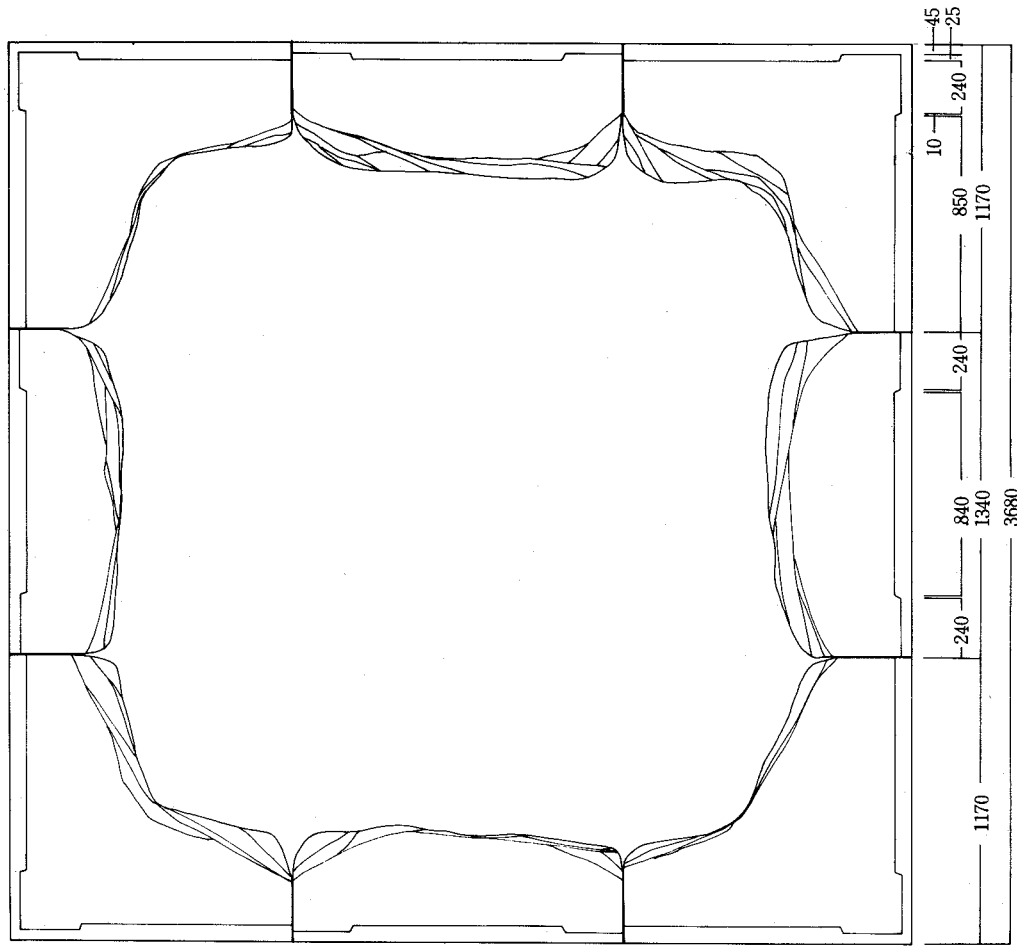


下臺甲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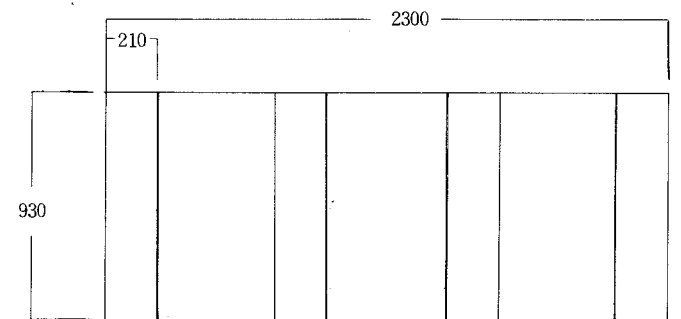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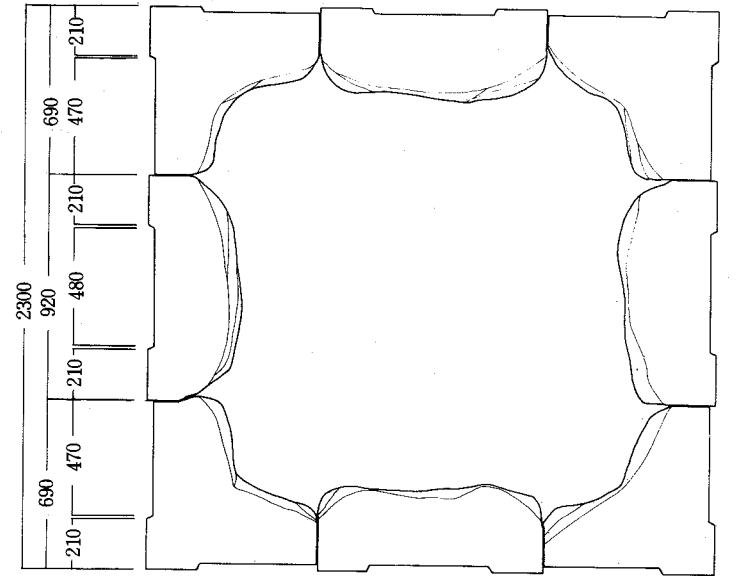


圖面 7. 北塔 地臺石과 上臺中石 復元 實測圖

(단위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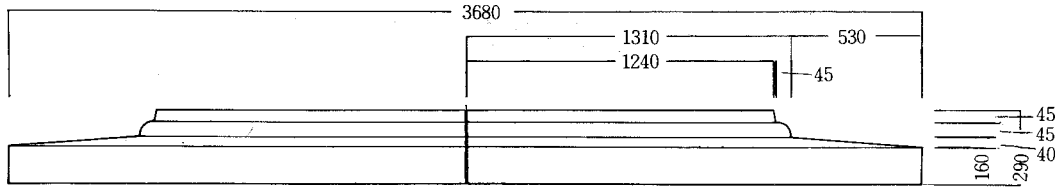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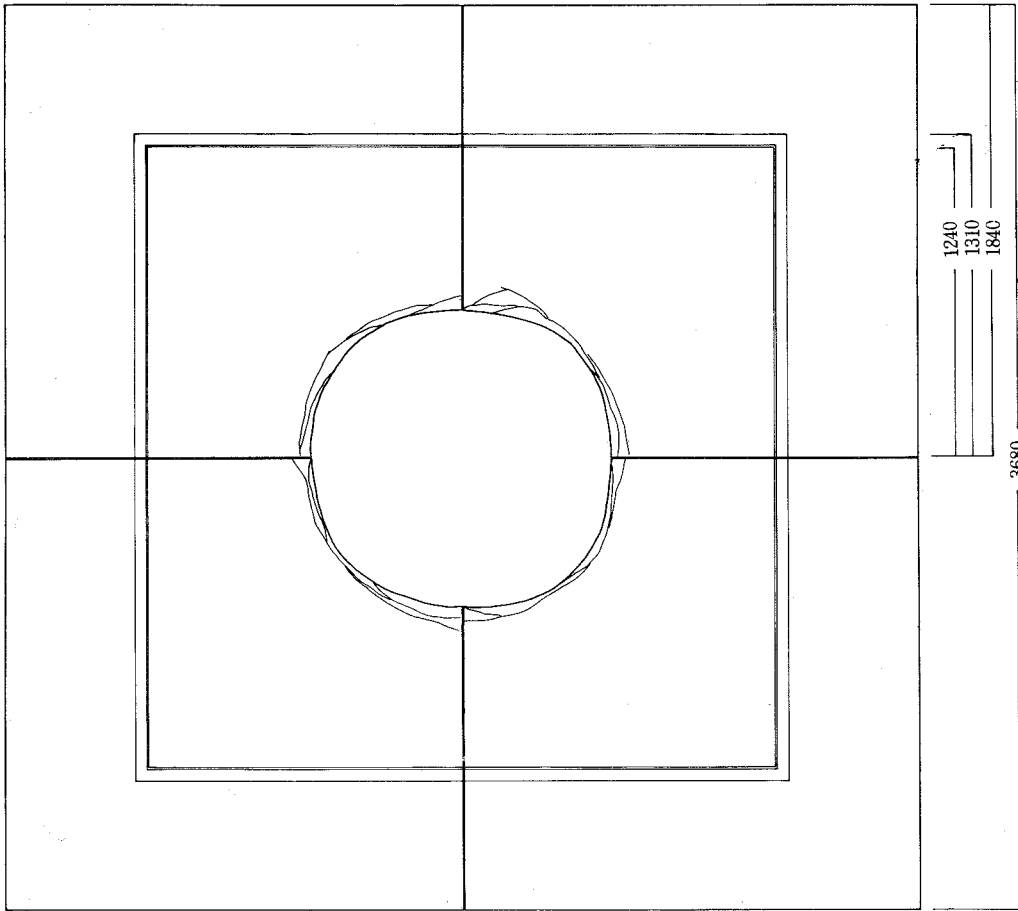
地 臺 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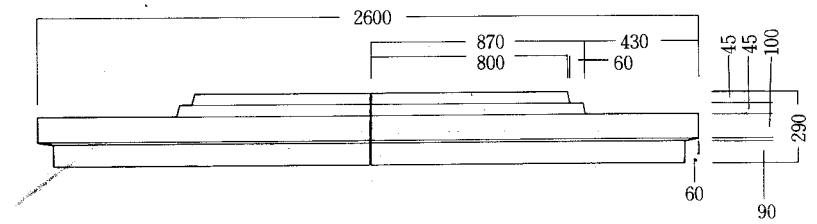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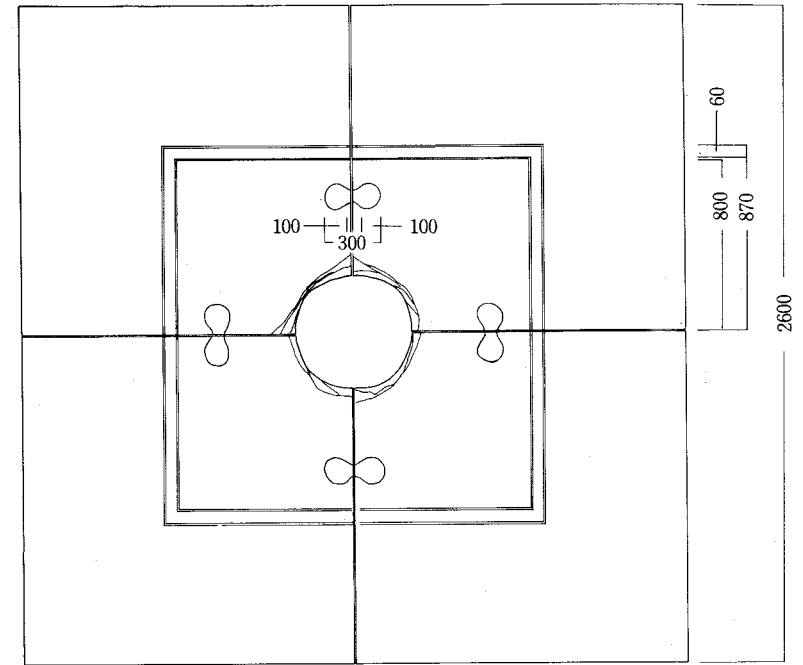
上 臺 中 石

圖面 8. 北塔上·下臺甲石復元實測圖

(단위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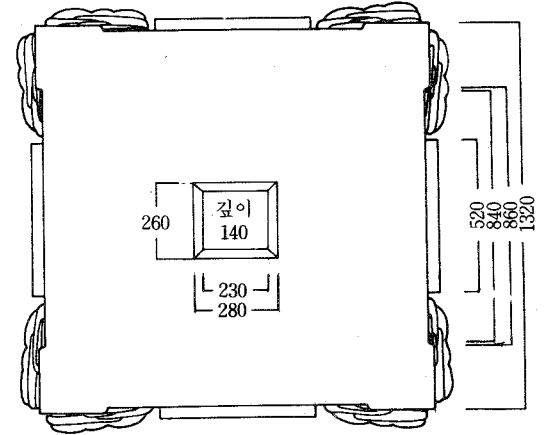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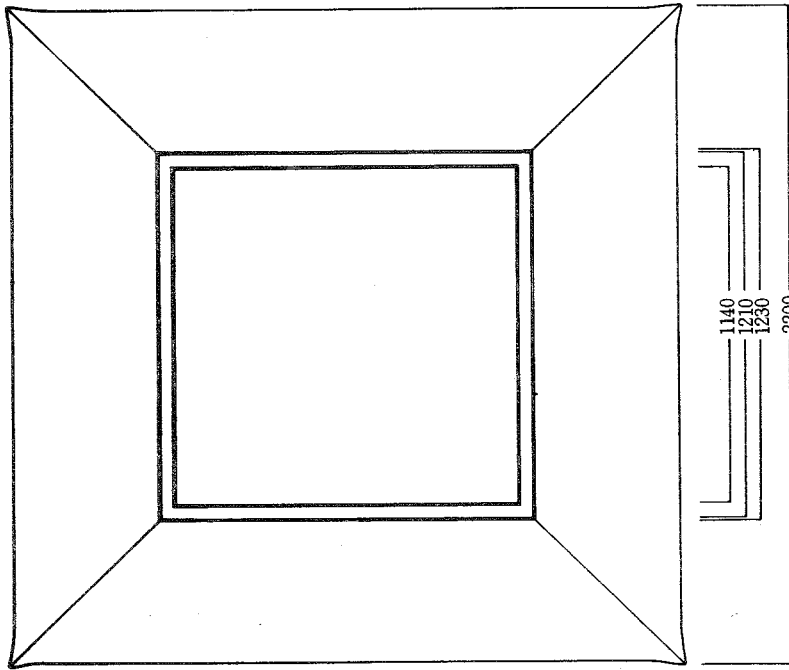
下臺甲石



上臺甲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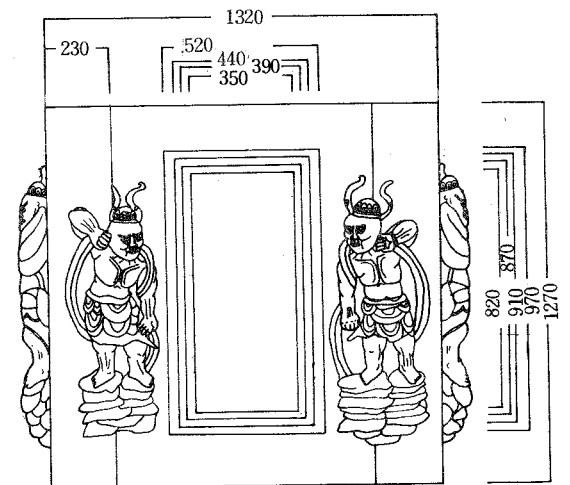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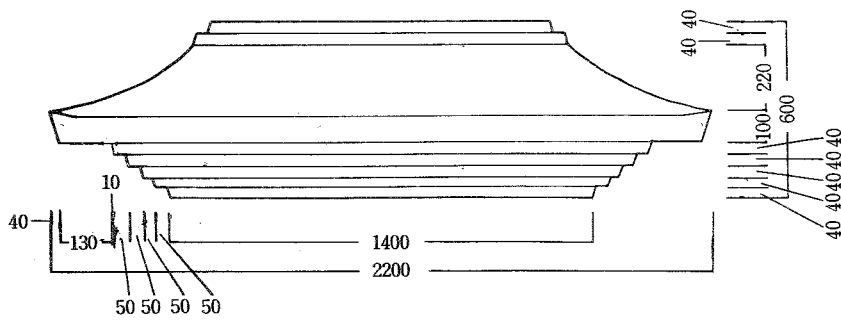
圖面 9. 北塔 初層 屋身 屋蓋石 實測圖

(단위 : mm)



初層 屋身石

初層 屋蓋石



陽刻해 두었는데 그 形像이 살아움직이는 듯 힘차고 生動感이 넘친다. 一部 코끝이 磨滅된 것도 있으나 比較的 良好하게 잘 남아 있다. 이와 같이 塔身에 仁旺像을 남기고 있는 것은 慶北 月城郡 簞項里 五層石塔<sup>11)</sup>을 비롯하여 全南 求禮郡 華嚴寺 四獅三層石塔<sup>12)</sup> 등이 있는데 時期的으로는 8世紀에서 8世紀 中葉에 該當하는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初層屋蓋石의 落水面은 느린 彎曲을 이루면서 끝이 약간 쳐들린 듯하며, 屋石받침은 5層이고 쳐든 듯한 隅棟端에는 양쪽으로 風鈴을 달았던 구멍 자국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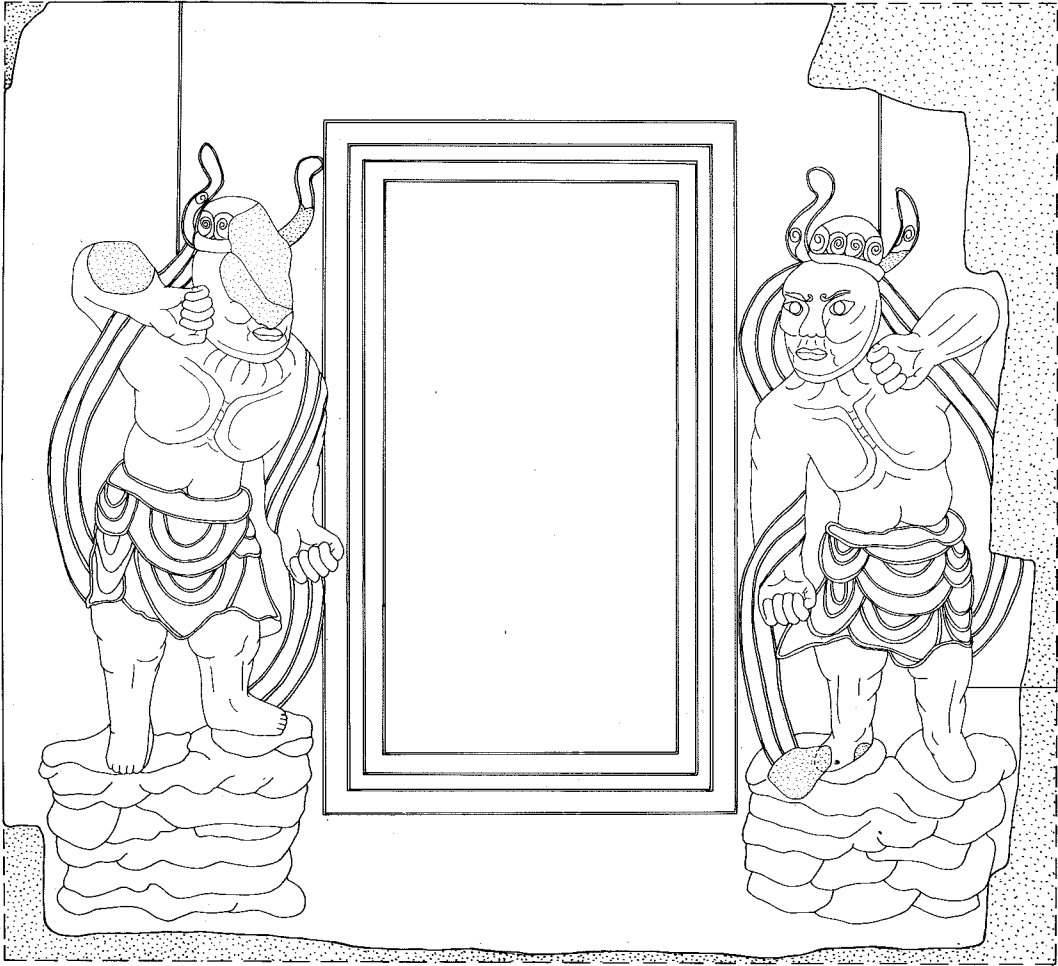
11) 慶尚北道 月城郡 陽北面 簞項里寺址 東·西에 位置하고 있는 이 塔은 慶州 附近에서 드물게 보이는 五層塔으로 東塔은 溪谷에 倒壞되었던 것을 解放後 破材를 收拾하였고, 西塔도 1925年 盜掘에 의해 暴破되었던 것을 1932年 復元補修한 것으로 兩塔 同形 同大의 것으로 보인다. 二重基壇으로 上下層에 各 撐柱 2로 區分되고 塔身과 屋蓋는 各 1石으로 되어 있고 各層 屋石받침은 5段이다. 初層屋身의 四面에는 門扉形을 模刻하였고 그 左右 蓮花座에는 仁旺像을 새겼다. 추녀는 水平이고 落水面도 平薄하며 相輪에는 露盤만 남아 있다. 높이는 9m이다.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 中卷」 參照)

12) 全羅南道 求禮郡 馬山面 黃田里 12番地에 位置하고 있다. 統一新羅時代에 만들어진 塔으로 높이는 5.5m이다. 二重基壇으로 地臺石 위에는 높직한 3段받침이 있고, 下層基壇의 面石의 各面에는 撐柱가 없고, 그 대신에 3軀式의 眼像이 彫刻되어 있다. 그 眼像 内部에는 天人像이 있으며, 上層基壇의 隅柱대신 雌雄 2雙의 獅子가 있고, 이 사자의 頭部에는 蓮花臺가 있으며, 이것들이 甲石을 받고 있다. 獅子像들의 中央에는 撐柱대신에 蓮花臺上에서 合掌한 大德의 立像이 있고, 甲石의 속 中央에도 蓮花를 彫刻하여 天蓋로 삼았다. 塔身部는 첫 塔身의 四面에 門扉形을 模刻, 그 左右로 正面에는 仁旺像이 2軀, 뒷면에는 菩薩像이 2軀있고, 塔身의 2層에서부터는 單一石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서부터는 隅柱形이 模刻되어 있고, 屋石의 받침들은 5段으로 되어 있다. 上輪部에는 露盤과 覆鉢만이 남아 있다. 現在 國寶 第35號로 指定되어 있다.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 下卷」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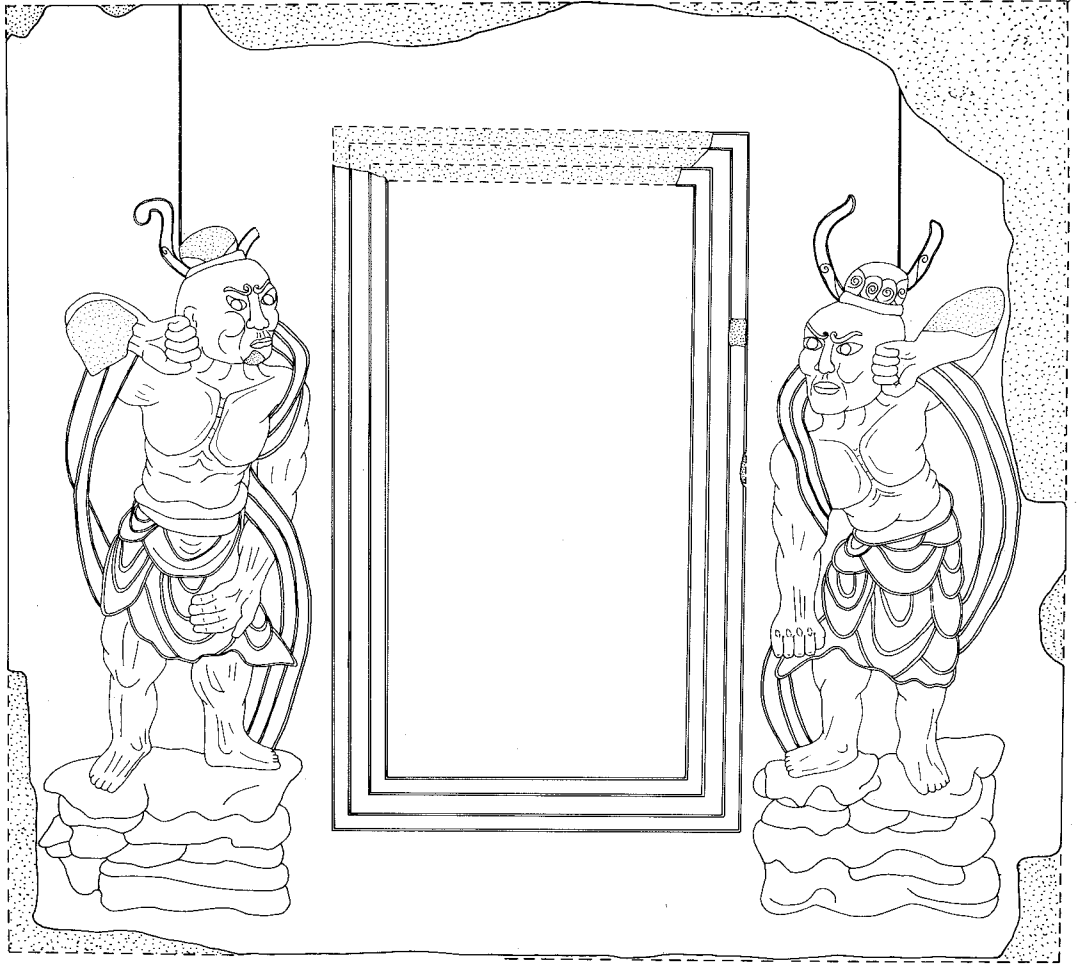
圖面10. 北塔 南面 仁旺像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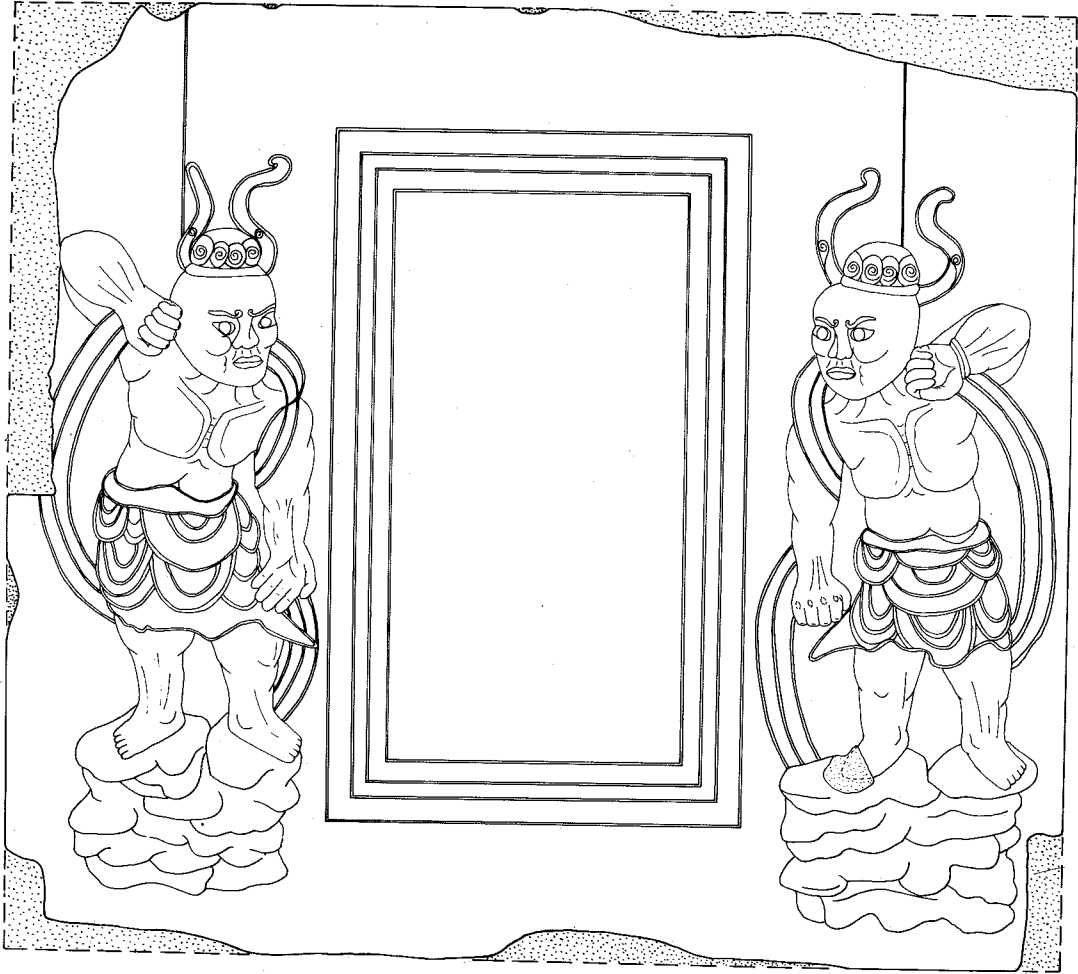
圖面11. 北塔 西面 仁旺像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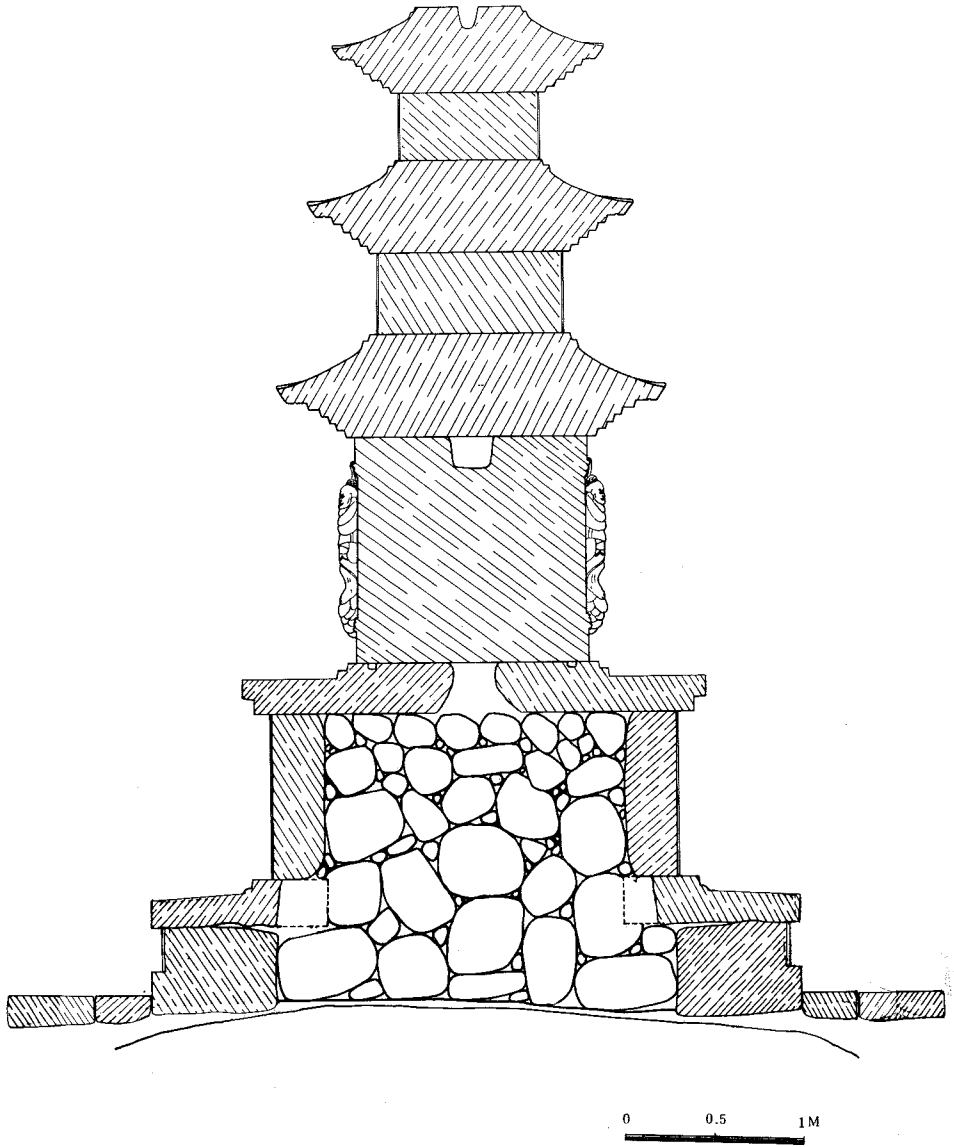
圖面12. 北塔 東面 仁旺像 實測圖



圖面13. 北塔 北面 仁旺像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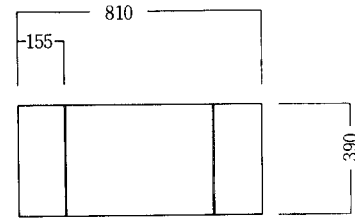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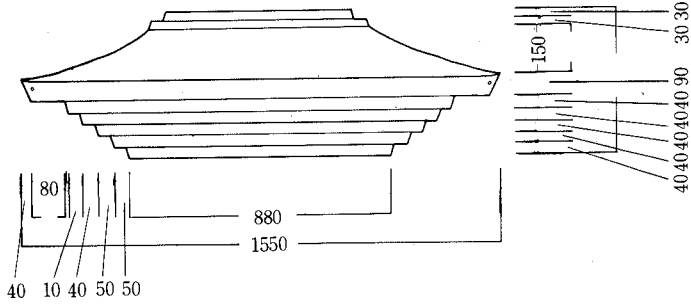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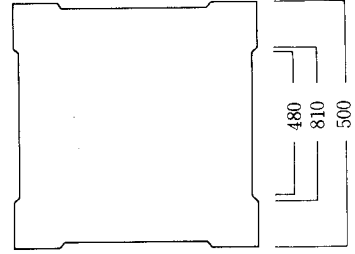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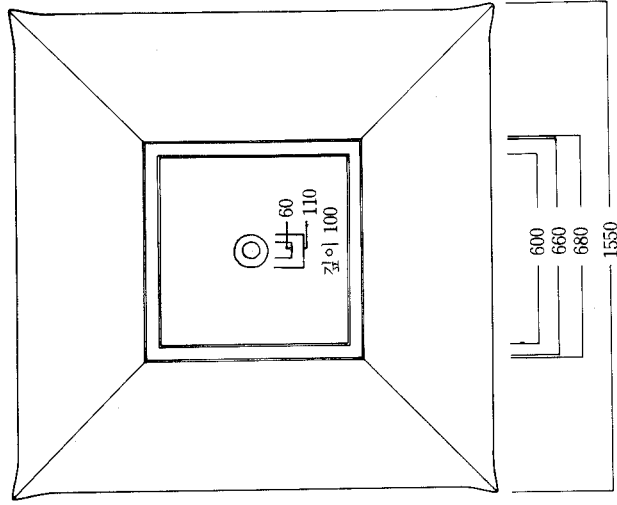


圖面14. 北塔 復元 斷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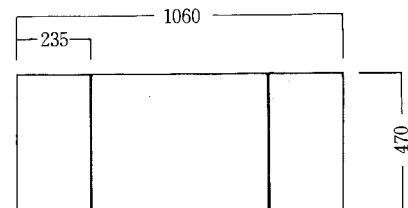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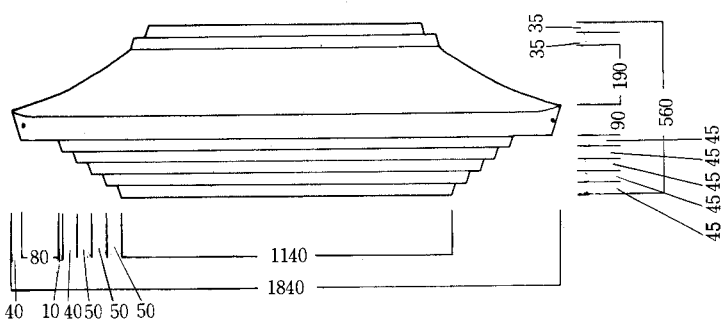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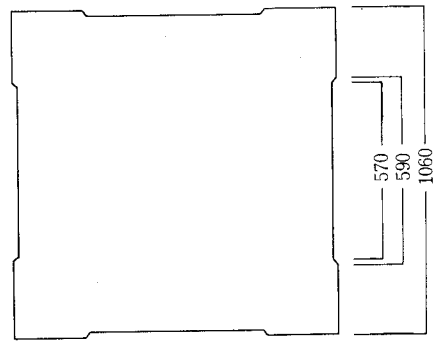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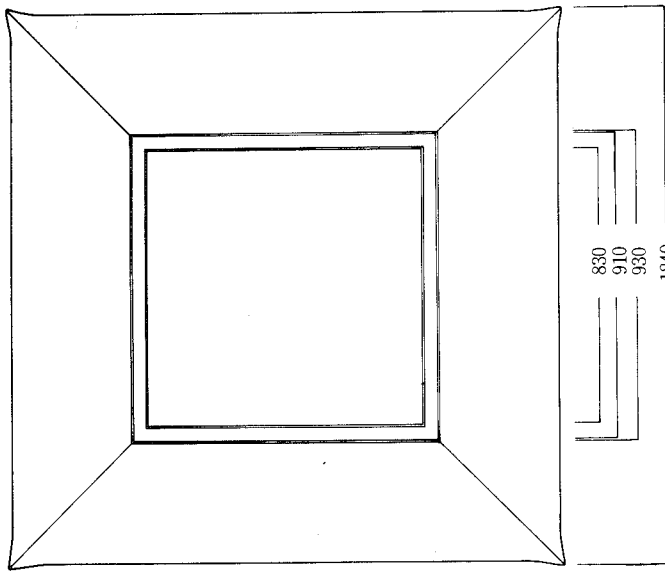
圖面15. 北塔 2・3層 屋身・屋蓋石 實測圖

(단위 : mm)



三層 屋蓋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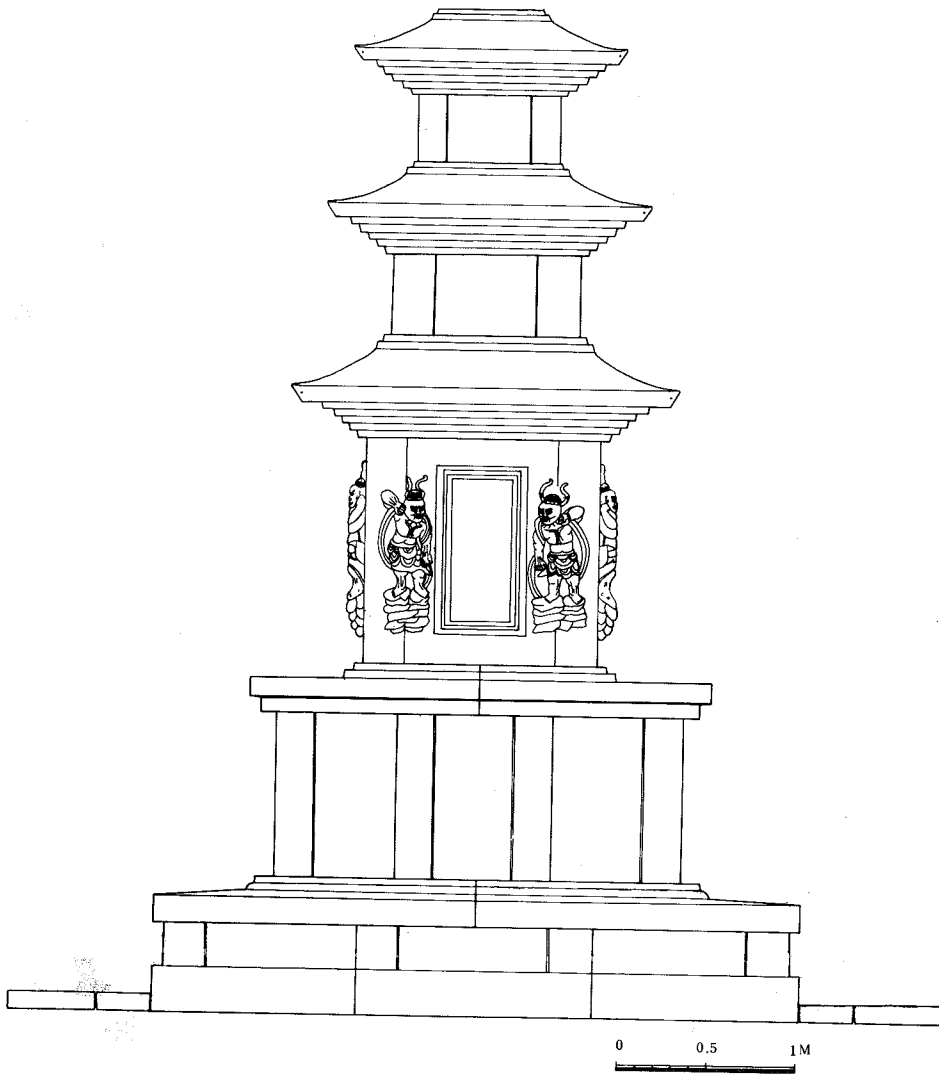
三層 屋身石



二層 屋蓋石

二層 屋身石

圖面16. 北塔 復元 實測圖



2,3層屋身石은 左右로 隅柱만 있을 뿐 初層屋身과 같은 文樣은 갖고 있지 않으며 2,3層屋蓋石은 初層屋蓋石과 同一한 特徵은 갖고 있으나, 점차 減量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 3層屋蓋石의 頂上 中央部位에는 擦柱孔이 뚫려져 있으며 그 위의 塔頭部 形態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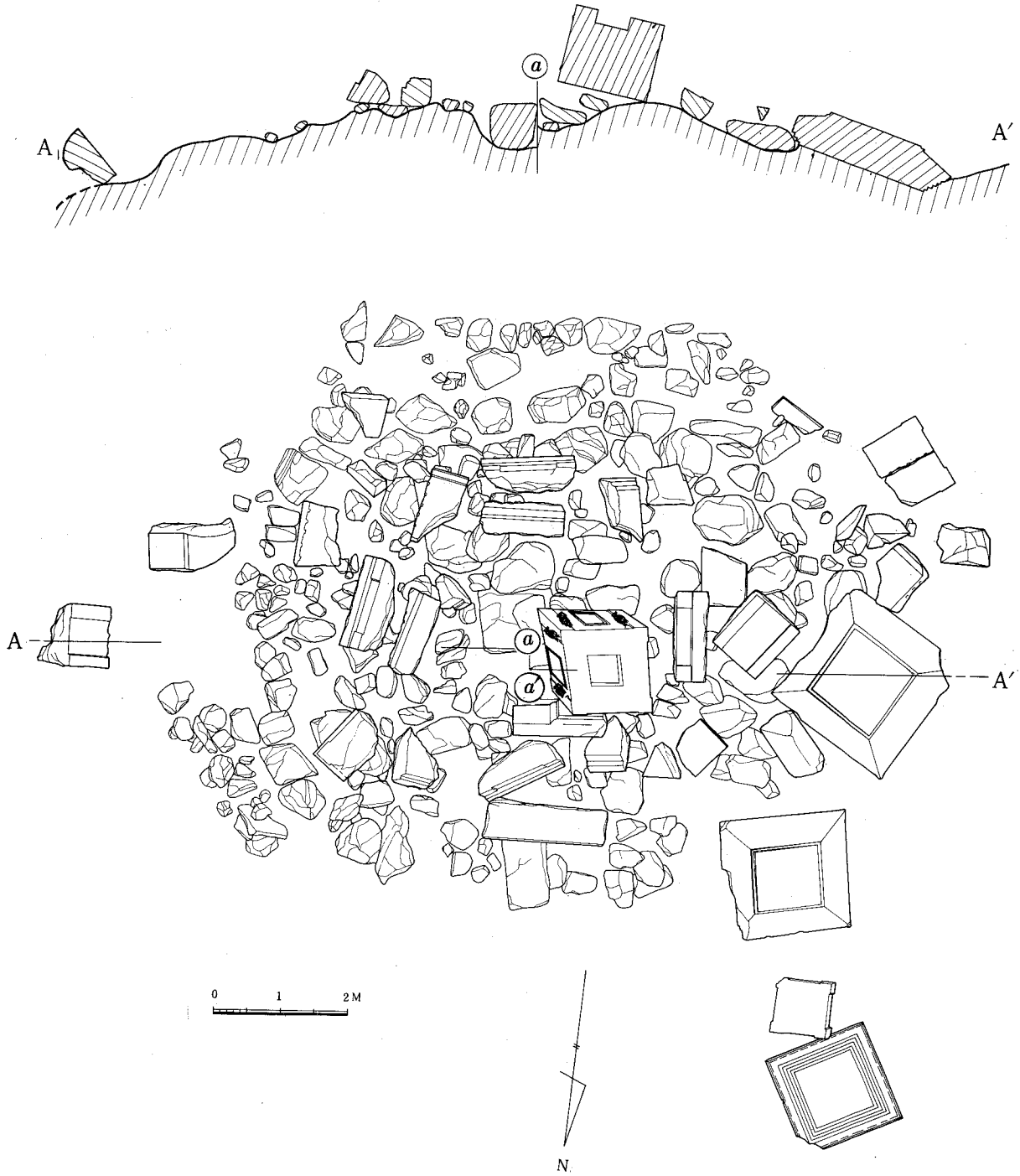
## 2) 南塔 (圖面 17~29, 圖版 17~19)

南塔은 南向 金堂의 경우 西塔에 該當하는 石塔인데, 前記한 北塔과 같이 金堂에서 南동쪽으로 34m 떨어진 곳에 北塔과 左右로 나란히 位置하고 있었으나 역시 崩壞되고 塔材는 破損되어 一部 埋沒된 狀態에 놓여 있었다.

南塔이 位置한 臺地는 北塔址와는 달리 약간 不規則하게 突起된 地點에 北塔과 一直線으로 南塔을 配置할 目的이었으나, 南塔(現在 海拔 215.71cm) 쪽이 Level上으로 낮기 때문에 北塔(海拔 216.16m)과 同一 Level을 維持시키기 위해서 自然塊石으로 地盤을 補強한 形態였다. 그러나 發掘 當時 南塔의 狀態는 初層屋蓋石 以上 部分은 북쪽으로 넘어져 있었고 初層屋身 以下 部分은 모두 地臺石 周圍에 흩어져 있었다.

南塔은 이렇게 自然塊石으로 堆積시킨 地盤 위에 地臺石 兼 下臺底石을 8枚로서 組立하고 下臺中石에 該當되는 部分도 同一石으로 製作하였는데 調査 當時는 대부분 攪亂된 狀態로 나타났다. 역시 下臺中石에는 北塔과 같이 隅柱, 撐柱, 面石을 갖추고 있으며 中間의 撐柱는 돌이다. 그 위의 下臺甲石은 4枚로서 組立하였는데 대부분 破壞되었으나 上面에 中

圖面17. 南塔址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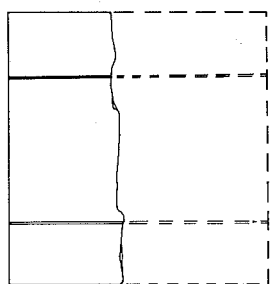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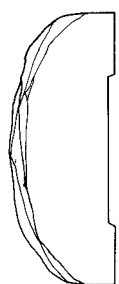
石받침을 갖추고 있다. 上臺中石 역시 8枚로 組立하였으며 隅柱, 撐柱, 面石을 具備하고 있다.

上臺甲石은 下臺甲石과 같이 4枚로 組立하고 上下에 屋身과임과 甲石 副緣을 새기고 있으며 初層屋身은 北塔과 같이 1枚에 四方左右로 仁旺像 이, 그리고 그 中間에는 門扉와 자물쇠가 各各 模刻되어 있다. 그러나 北塔의 初層屋身과 다른 點이 있다면 北塔의 경우 門扉內에 자물쇠가 없고 그 左右에 새겨진 仁旺像의 위로 쳐든 주먹이 귀에 바짝 붙은 모습인데 비해, 南塔의 경우는 주먹이 귀밑에 붙어 있으며 또한 머리 위로 날리는 天衣가 南塔의 경우 二重圓形을 이루어서 마치 頭光을 두르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특히 注目할 만한 것은 上面 中央에 方形으로 파 놓은 舍利孔의 크기이다. 즉 北塔은 가로 23cm, 세로 23cm, 깊이 17cm의 小形인데 반해 南塔의 경우는 가로 48cm, 세로 48cm, 깊이 20cm로 北塔보다는 卽時정도 大形이다. 때문에 北塔보다는 이 南塔이 舍利塔일 可能性을 強게 풍기고 있으며 門扉內에 새겨진 자물쇠 또한 이를 더욱 信憑케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事實을 미루어 보건대 過去부터 해온 雙塔伽藍의 경우 西塔이 舍利塔일 것이라는 推測을 이제는 이 탑을 통하여 普遍化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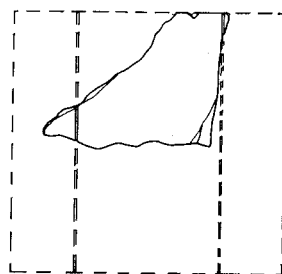
初層屋身部 以上の 屋蓋石과 屋身の 特徵은 前記한 北塔과 同一하고 兩塔 모두 2層屋身이 破損되어 있다.

以上으로 南·北 兩塔의 特徵을 알아보았는데 그 規模와 復元圖는 圖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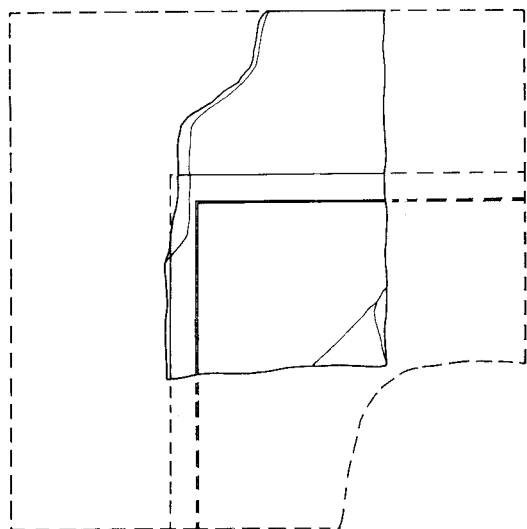
圖面18. 南塔址에서 確認된 各種 塔材片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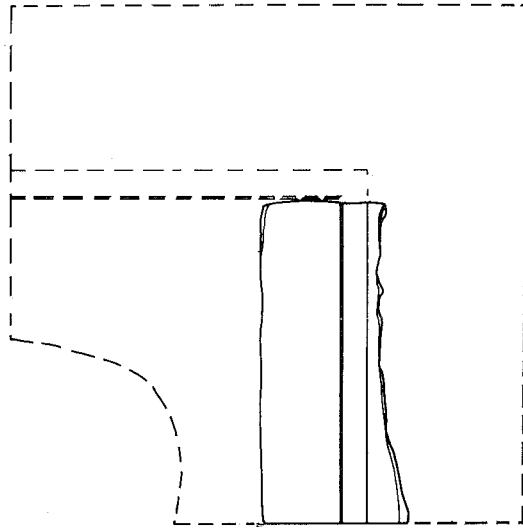
上臺中石 (撐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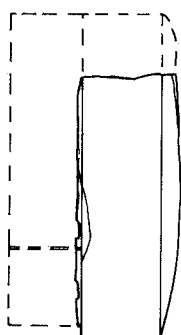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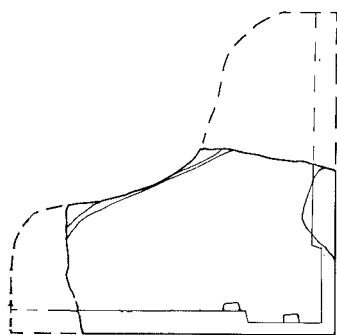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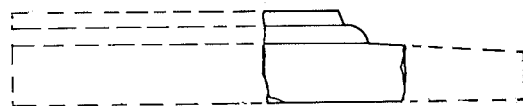
上臺中石 (撐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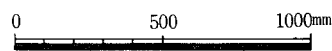
下臺甲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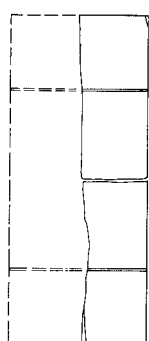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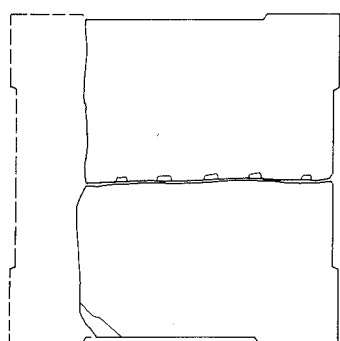
下臺甲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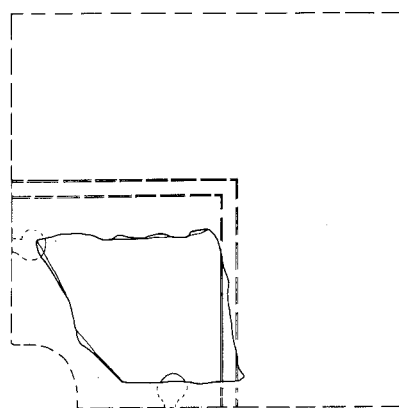
地臺石 (隅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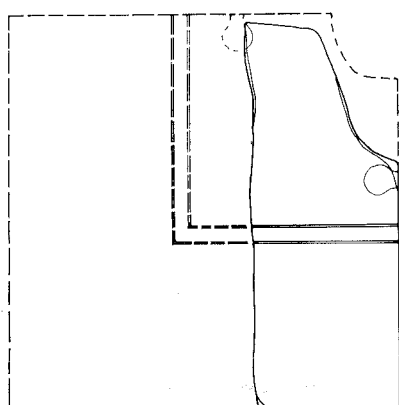
圖面19. 南塔址에서 確認된 各種 塔材片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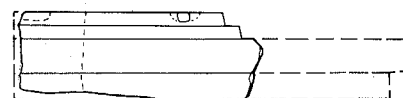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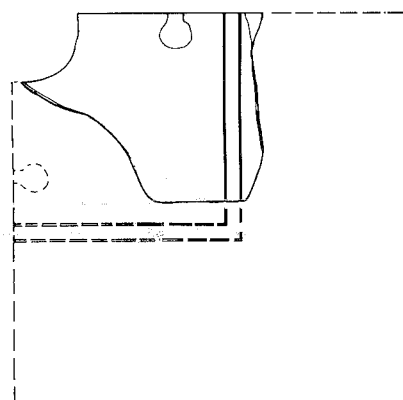
二層 屋身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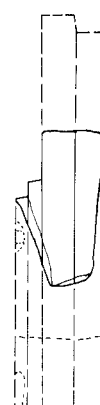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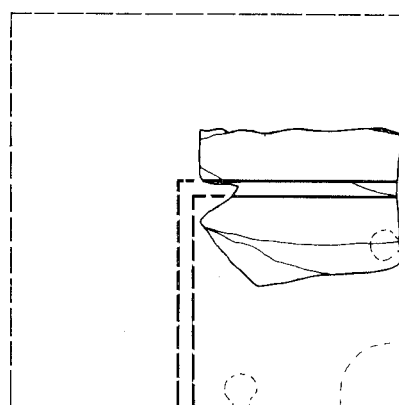
上臺甲石



上臺甲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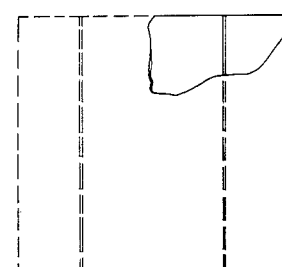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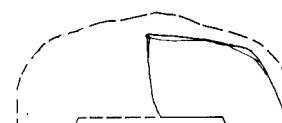


上臺甲石



上臺甲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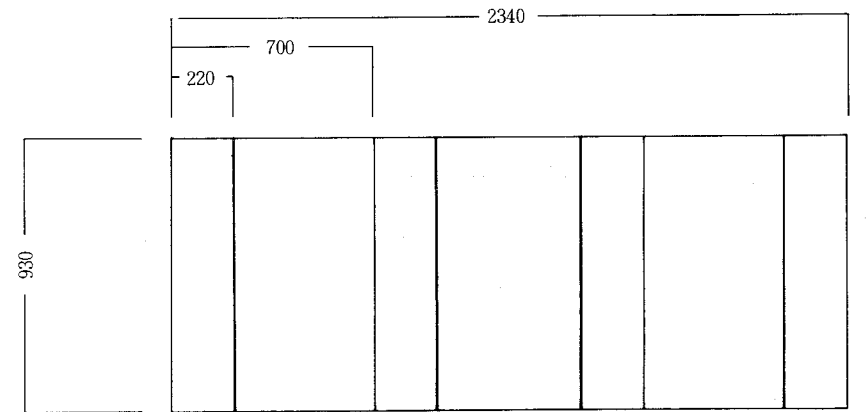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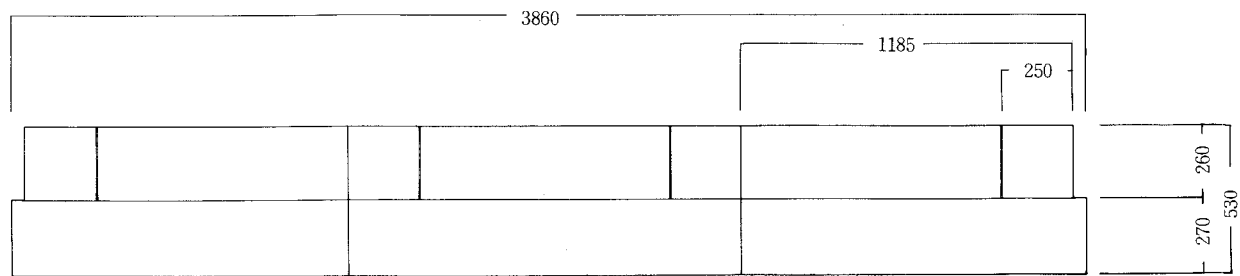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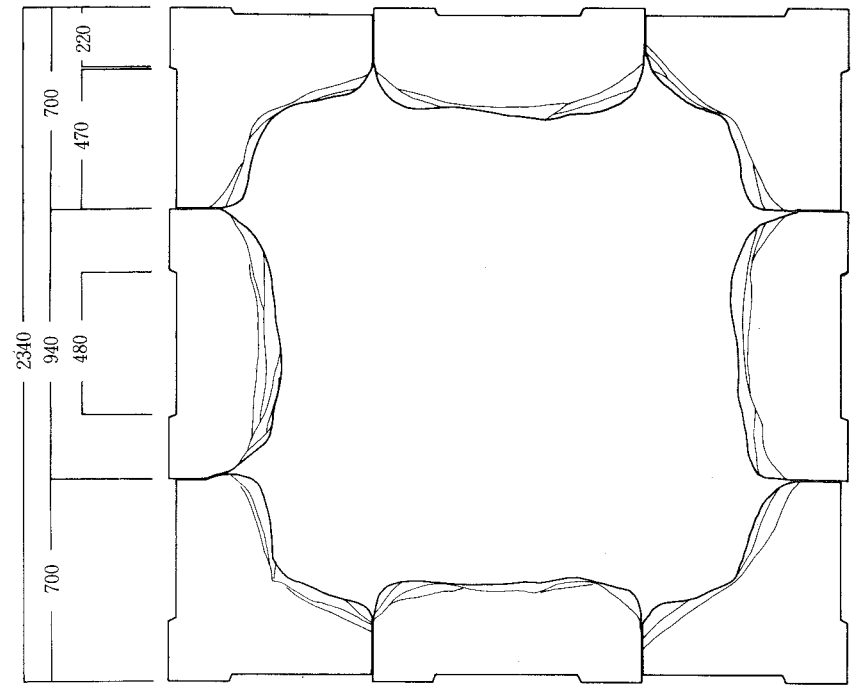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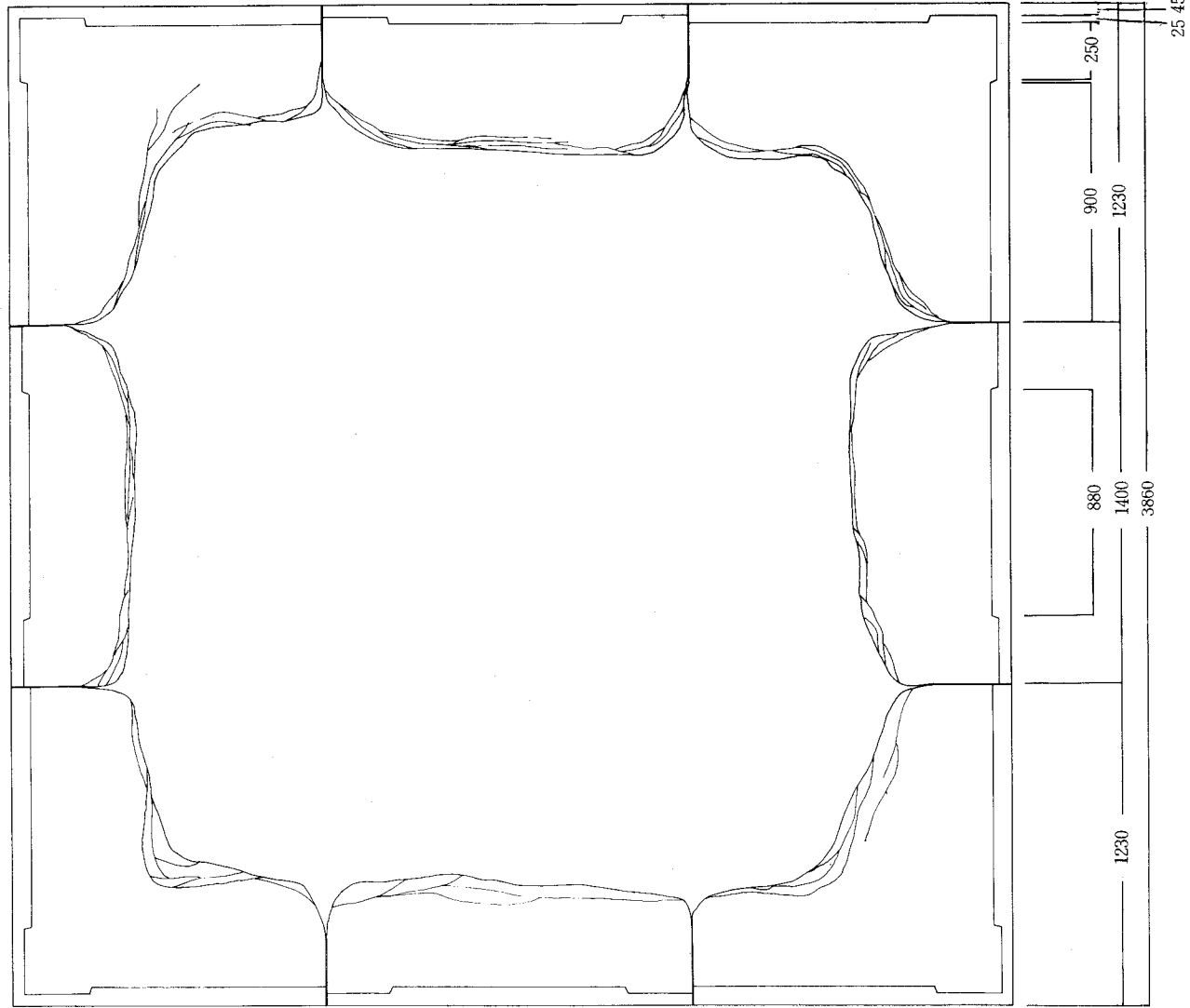
0 500 1000mm



上臺中石

圖面20. 南塔 地臺石과 上臺中石 復元 實測圖

(단위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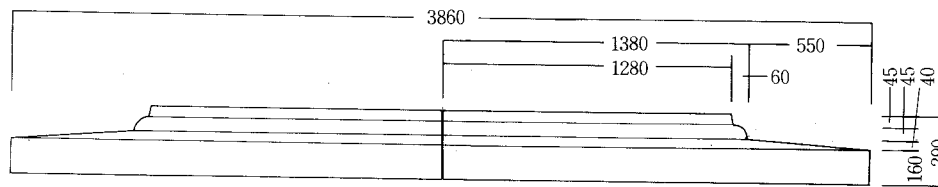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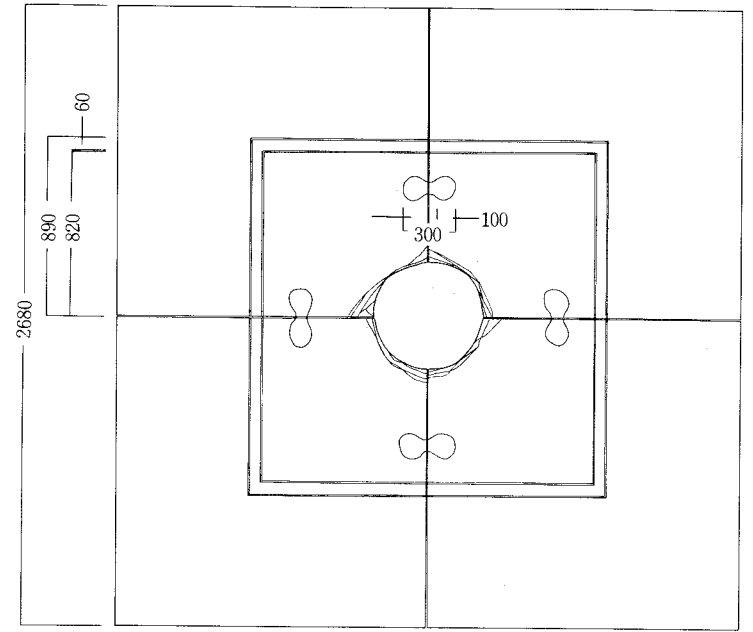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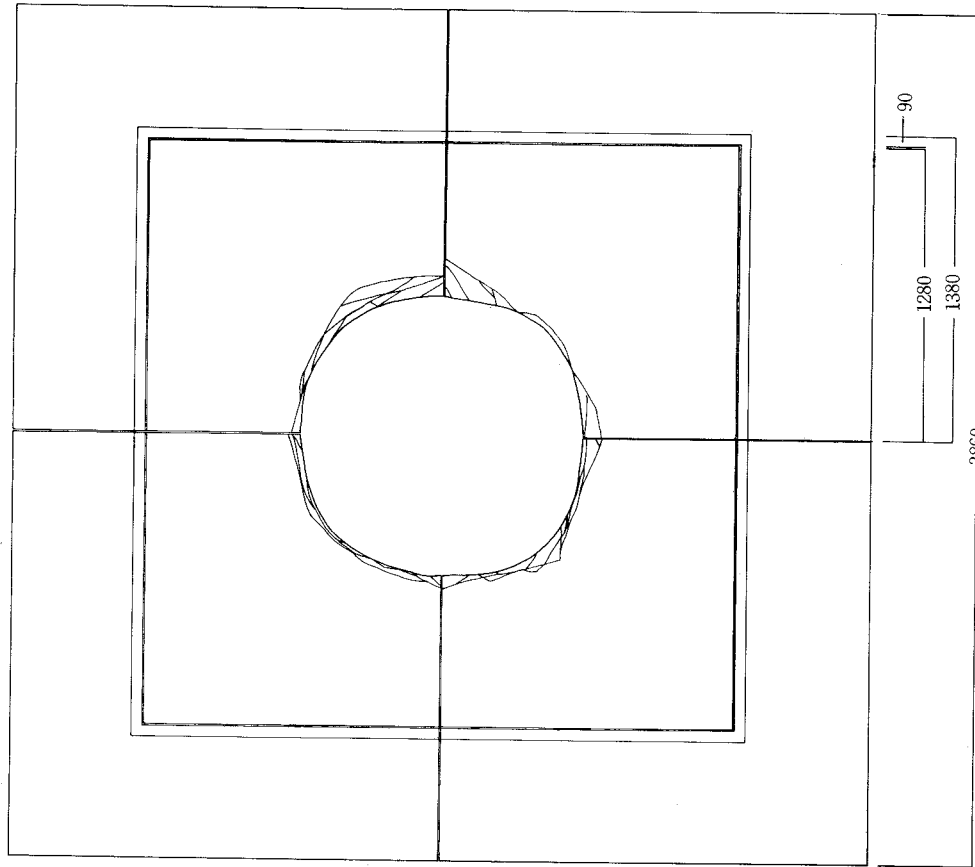


地 臺 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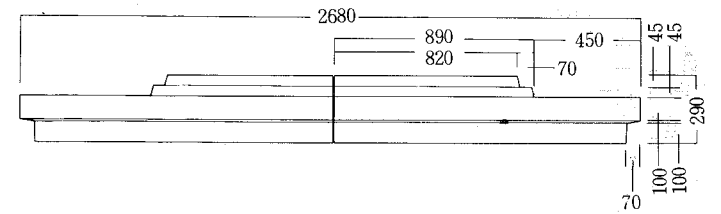
上 臺 中 石

圖面21. 南塔上·下臺甲石復元實測圖

(단위: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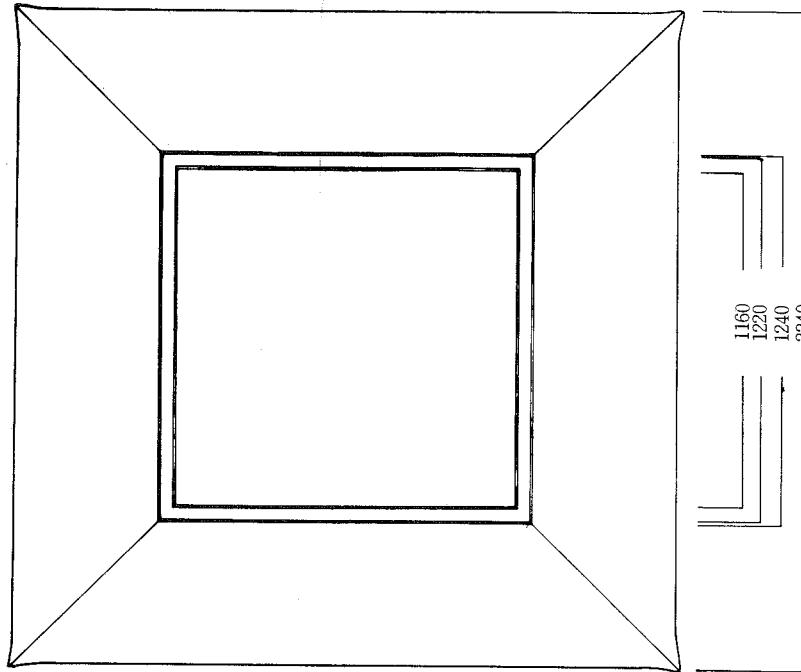
下臺甲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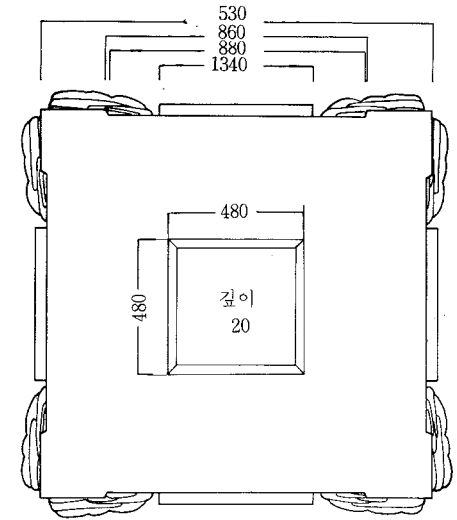
上臺甲石

圖面22. 南塔初層屋身 屋蓋石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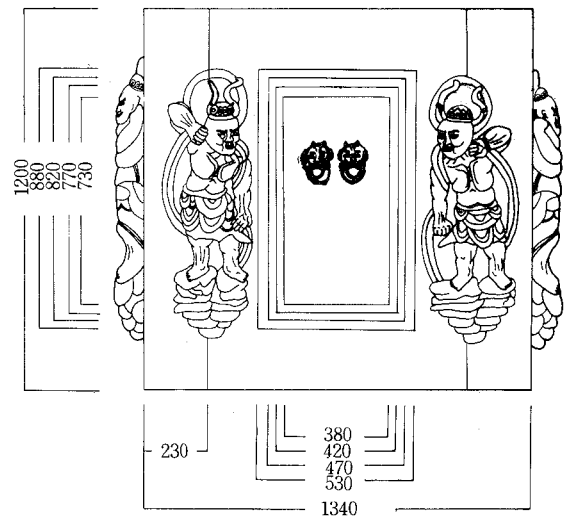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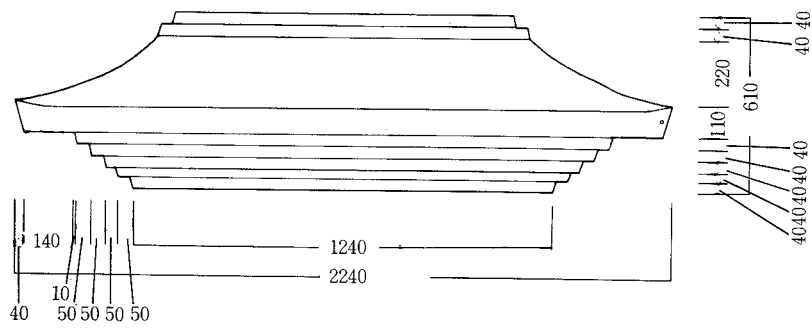
(단위 : mm)



初層 屋蓋石



初層 屋身石



16, 29과 같다. 여기서 이 兩塔의 特徵을 綜合해서 一般 石塔과 다른 點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탑의 位置가 一般的인 塔과 약간 差異를 두고 있다. 즉 雙塔伽藍의 경우 伽藍의 中心이 되는 金堂에서 前方의 10m이내에 左右로 두 탑이 配置되는 것이 常識처럼 되어 있으나, 이 곳의 경우 무려 34m나 金堂址에서 떨어진 곳에 位置하고 있다는 點이다.

둘째 北塔에서 確認된 것이지만 이 塔은 塔區를 가지고 있다는 點이다. 이와 같이 塔區를 가진 탑은 慶北 大邱 桐華寺 金堂庵西三層石塔<sup>13)</sup>, 慶南 陝川郡 淸涼寺三層石塔<sup>14)</sup> 等 8~9世紀에 該當하는 石塔의 特徵에서 볼 수 있는 點이다.

셋째 初層屋身에 仁旺像을 彫刻하고 있으면서 西塔에 該當하는 南塔에

- 
- 13) 慶尙北道 達城郡 公山面 道鶴洞 124番地의 桐華寺 境内 極樂殿 서쪽에 位置하고 있다. 二重基壇 위에 세워졌으며 上下基壇은 各面이 撐柱 1柱로서 區分되었고, 甲石은 모두 2枚石으로 덮여있다. 塔身部는 屋身과 屋蓋石이 모두 一石씩이며 屋蓋石 받침은 各層 4段이다. 1957年 解體修理時에 初層屋身에서 99基의 小塔과 近世에 裝置한 舍利函과 記銘이 發見되었다. 統一新羅時代에 製作된 것으로 높이 5.24m, 基壇幅 3m의 花崗岩塔이다.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 中卷」 參照)
- 14) 慶尙南道 陝川郡 伽倻面 黃山里에 位置하고 있다. 二重基壇 위에 세운 三層石塔으로 典型樣式을 따르고 있으나 곳곳에 特殊한 樣式을 보이고 있다. 地臺石과 中石을 한데 붙인 石材 4枚로서 下基壇을 構成하고 各面에는 隅柱와 撐柱 二柱式이 있다. 塔身部는 屋身과 蓋石이 各各 1枚石으로 되어 있으며, 塔身에는 隅柱만 새겼다. 相輪部에는 露盤만 殘存하고 上部 二段의 副椽은 특별히 크다. 이 塔은 1958年 修理되었고, 當時 第3層 屋身에 舍利孔이 確認되었다. 花崗岩製이며 統一新羅時代 作品으로 높이 4.85m이다. (上揭書 參照)

만 門扉內에 자물쇠를 具備하고 舍利孔 또한 北塔보다 窄절정도 크다는 點이다.

네째 上臺中石과 下臺中石의 各面에 2面의 撐柱를 갖고 下臺石과 中臺石이 1枚石으로 製作된 것은 佛國寺 釋迦塔<sup>15)</sup>, 慶州 九黃洞三層石塔<sup>16)</sup>, 慶南 昌寧郡 述亭里西三層石塔<sup>17)</sup> 등과 같은 8世紀 初에서 8世紀 中葉에

15) 慶尙北道 慶州市 進峴洞 15番地의 佛國寺內 大雄殿 앞 서쪽에 있는 塔이다. 各部比例가 아름다운 秀作의 하나이다. 基壇部는 數枚의 石材로 結構되었고, 上下臺中石의 各面은 撐柱 2面을 두고 3區로 區分하였다. 塔身部는 塔身과 屋蓋石이 各各 一石으로 되었고 屋身에는 隅柱가 表現되었으며, 屋蓋 받침은 各層 8段이다. 相輪部는 露盤, 覆鉢, 仰花까지 남아 있고 그 以上은 없어졌으나 1966년에 復元하였다. 특히 塔 周圍에는 一定한 距離를 두고 蓮花가 彫刻된 3個의 圓形 石材를 돌리고 이들 蓮花石 사이에 長石을 끼워 境界를 삼았으니 이것이 이른바 八方金剛座이다. 1966年 復元作業時에 第3層 塔身 中央部 舍利孔에서 無垢淨光 大陀羅尼經과 많은 遺物 등이 發見되었다. 現在 높이 8.2m, 基壇 幅 4.4m이며 國寶 第21號로 指定되어 있다. (上揭書 參照)

16) 慶尙北道 慶州市 九黃洞 103番地에 位置하고 있다. 2重基壇 위에 세워진 典型的인 三層石塔이다. 下層基壇은 面石을 8枚, 甲石을 4枚로 하고 下層基壇과 같이 2柱의 撐柱를 두었다. 塔身部는 屋身과 屋蓋石이 各各 1石으로 屋蓋받침은 各層 5段이며 相輪部는 露盤만이 남아 있다. 이 塔은 1942年 修理時 發見된 舍利函蓋 內面에 陰記된 內容으로 推定할 수 있다. 즉

(前略) 神文大王五〇應世十善御民治定功成 天授三年壬辰七月二日乘天所以 神陸太后 孝照大王 奉爲宗曆聖靈禪院伽藍建立 三層石塔聖曆三年庚子六月 一日 神陸太后遂以長辭高昇國大足二年壬寅七月二十七日 孝照大王登露神龍 二年景午五月州日今主大王佛舍利四全 金彌陀像六寸一軀無垢淨光大陀羅尼 經一卷安置石塔第二層以上 云云

이라는 句가 있어 이 石塔이 天授 3年(孝照王 1, 692)부터 神龍 2年(聖德王 5, 760) 사이에 建立되었음을 알 수 있다. 現在 높이 7.3m, 基壇 幅 4.2m이며 國寶 第37號로 指定되어 있다. (上揭書 參照)

17) 慶尙南道 昌寧郡 昌寧邑 述亭里 309의 1番地에 位置하고 있다. 二重基壇 위에

該當하는 石塔과 같은 特徵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諸特徵을 中心으로 하여 澗月寺址 石塔의 建立時期를 推定한다면 8世紀 中葉을 前後하는 時期에 該當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三層石塔이긴 하지만 初層塔身에 仁旺像을 彫刻하고 上臺中石과 下臺中石에 2面의 撐柱를 彫刻하고 있는 慶北 月城郡의 筭項里西五層石塔<sup>18)</sup>이 8世紀로 推定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안다.

〈調査에서 確認된 塔材現況I〉

名 稱	分類名	조각수	南 塔		北 塔	
			缺 失	殘 存	缺 失	殘 存
地 臺 石	撐 柱	4	4	0	0	4
下 臺 中 石	隅 柱	4	0	4	0	4
下 臺 甲 石		4	0	一部破片	0	조각파편
上 臺 中 石	撐 柱	4	4	0	3	1
上 臺 面 石	隅 柱	1	1	3	2	2
上 臺 甲 石		1	1	一部破片	1	一部破片

세워진 一般形 三層石塔이다. 上層基壇 面石 中央은 別石으로 門扉가 새겨져 있으며 塔身에는 兩隅柱가 彫刻되고 屋蓋받침은 5段이다. 相輪部에는 露盤과 寶珠가 남아 있다. 全高 5.1cm의 統一新羅時代 作品으로 現在 寶物 第520號로 指定되어 있다. (上掲書 參照)

18) 註 11 參照.

〈調査에서 確認된 塔材現況 II〉

名 稱	分類名	조각수	南 塔		北 塔	
			缺 失	殘 存	缺 失	殘 存
初層屋身石		1	0	1	0	1
初層蓋石		1	0	1	0	1
二層屋身石		1	높이로 3/5	높이로 2/5	1	0
二層蓋石		1	0	1	0	1
三層屋身石		1	0	1	0	1
三層蓋石		1	0	1	0	1

다. 石燈址 (圖面 4, 圖版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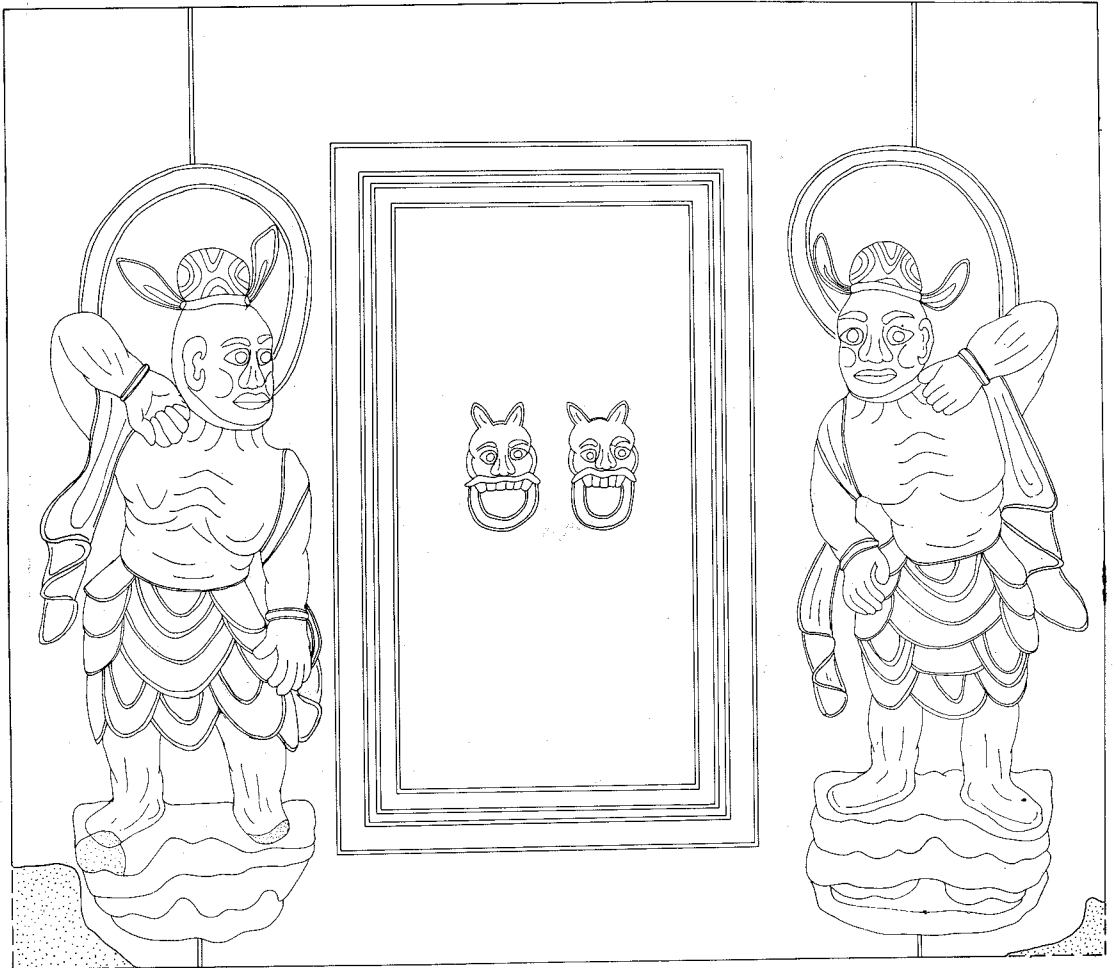
金堂址 前面 中央에 石燈臺座의 心礎石이 直徑 1.5m 規模로 나타났다. 心礎石은 砂礫으로 다져진 地盤上에 圓形으로 直徑 20~30cm 크기의 自然石을 다져서 깔고 그 위에 直徑 1m 크기의 납작한 自然石을 올려놓았는데 아마 그 위에 石燈의 地臺石이 놓인 듯하였다. 그러나 地臺石 以上 部分이 모두 毀損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確실한 構造와 規模는 알 수 없으나 後述할 現在 澗月寺의 寶物 370號인 石造如來坐像의 臺座 地臺石으로 使用된 八角地臺石이 分明히 石燈 地臺石임은 알 수 있으나, 金堂 前面의 石燈에 該當하는 것인지는 確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現在 殘存하고 있는 心礎石의 規模로 보아서는 그것이 가장 알맞은 크기라고 생각된다.

이 八角地臺石은 中間에 있는 層段을 中心으로 上, 下 2段으로 區分하

圖面23. 南塔 南面 仁旺像 實測圖



圖面24. 南塔 西面 仁旺像 實測圖



圖面25. 南塔 東面 仁旺像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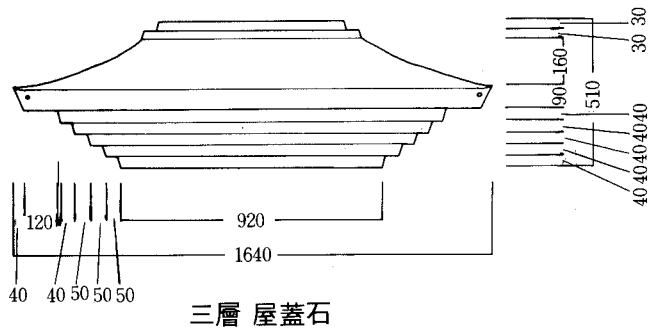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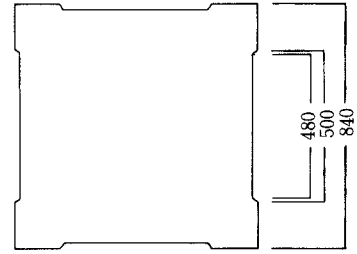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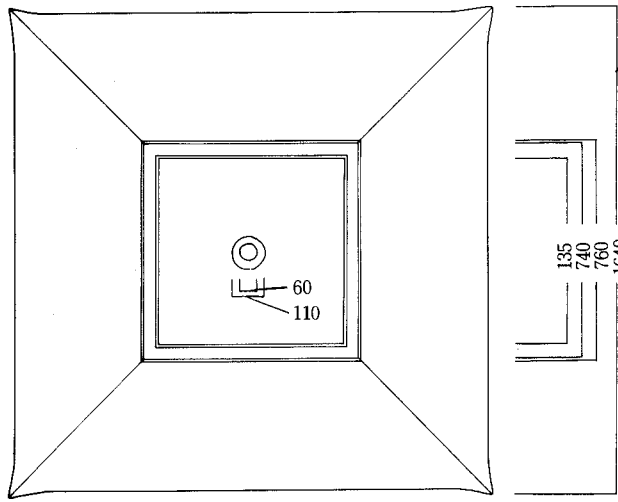


圖面26. 南塔 北面 仁旺像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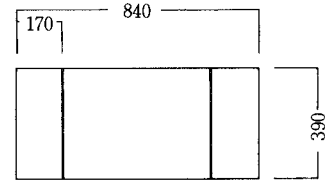


圖面27. 南塔 2・3層 屋身 屋蓋石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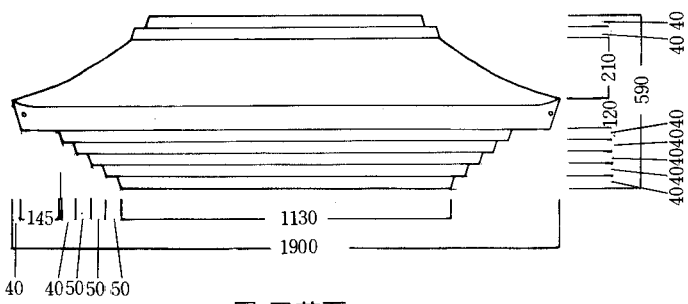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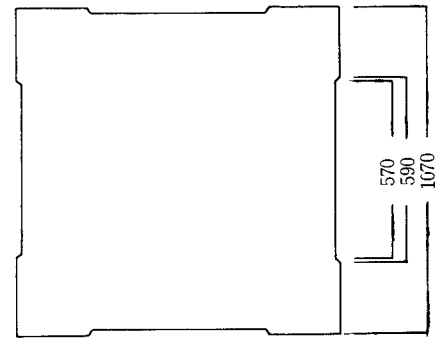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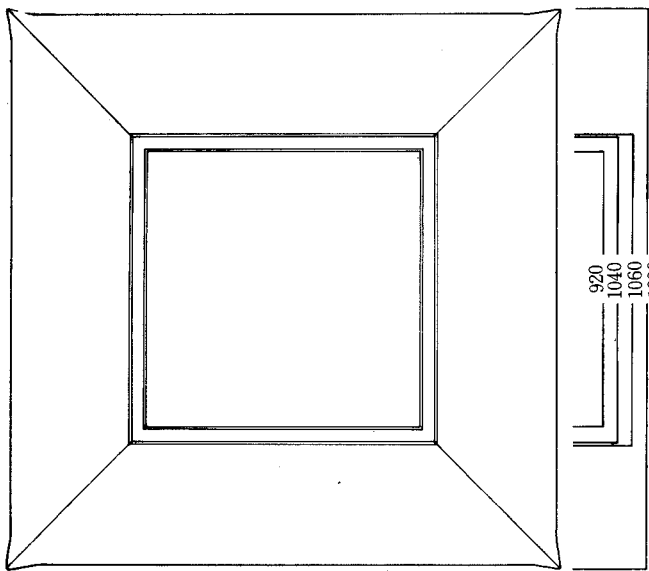
(단위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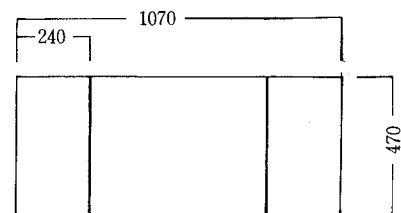
三層 屋蓋石



三層 屋身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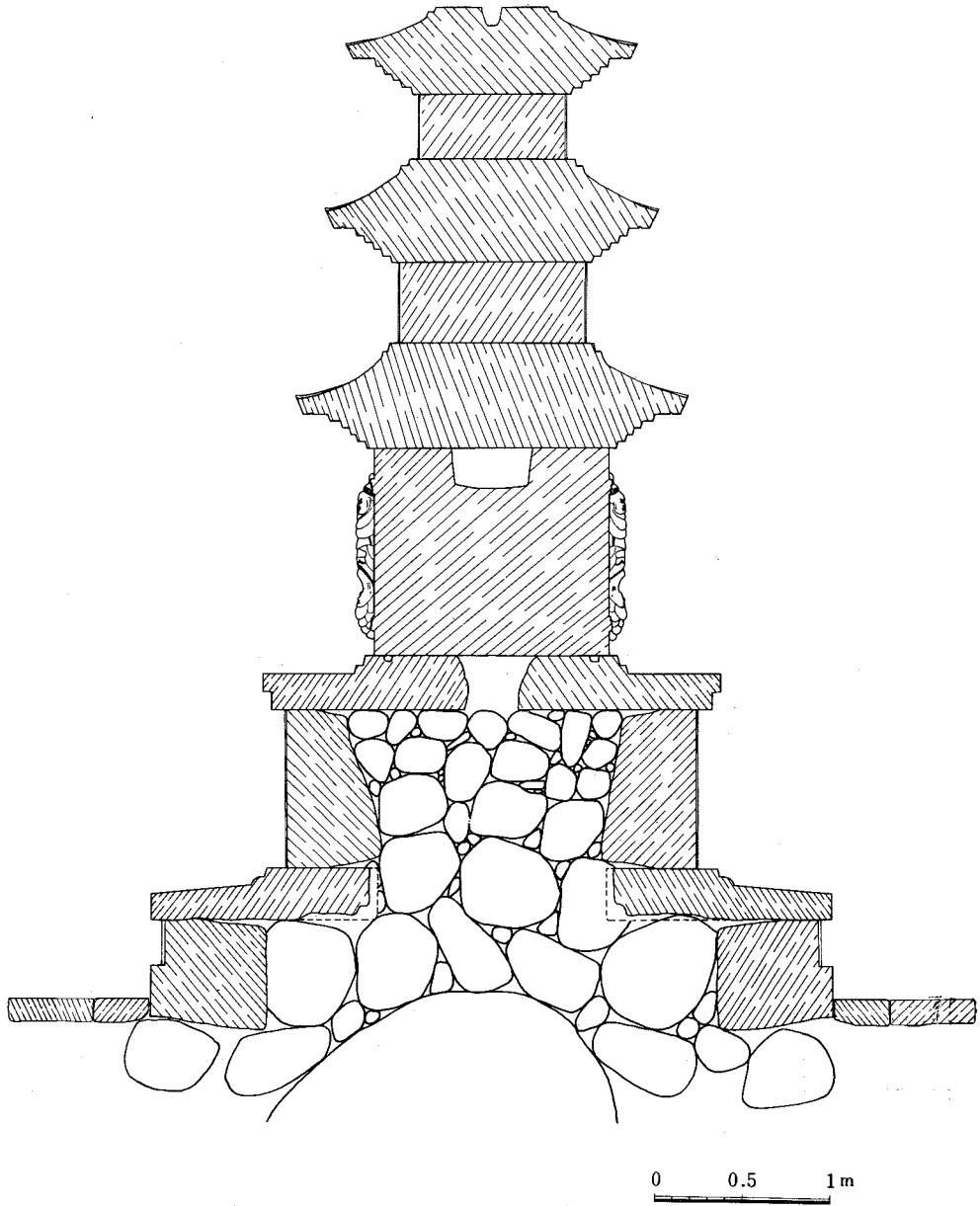


二層 屋蓋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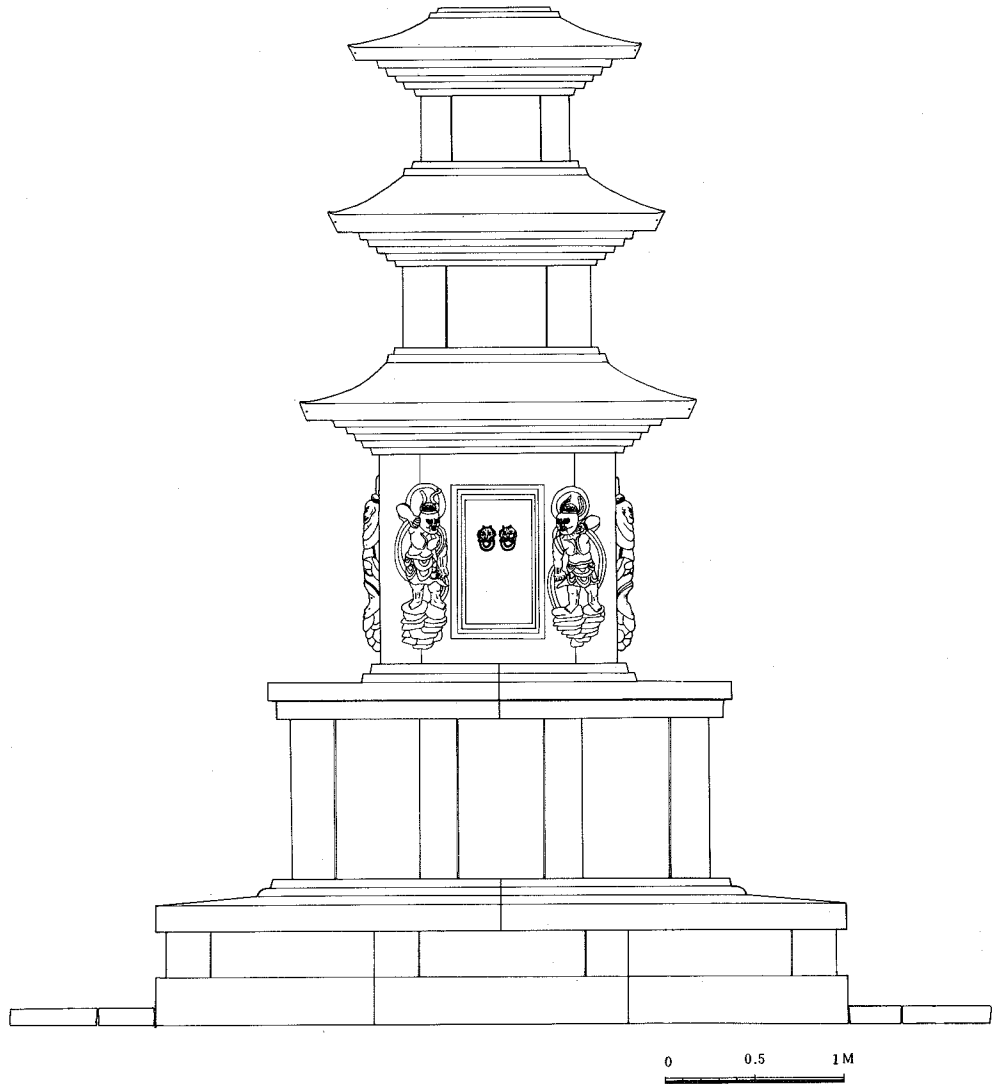


二層 屋身石

圖面28. 南塔 復元 斷面圖



圖面29. 南塔 復元 實測圖



여 文樣을 彫刻해 놓고 있는데 下段에는 眼像文內에 怪獸를 各各 1 軀씩 8面에 配置하고 上段에는 複葉의 伏蓮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나, 대부분의 文樣이 破損되어 部分的으로만 남아있다.

#### 라. 其 他

이번 調査에서는 金堂址와 塔址만을 調査하였기 때문에 其他의 遺構는 確認만 하고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 調査의 必要性을 느끼는 곳은 金堂址와 東門址 사이에 該當하는 現在의 耕作地區와 아울러 金堂址 남쪽 地下에 나타나는 石列과 북쪽의 담장벽 地下에서 나타나는 石列에 대한 全面的인 擴大調査를 實施하여 그 性格을 糾明해 둬야 마땅할 것 같아서 여기에 附記하여 두는 바이다.

## 第Ⅳ章 遺 物

### 가. 石造物

여기에 紹介하는 石造遺物은 그 대부분이 金堂址 前面에 있는 田畝中에 埋沒되어 있던 것을 耕作時에 發見하여 現在의 澗月寺 境內에 保管中인 것인데 이번 機會에 資料로 紹介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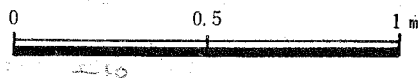
#### ① 石造如來坐像 (圖面 30, 圖版 21)

寶物 370號로 指定된 新羅時代의 佛像이다. 花崗岩으로 製作된 이 佛像은 흙속에 오래 파묻혀 있었던 탓인지 表面의 磨滅이 심할 뿐만 아니라 發見 以後에는 長期間 露天에 安置하여 두었기 때문에 이끼가 많이 끼여있다.

圖面에서 보다시피 肉髻는 損傷을 입었고 코와 양귀 끝도 破損되었으며 목은 떨어진 것을 다시 接着하였다. 그리고 오른손과 양무릎도 破損되었으며 臺座石은 모두 4枚로서 組立되었으나, 3번째의 眼像文을 가진八角臺石만 이 佛像과 關係가 있는 듯하며 나머지는 石燈 地臺石 또는 다른 石佛의 臺座에 해당하는 것이고 光背石도 없어졌다.

佛像은 뚜렷한 螺髮머리에 肉髻는 比較的 커서 머리와 區別할 수 없는데 前面에 一部 損傷을 입고 있다. 얼굴은 둥그스름하나 이마가 약간 짧은 듯하며 눈, 코, 입은 적은 편에 속하여 얼굴 자체가 肥滿하게 보인다.

圖面30. 石造如來坐像 實測圖



짧은 목에 三道가 있지만 뚜렷하지 못하고, 짧게 處理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法衣는 通肩인데 한결 가벼운 듯한 느낌을 주며 衣紋은 U字形의 階段式이다. 手印은 結跏趺한 무릎 위에서 降魔觸地의 印을 結하였으나, 右手가 缺失되었다. 坐高 1.35m, 頭高46cm이다. 이 佛像은 肥滿한 듯한 얼굴과 身體에 비해서 짧은 座高, 좁아진 어깨, 肉髻의 鈍化 등이 特徵이라고 말할 수 있다. 現在 潤月寺址石造如來坐像保存閣을 지어 그 속에 保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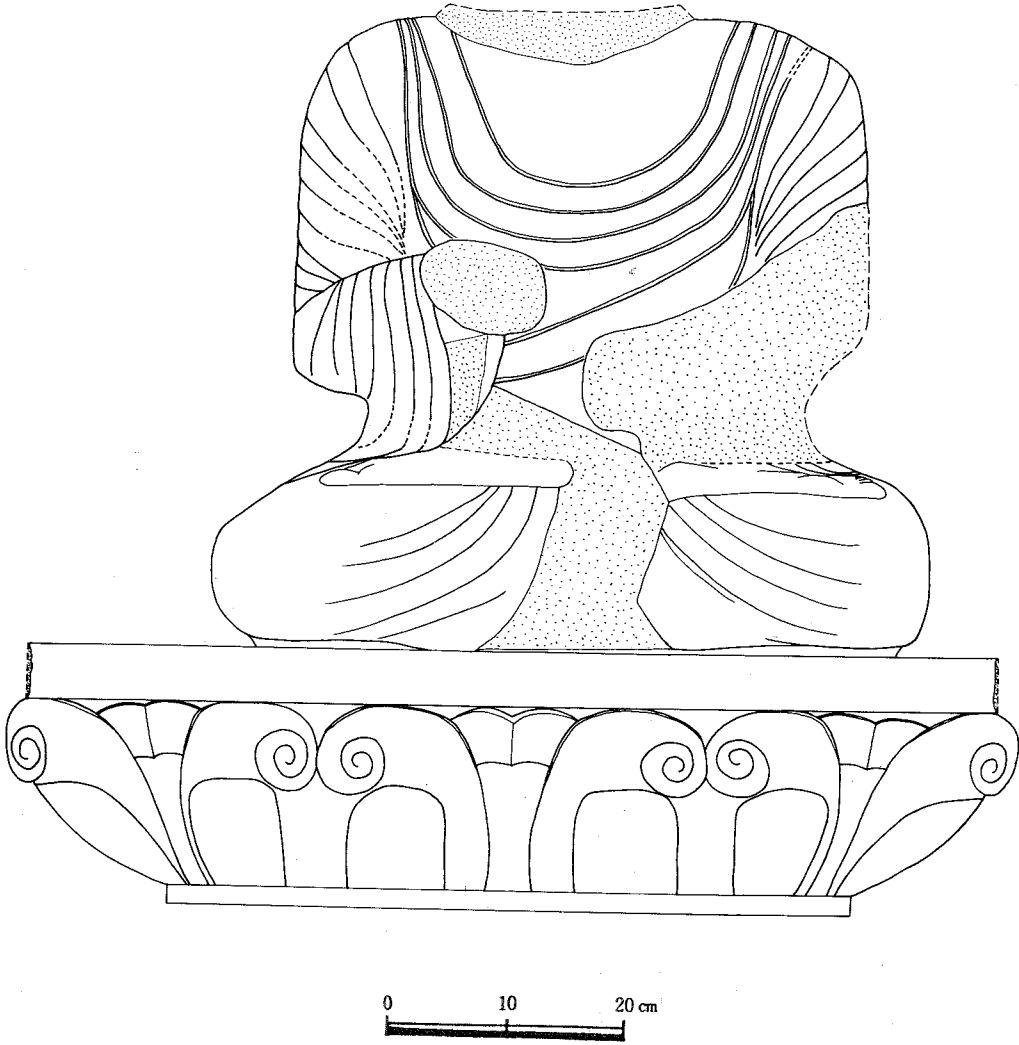
② 破損된 石造如來坐像 2 軀(圖面 31, 32, 圖版 22)

潤月寺址石造如來坐像保存閣 앞뜰에 시멘트로 얼굴과 양손을 만들어 붙인 石佛 2 軀가 左右로 나란히 臺座 위에 安置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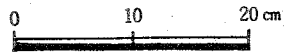
몸 전체에 損傷이 많아서 確實한 形態는 짐작할 수 없으나, 花崗岩의 磨滅度는 前記한 石佛과 同一하여 同時代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推定된다.

어깨와 허리는 모두 가벼운 듯한 느낌을 갖도록 矮小한 편이며, 通肩의 가벼운 法衣는 U字形으로 가슴에 衣紋을 남기고 있으나 結跏趺한 무릎部分의 形態를 알 수 없다. 手印은 가슴 아래에서 左手가 아래로, 右手가 위로 놓인 狀態인데 轉法輪印 또는 智拳印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마 前者에 가까울 듯한 位置를 하고 있다. 石佛의 臺座는 모두 본디의 것이 아닌 듯하나 複瓣 또는 重瓣仰蓮을 가진 臺座는 이 遺蹟의 石塔과 함께 같은 時期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石佛高 67, 76.4cm, 臺座高 27cm, 23cm이다.

圖面31. 破損石造如來坐像 實測圖



圖面32. 破損된 石造如來坐像 實測圖



### ③ 八角臺座 (圖面 33, 圖版 23)

역시 潤月寺址石造如來坐像保存閣 周圍에 있는데 部分的인 磨滅이 있다. 石佛의 臺座中 어느 部分에 該當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花崗岩으로서 平面 八角을 이루도록 만들어졌는데 隅角이 破損되어 圓形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으며 八角側面에는 各各 眼像文과 怪獸文을 陽刻해 두고는 있으나 正작 表面의 磨滅이 심하여 어떠한 動物인지 確認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動物은 본디 石燈 地臺石이었으나, 지금은 石造如來坐像의 臺座 一部로 移動 組立되어 使用하고 있는 石物에도 거의 같은 形態의 것이 彫刻되어 있어서 이것 또한 石燈과 同時代에 만들어진 것으로 推定된다. 直徑 110cm, 高 23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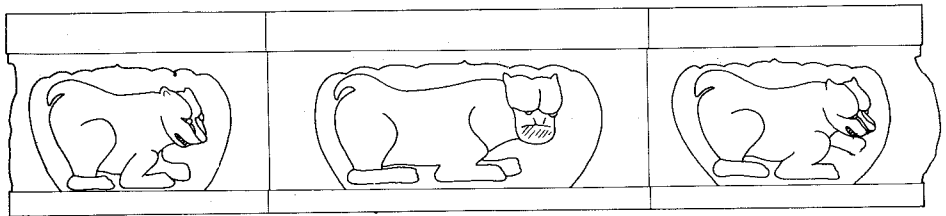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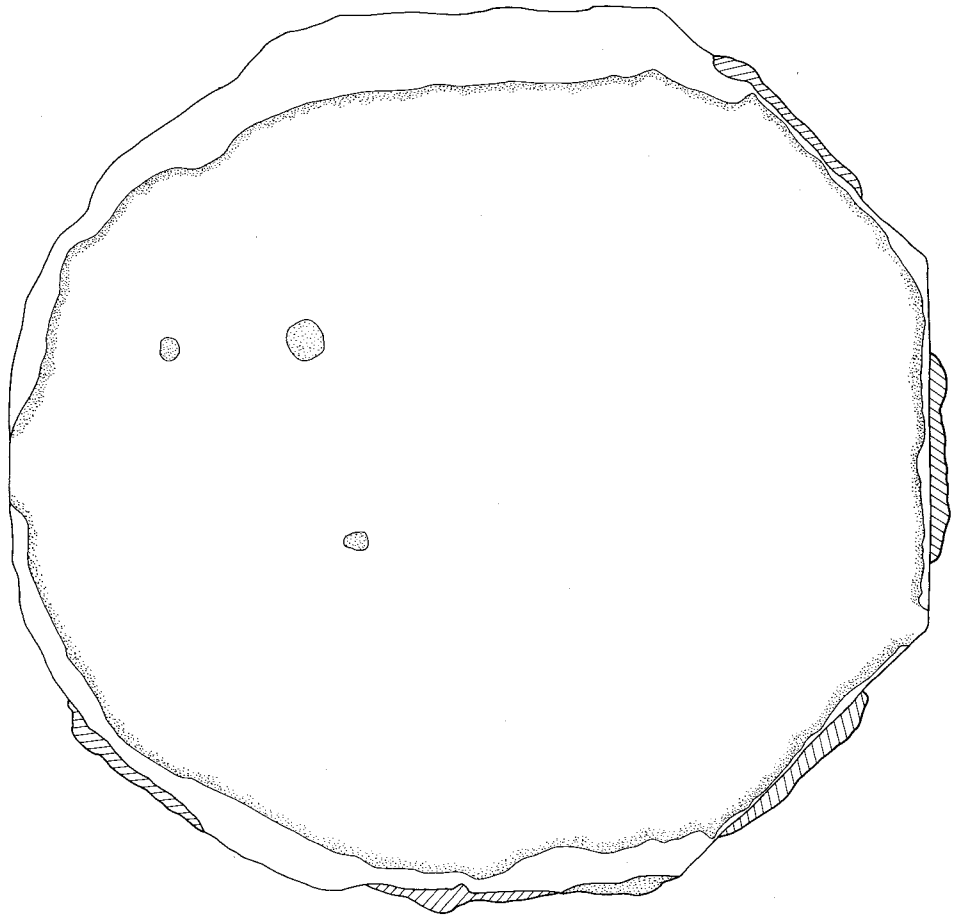
## 나. 靑銅如來像과 靑銅菩薩像 (圖面 34, 圖版 21)

### ① 靑銅如來立像

金堂址 앞 IPit內에서 出土된 것으로 高 6.7cm의 小形 護身佛이다. 靑銅의 酸化가 심해서 確實한 모습은 알 수 없으나 머리의 肉髻는 不露하게 솟아 있고, 螺髮은 酸化되어 痕迹을 알 수 없다. 얼굴은 矮少한 모습에 오뚝뚝은 코와 작고 평범한 눈 그리고 약간 뒤로 쳐진 듯한 귀를 갖고 있으며 목은 긴 편이나 三道를 判別하기는 어렵다.

어깨는 평범한 立像의 자세를 하고 배를 약간 앞으로 내민 듯하면서 두 손은 與願 施無畏의 通印을 하고 있다. 法衣는 通肩으로 가벼운 느낌을 주

圖面33. 八角臺座 實測圖



0 5 10cm

며 가슴부분에서 무릎까지 U字形 衣紋을 가지고 있으며 後面의 天衣자락은 足座까지 내려져 있고, 背面에는 光背를 附着하였던 자국이 남아 있다.

臺座는 下臺로만 構成된 圓形으로 下端에 둥근 1段의 받침이 있고, 그 上部에 八葉單瓣伏蓮紋을 彫飾하였는데 瓣端에는 약간의 反轉이 있다. 伏蓮上에는 約 0.2cm 높이의 1段의 足座가 佛身을 받치고 있다. 이 靑銅如來立像의 特徵으로 보아 造成年代는 비교적 이른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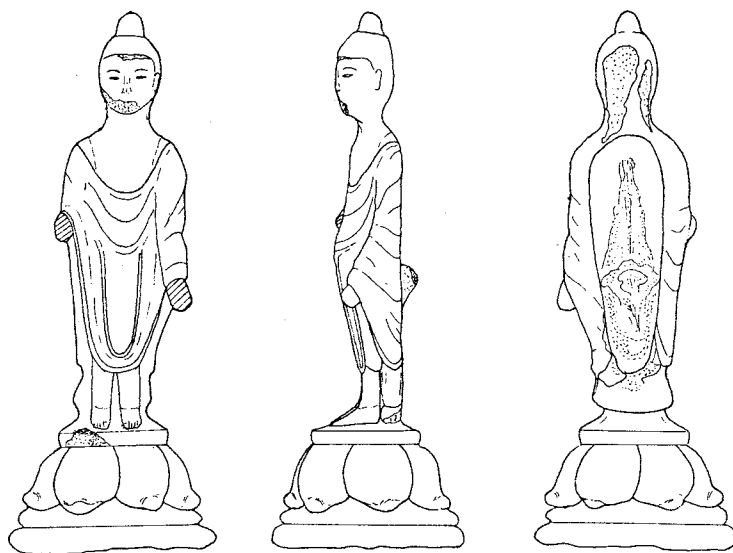
## ② 靑銅菩薩立像

金堂址 앞DPit內에서 出土된 것으로 高6.4cm이다. 역시 表面의 酸化가 심해서 確實한 形態는 알 수 없다. 머리에는 寶冠을 쓰고 比較的 豐滿한 얼굴에 冥想에 잠겨있는 듯한 눈 및 작은 코와 입 그리고 축 늘어진 두 귀를 가지고 있다.

몸도 健康한 편이며 袈裟는 通肩으로 가슴, 허리, 허벅지 部分을 三分하여 띠를 둘러 듯이 주름을 지우고, U字形의 衣紋을 남기고 있다. 또한 어깨에서 양팔 위로 늘어뜨린 天衣자락은 바람에 나부끼듯 가볍게 걸쳐있고, 양손에는 무엇을 들은 듯하였으나 모두 缺失되었으며 光背를 붙인 자국도 남아 있다.

臺座는 上·下臺로 構成된 圓形臺座로 下端에 2段으로 된 받침이 있고 그 위에 伏蓮을 陰刻하였으며, 上臺에는 仰蓮을 陰刻하였으나 대부분 磨滅되어 희미한 자국만 보이고 있다. 造成年代는 9世紀 前後의 作品으로 推定된다.

圖面34. 青銅如來像 青銅菩薩像 實測圖



0 3cm

青銅如來立像



0 3cm

青銅菩薩立像

#### 다. 瓦 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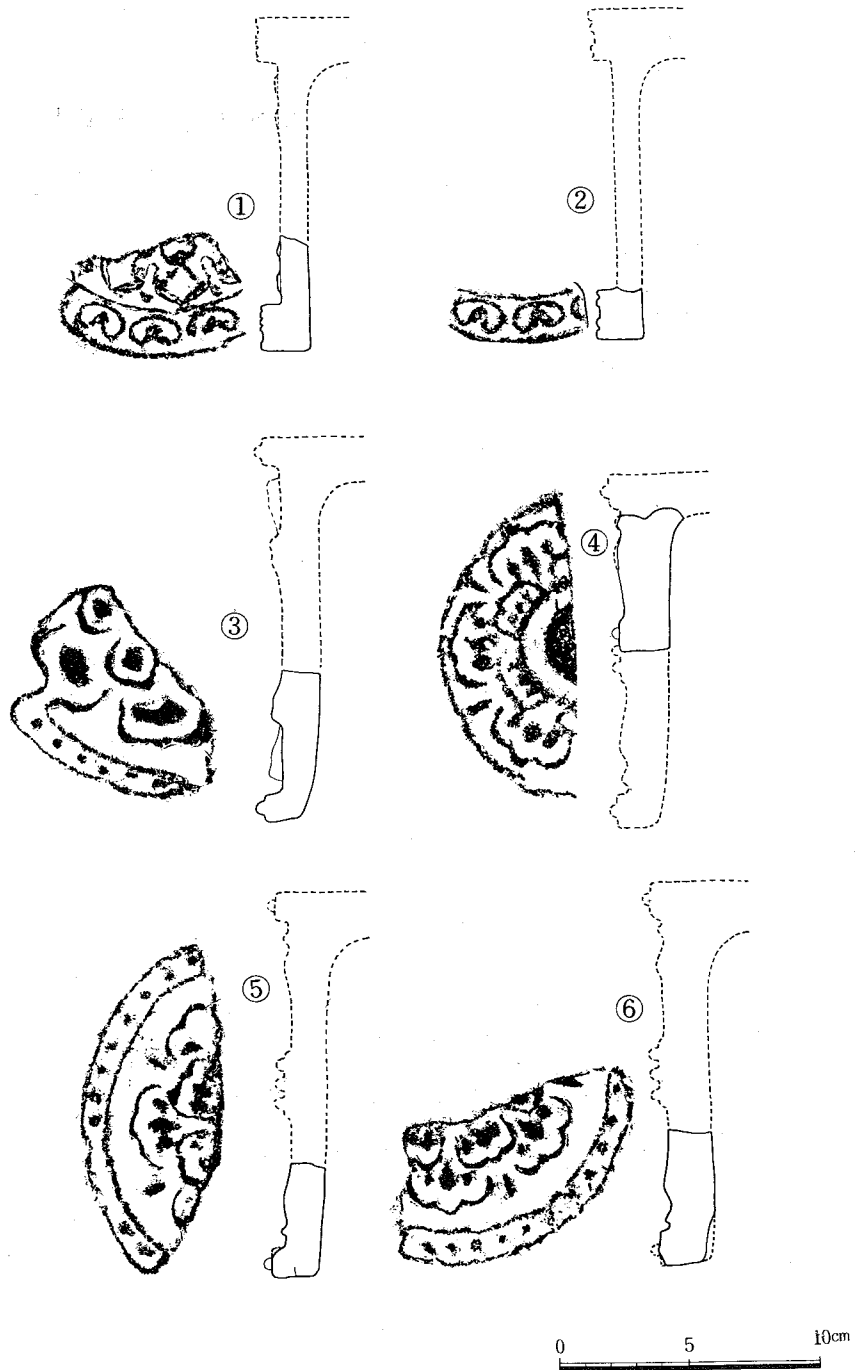
##### ① 숫막새 (圖面 35~43, 圖版 24~27)

圖面 35의 ①②는 숫막새의 周緣部分에 該當하는 것인데 破片이므로 全體의 形態는 알 수 없다. 둘다 燒成狀態는 良好한 편이나, 胎土內의 砂粒이 눈에 뜨일 정도로 精選된 粘土를 使用하지 않았고 後에 불에 탄 때문인지 黃褐色과 黑褐色調를 各各 띠고 있다. 小片이어서 確實하지는 않지만 重瓣의 蓮花文은 内外瓣으로 區分되나 그 中心線은 内外 一直線을 이루며, 瓣端은 中間으로 오므라들면서 갈라지는 모습을 하고 있다. 外瓣은 反對로 瓣端이 뾰족한 突起된 形態인데 外瓣內에는 다시 草葉文의 子瓣을 配置하고 있다. 그리고 外瓣間에는 三角形의 瓣頭를 두어 區分하였으며 周緣에는 忍冬文을 들렀다. ②의 경우는 周緣만 남아 있는데 彫飾手法은 同一하다.

圖面 35의 ③은 子房部分을 確認할 수 없는 破片인데 黃褐色을 띠고 있으며 表面의 磨滅이 심하다. 重瓣의 蓮花文은 内外瓣이 서로 어긋지게 나누어져 있고 各各 6葉의 比較的 성근 모습을 띠고 있으며 共히 瓣端이 뾰족하게 突起하면서 힘있게 쳐든 生動感을 갖는 것이 特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좁은 周緣에 둘러진 聯珠文은 比較的 굵으면서 듬성듬성하게 配置되어 있다.

圖面 35의 ④⑤⑥은 同一手法의 重瓣蓮花文을 가진 것으로 灰青色을 띠면서 燒成이 약한 것인데 内外瓣이 서로 엇갈리게 配置되어 있다. 内外瓣

圖面35. 숫막새 實測圖 ①~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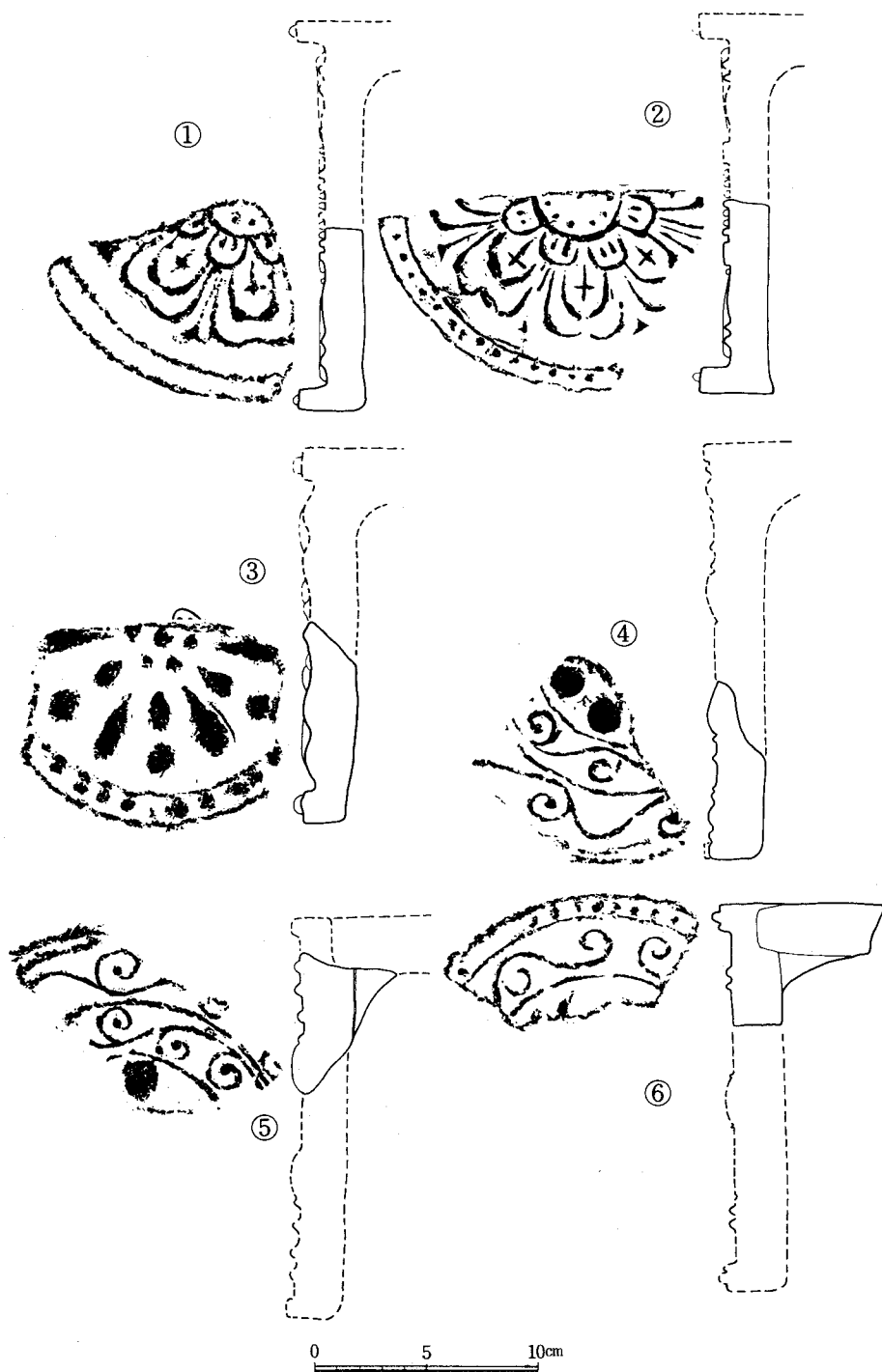


모두 瓣端은 뾰족하게 降起하면서 瓣內에 볼록한 子瓣을 두고 外瓣間에는 0形의 間瓣을 配置하고 있다. 그리고 약간 볼록하게 區劃된 子房內에는 1+6顆의 蓮子を 두고 外區 周緣에는 聯珠文을 싱글게 排列하고 있다.

圖面 36의 ①②는 文樣은 同一하나 燒成度가 달라서 表面의 色調도 다르다. 즉 ①은 黃褐色을 띠는 燒成度가 不良한 것이므로 表面의 磨滅도 심한데 製造 當時는 一般 기와와 같이 燒成되었으나 後에 불에 다시 탄 듯하며 ②는 燒成度도 良好하고 表面의 狀態도 좋으며 灰青色을 띠는 것이다. 重瓣蓮花文은 8葉의 内外瓣이 서로 엇갈리게 配置되어 있는데 外瓣은 瓣端이 안으로 굽어들어 갈라지는 것이고, 內瓣은 그저 둥근 것인데 外瓣內에는 다시 子瓣과 十字文을 配置하고 內瓣內에는 2條의 稜線文을 둔 複葉을 施文하고 있으며 瓣間에는 T形의 瓣頭를 가진 瓣間을 두고 있다. 그리고 中央의 子房은 突起된 圓圈을 두고 그 안에 1+12顆의 小粒 蓮子を 配置하고 比較的 높고 좁은 周緣에는 역시 小粒의 聯珠文을 두르고 있다.

圖面 36의 ③은 黃灰色을 띠는 것으로 역시 後에 表面이 불에 탄 때문인지 内外面에 磨滅이 심하다. 單瓣蓮花文에 屬한다고 할 수 있을지 疑問이 될 정도로 特殊한 形態를 가진 것이다. 즉 子房의 區劃도 없이 中間에 1+6顆로 配置된 蓮子 周圍로 6葉의 大形 杏仁形瓣과 6葉의 小形 杏仁形瓣端에 圓形突起文을 가진 것을 서로 交代로 配置한 것인데 時期的으로 약간 뒤진 듯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좁은 周緣에는 굽은 聯球文을 두

圖面36. 솥막새 實測圖 ①~⑥



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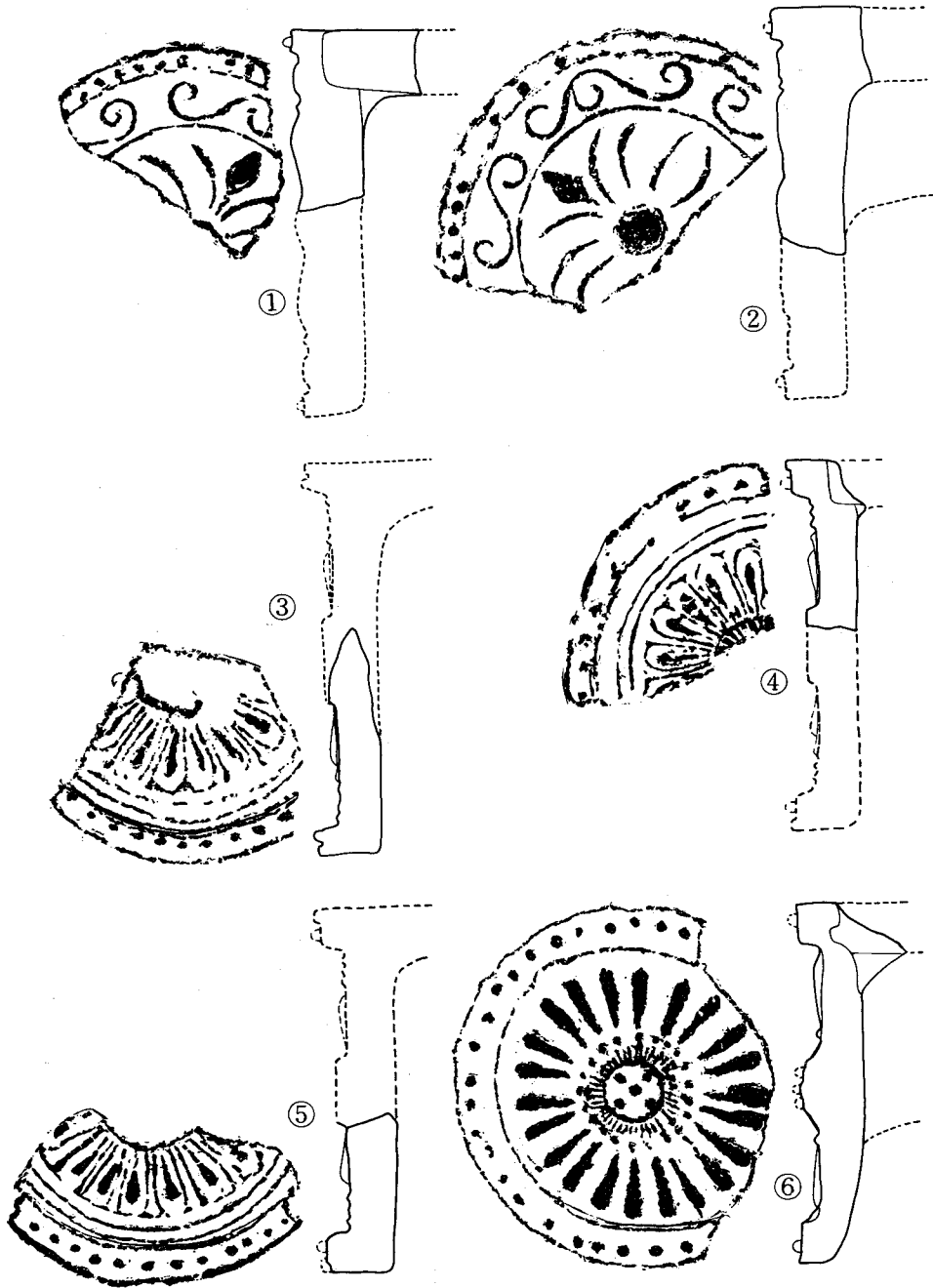
圖面 36의 ④⑤ 역시 불에 검게 탄 痕迹을 가진 重瓣形式의 것인데 破片이어서 中心部の 子房形態는 알 수 없으나 中間에 멋있게 隆起된 蓮瓣 周圍를 2條의 突線을 넣어 2圓圈으로 區分하고 그 사이사이에는 忍冬唐草文을 配置한 特殊한 形態의 것으로 周緣은 아주 좁고 素文으로 處理된 것이다.

圖面 36의 ⑥과 37의 ①②는 重瓣蓮花文 形式을 갖고 있는 것으로 比較的 燒成度가 良好한 편이다. 文樣은 圓圈으로 區分된 中央의 小形子房을 中心으로 그 周圍에 水蓮과 같은 草花文을 上, 下로 配置한 뒤 다시 突線의 圓圈으로 區分하여 그 周圍에 忍冬唐草文을 隆起시켜 配置한 特殊한 形態의 것이다. 그리고 小形子房內에도 蓮子를 施文한 듯하나 磨滅이 심해서 確認하기 어렵고 좁고 낮은 周緣에는 聯珠文을 周回시키고 있다.

圖面 37의 ③④는 單瓣蓮花文을 施文하고 있는 것으로 ③은 後에 불타서 表面에 磨滅 痕迹이 많이 남아 있고, ④는 良好한 燒成度를 가진 것이나 胎土內에 큰 砂粒들이 박혀있다. 子房部位가 破損되어 中心飾은 알 수 없으나 小形子房 周圍에 짧은 꽃술머를 두르고 18葉의 좁은 蓮瓣은 隆起線으로 된 母瓣內에 細長形 볼록子瓣을 두고 있으며 瓣間에도 T字形의 瓣頭를 가진 間瓣을 配置하고 있다. 그리고 周緣과 瓣端內에는 다시 隆起된 2條의 圓圈이, 周緣에는 小粒 聯珠文이 各各 둘러져 있다. 이와 같은 形態의 것은 天恩寺址에서도 出土된바 있다.<sup>19)</sup>

19) 京都帝國大學「新羅古瓦の研究」京都帝國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報告 第13冊, 1934.

圖面37. 숫막새 實測圖 ①~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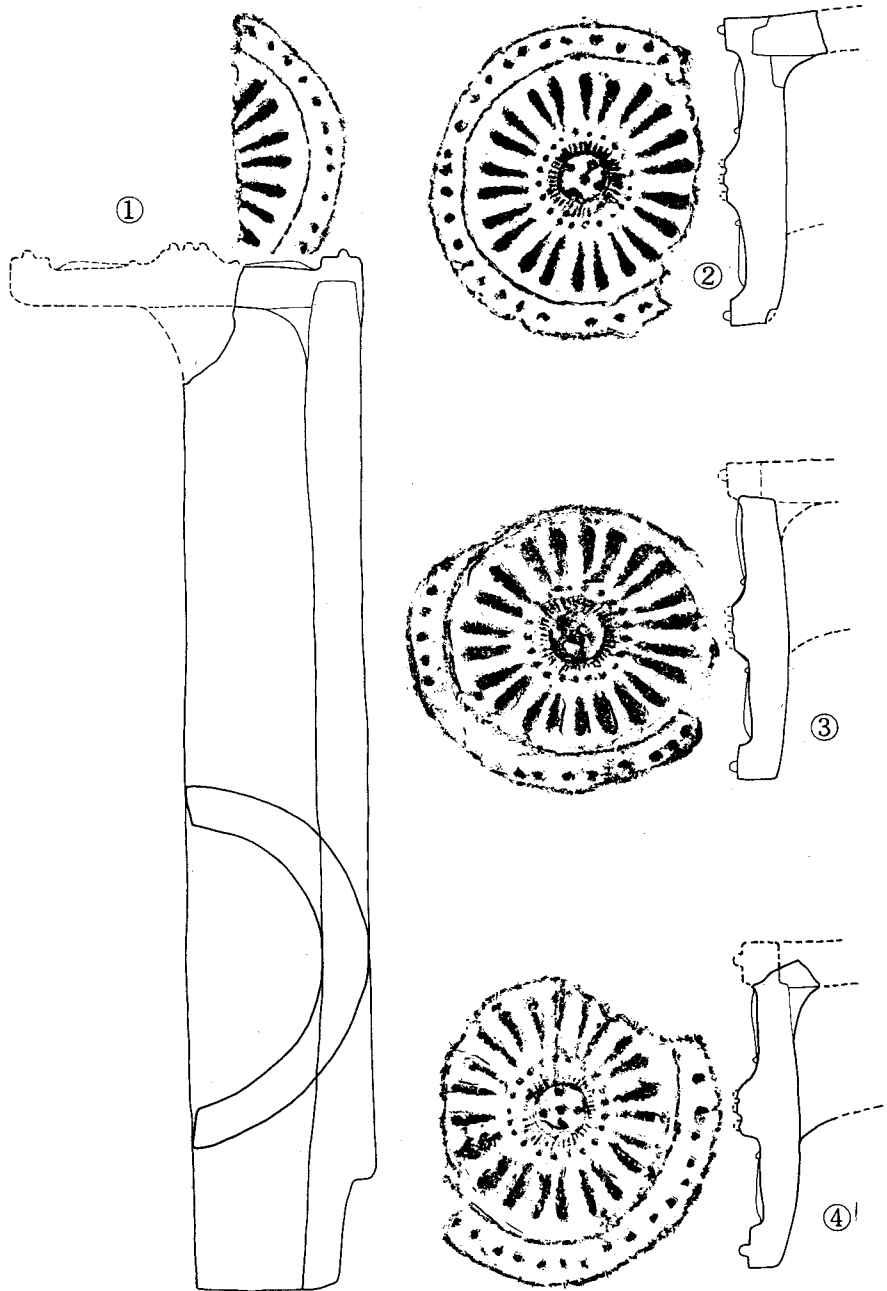
0 5 10cm

圖面 37의 ⑥~42의 ②는 같은 時期에 만들어진 것으로 22葉의 單瓣蓮花文을 가진 것인데 모두 燒成度가 良好한 것이고 38의 ① 경우는 5cm 크기의 玉緣을 가진 숫기와의 완전하게 남아 있다. 蓮瓣은 볼록하게 솟은 中央의 작은 子房內에 1+4顆의 蓮子를 두고 그 둘레에는 傾斜지게 꽃술帶를 配置하였으며, 이 꽃술帶 끝에서부터 다시 隆起된 蓮瓣을 두고 있는데 間瓣과 같은 文樣은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낮고 넓은 周緣에는 굵은 聯珠文을 周回시켰다. 潤月寺址에서 이와 같은 同形의 것이 많이 出土되었다는 것은 이 瓦當에 該當하는 時期에 金堂의 大補修가 있었음을 意味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8의 ②의 내림새에 붙어있는 숫기와는 先端이 넓고 玉緣部位가 좁은 것으로 二分割手法으로 製作된 것인데, 內面에는 製作時 桶骨에 감았던 織物文이 있고 外面에는 두드린 뒤에 다시 물손질하여 調整한 痕迹이 남아 있다.

圖面 42의 ③은 뒤에 불타서 表面의 磨滅이 심한 破片인데 內區에 있는 瓣端이 部分的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確實하지는 않지만 蓮瓣이 隆起된 單瓣蓮花文으로 蓮瓣은 전체적으로 좁은 細形이면서 瓣端쪽이 넓고, 낮고 넓은 周緣은 素文이다. 이 막새는 상당히 退步된 製作手法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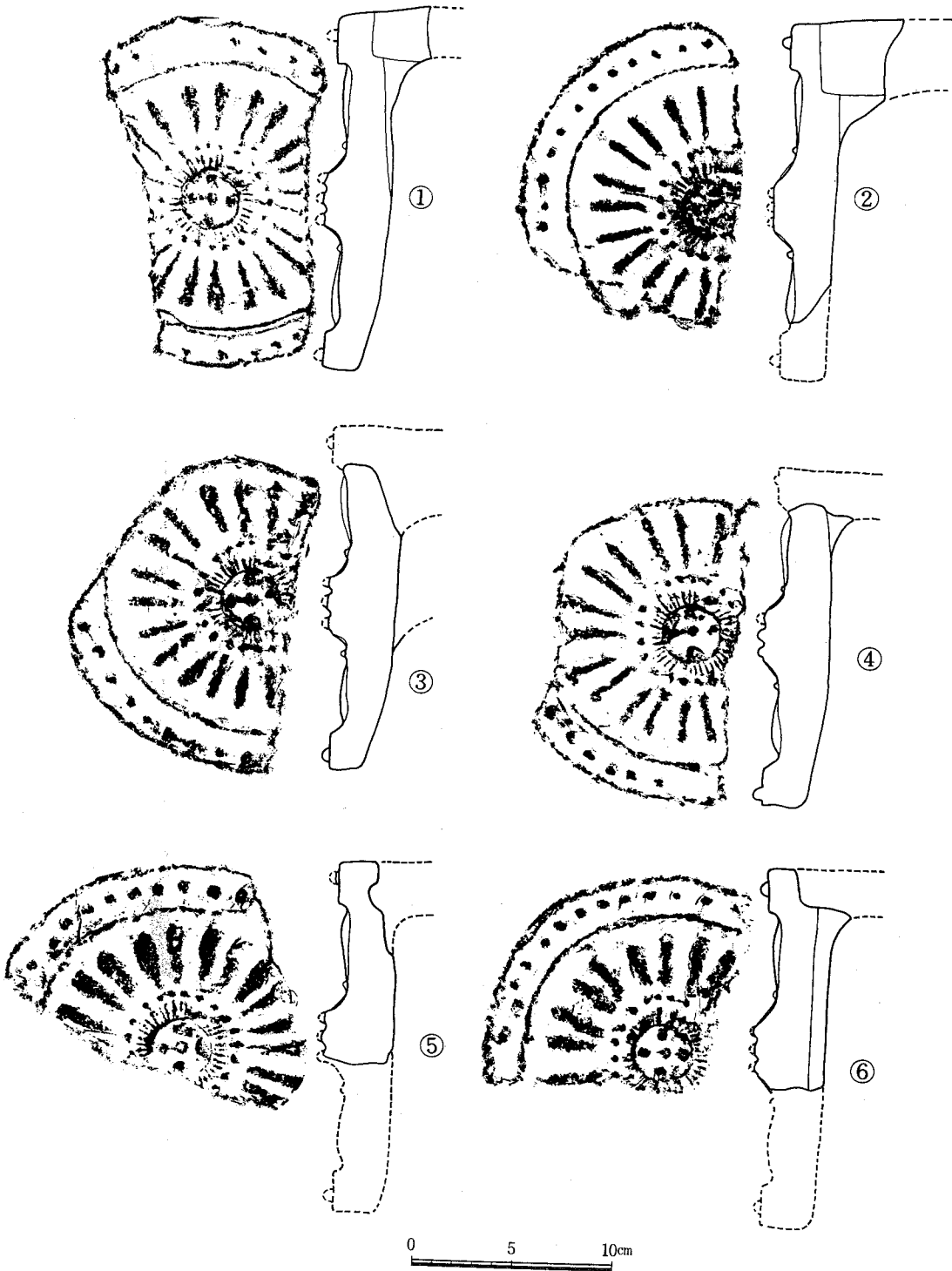
圖面 42의 ④⑤와 43의 ①은 複瓣蓮花文 形式으로 불에 타지는 않았으나 燒成度가 不良하다. 文樣은 破損되어 子房部分의 中心飾은 알 수 없으나 內區의 蓮瓣은 얼핏보기에 細形의 單瓣과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瓣端의 鋸

圖面38. 솥막새 實測圖 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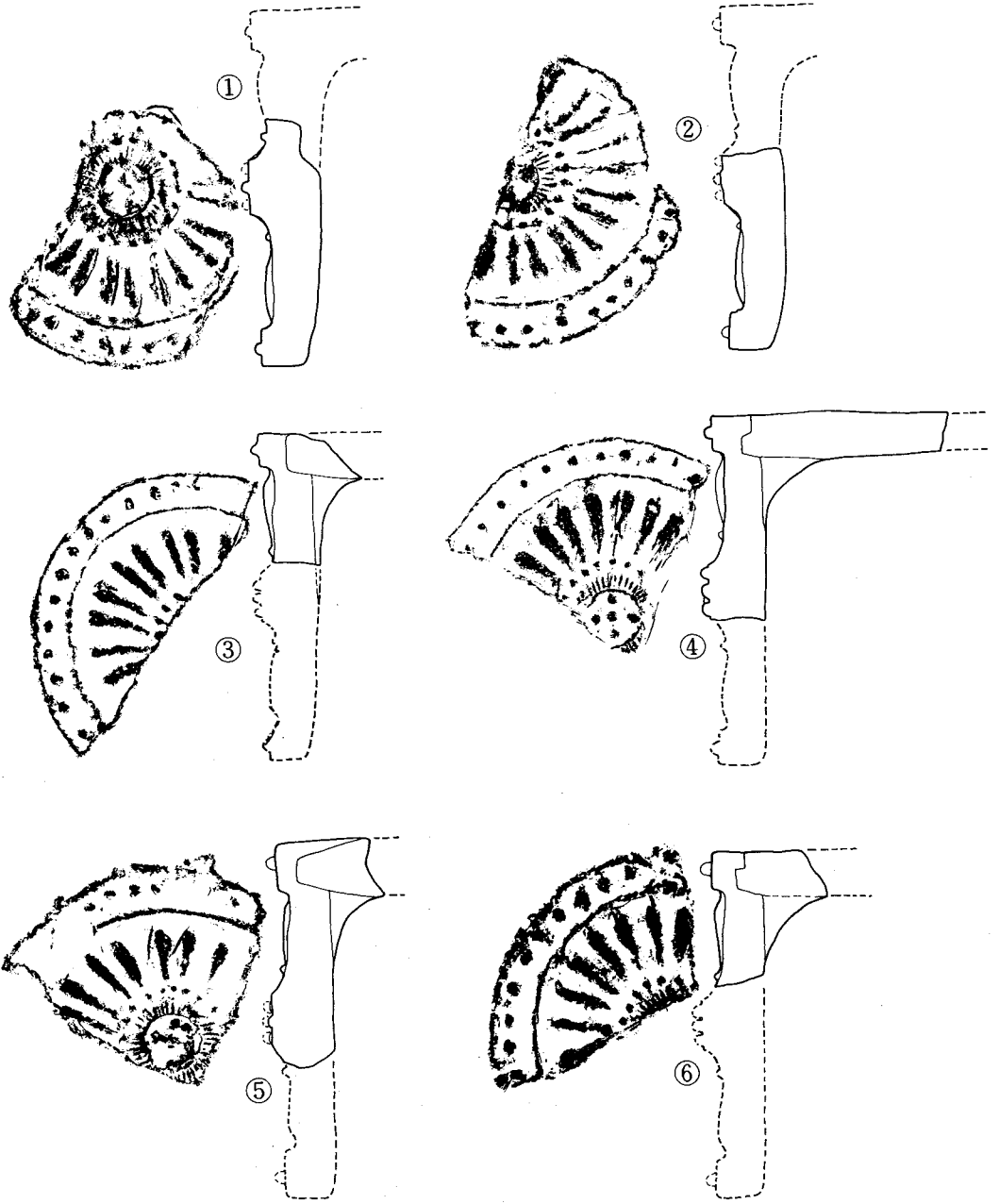


0 5 10cm

圖面39. 숫막새 實測圖 ①~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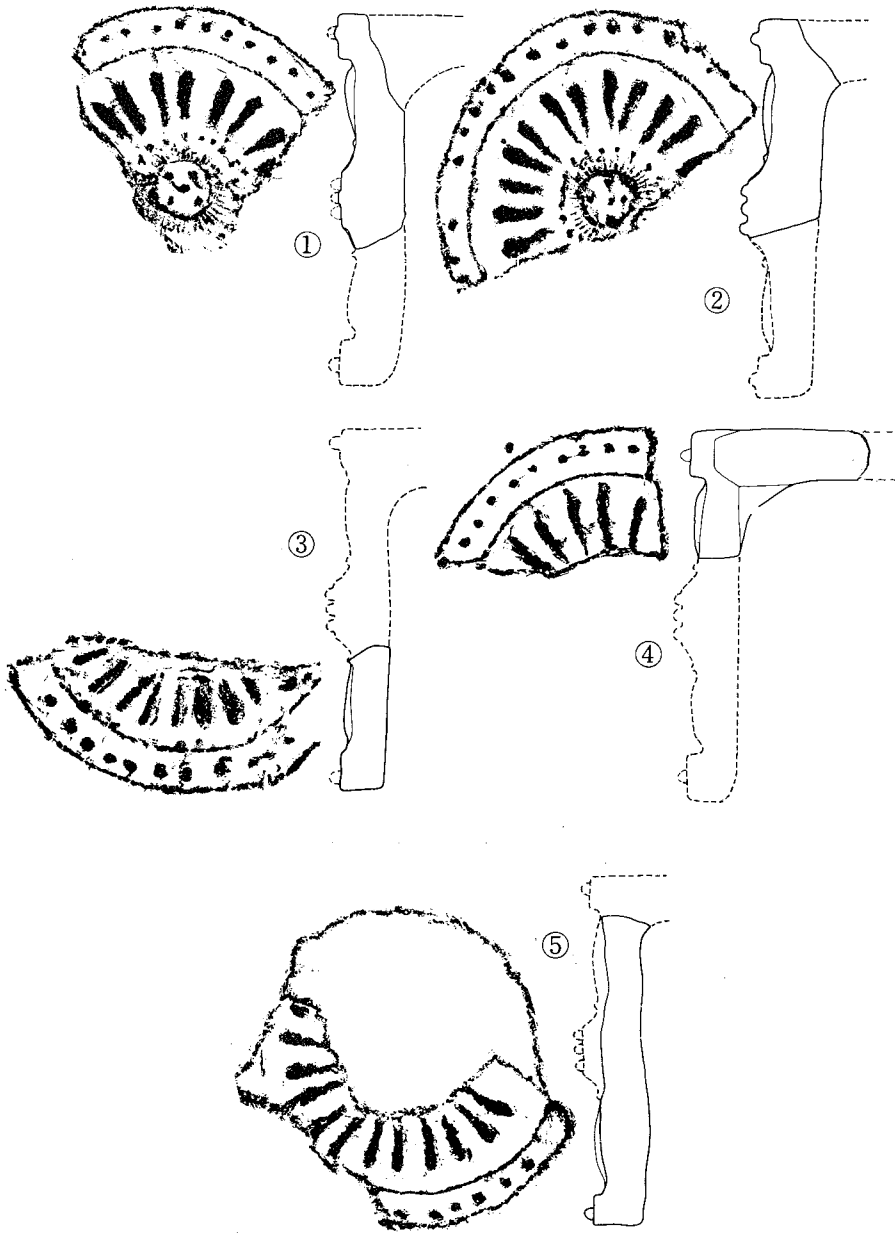


圖面40. 숫막새 實測圖 ①~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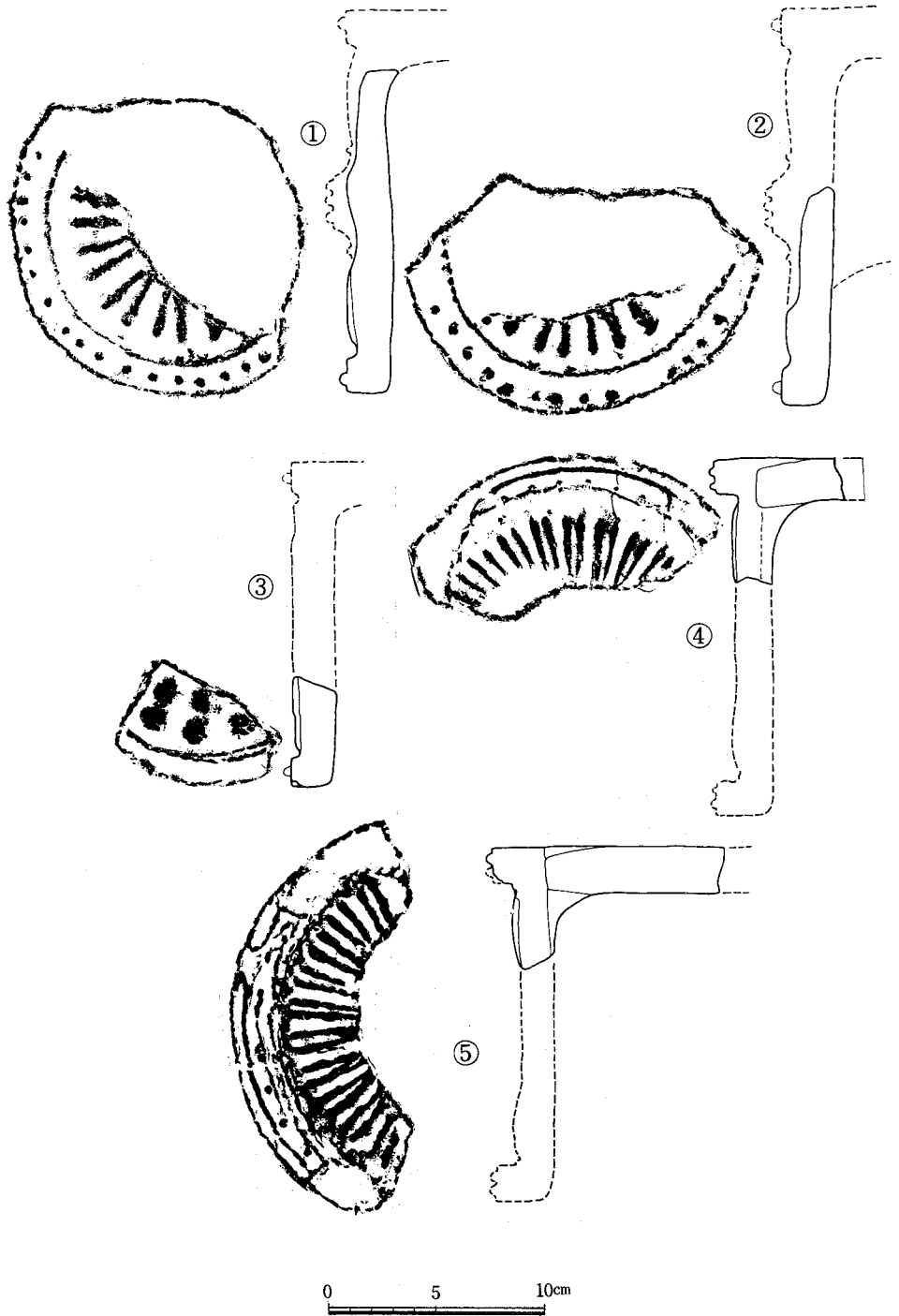
0 5 10cm

圖面41. 숫막새 實測圖 ①~⑤



0 5 10cm

圖面42. 숫막새 實測圖 ①~⑤



齒文 形式의 界線內에 2葉이 1瓣을 構成하는 複瓣이다. 즉 瓣端이 갈라진 가장자리에 沈線을 길게 1條씩 넣어 複瓣形式을 갖도록 하였는데, 瓣間에는 間瓣없이 連續된 形態를 하고 있고 蓮瓣은 大略 24葉 정도에 다달을 것이라고 推測된다. 그리고 높고 넓은 周緣은 內外線으로 區別하듯 안쪽에는 小粒의 聯珠文을 두르고 바깥에는 突線文을 周回시켰다. 역시 時期的으로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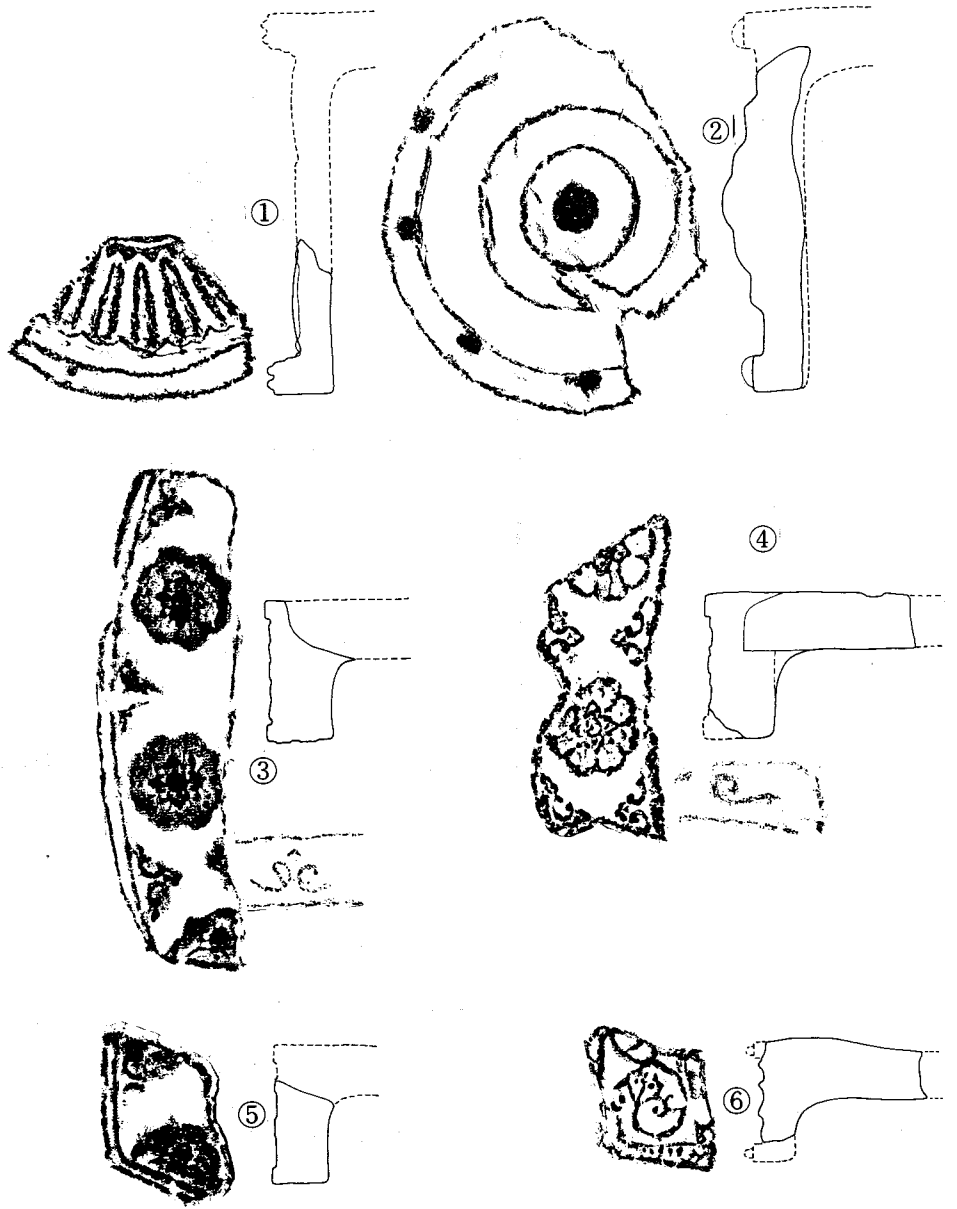
圖面 43의 ②는 鬼目文을 가진 것으로 子房, 꽃술帶, 蓮瓣에 該當하는 3部分을 段狀의 圓圈으로 區分지워 놓았는데, 中央의 子房에 該當하는 部分이 가장 높다. 그리고 낮고 넓은 周緣에는 띠엄띠엄 太形 聯珠文을 配置하고 있다.

以上으로 潤月寺址에서 出土된 遺物 가운데 그 形態를 알아볼 수 있는 甌막새는 모두 12種 48點인데 그 特徵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時期的으로 統一新羅末葉에서 高麗時代에 該當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간혹 朝鮮時代의 것도 섞여 있는 것으로 推測된다.

## ② 암막새 (圖面 43~51, 圖版 28~31)

圖面 43의 ③④⑤는 草花文이 施文된 것인데 불에 타서 表面의 磨滅이 심하다. 文樣은 滿開된 重瓣花文을 一定한 間隔을 두고 內區 中心部에 配置하고 그 사이사이에는 忍冬唐草文인지 區別할 수 없는 文樣을 周緣上下 界線에 맞붙여서 施文하고 있다. 花文은 母瓣端이 약간 쳐든 듯한 隆起된 形態로 造飾되었으나 子瓣과는 種類가 다른 것이고 子瓣의 경우도 2, 3

圖面43. 숫막새 및 암막새 實測圖 ①~⑥



0 5 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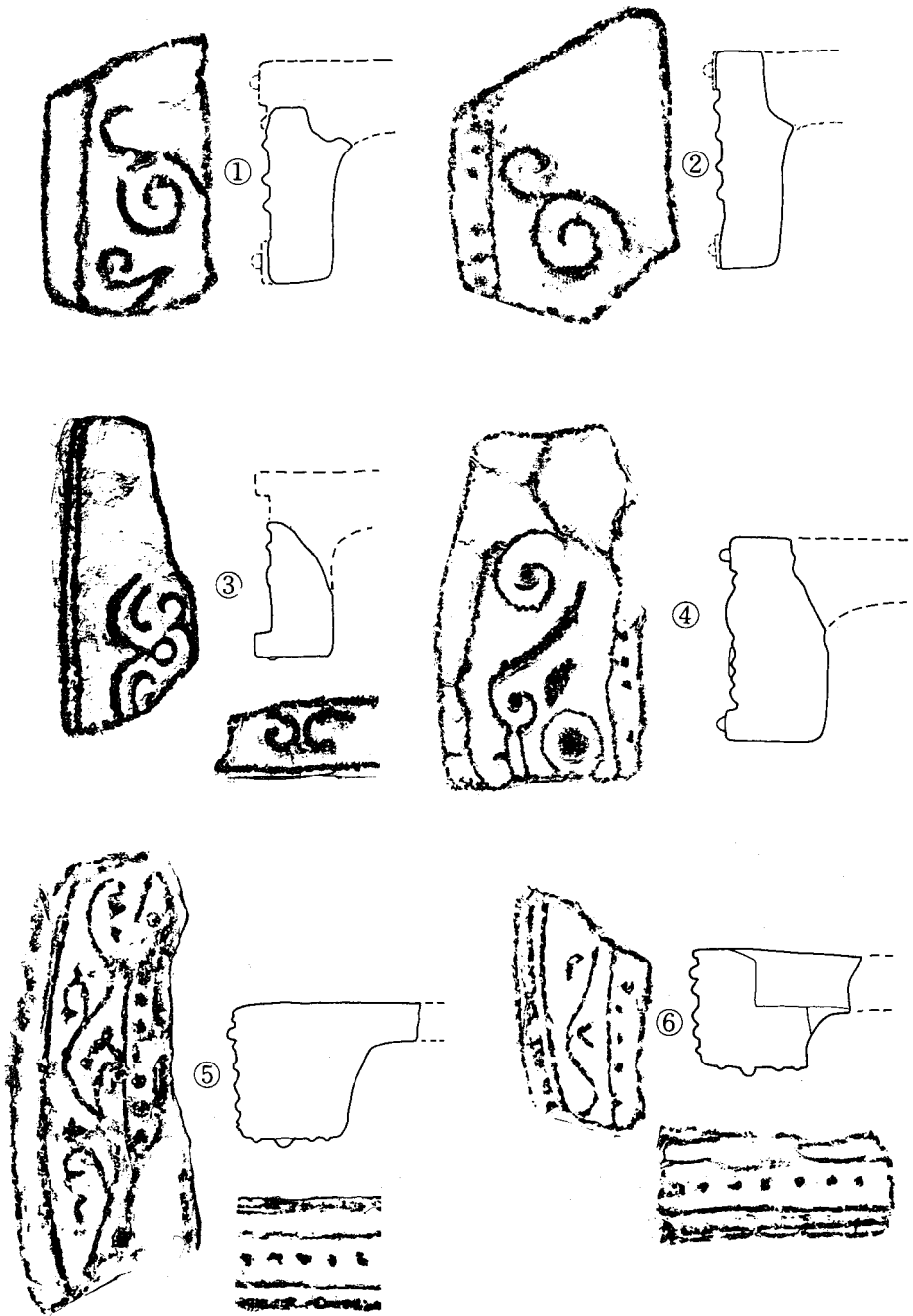
重의 겹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周緣은 낮고 좁은 것인데 素文이며 내림새 下顎에는 唐草文을 配置하고 있다.

圖面 43의 ⑥과 44의 ①②③④는 모두 唐草文系統인데 역시 불에 타서 表面의 磨滅이 심하다. 中心飾部分이 대부분 破損되어 確實한 文樣形態는 알 수 없으나 43의 ⑥은 내림새의 幅이 좁은 것이나 44의 ①②③④는 일반적인 암막새보다 幅이 넓은 것이다. 그중 43의 ⑥은 中心飾에서 曲線으로 뻗어나오면서 요소요소에서 가지를 치고 있는데 그 分岐點에는 반드시 忍冬을 配置하고 唐草 끝은 珠文처럼 둥글게 突起시켜 상당히 힘찬 느낌을 풍기게 處理하고 있다. 그리고 周緣에는 聯珠文을 두르고 있으나 대부분 磨滅되고 脇區에만 남아 있다. 44의 ①②③은 唐草文이 連續되면서 中間 中間에 가지를 갖는 形態이고 44의 ④는 힘차고 굵은 唐草는 가지를 갖지 않고 ∞字狀으로 감겨있고 中心飾部分에는 忍冬과 鬼目を 具備한 特殊 文樣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되나 確實히는 알 수 없다.

圖面44의 ⑤⑥도 唐草文系統이나 불타지 않고 단단한 燒成度를 갖고 있다.

文樣은 中心飾에서 左右로 뻗어나가면서 가지를 친다든지 아니면 忍冬을 配置하는 약간 粗雜한 形態의 것으로 隆起文樣 자체도 가늘고 힘없어 보인다. 周緣은 隆起된 界線을 둘러 일단 內區와 區分한 다음 上段은 幅의 여유를 갖고 珠文을 配置하고 下段은 區分만 지웠을 뿐 周緣이 없다. 그러나 그 裏面인 下顎에 다시 突線을 나란히 두고 그 사이에 珠文을 配

圖面44. 암막새 實測圖 ①~⑥



0 5 10cm

置한 特殊形態를 띤 것으로 내림새의 두께가 두껍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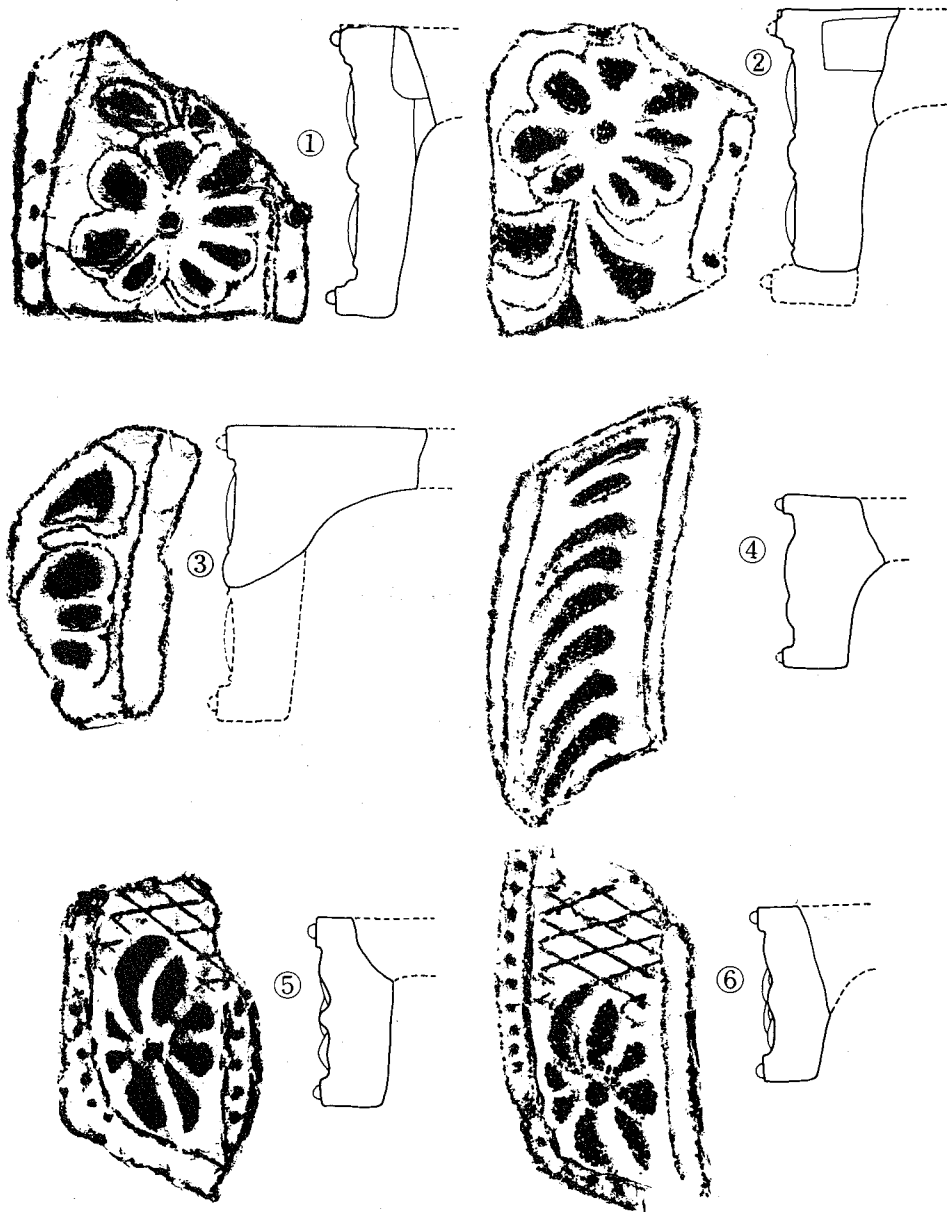
圖面 45의 ①②③은 草花文이 施文된 것으로 表面이 불에 타서 검게 혹은 黃褐色으로 변하였으나 狀態는 良好하다. 文樣은 中心飾을 花文으로 하고 左右로 草葉을 薺힌 形態로 모두 隆起되게 彫飾하여 立體感을 갖게 한다. 그리고 周緣은 낮고 넓은 것으로 岬岬 窪은 珠文을 配置하고 있으며 내림새의 幅은 넓으나 두께는 얇다.

圖面 45의 ④는 草花文이 施文된 것이나 불에 타서 검게 그슬려 있고, 表面의 磨滅도 심하다. 文樣은 中間의 花文을 中心으로 左右로 草葉文이 새겨져 있는 形態인데, 前者에 비해서는 그 施文手法은 同一하다고 할 수 있으나, 내림새의 幅은 좁다. 그리고 磨滅되어서 確實하지 않지만 낮고 좁은 周緣은 素文인 듯하다.

圖面 45의 ⑤⑥과 46의 ①은 草花文이 施文된 것인데 불에 타지는 않은 듯하나 본디의 燒成이 좋지 않았다. 文樣은 中心飾으로서 八葉花文을 두고 그 다음에 左右로 隆起된 斜格子文을 配置하였으며 마지막 周緣區에 붙여서 다시 花文을 配置하였다. 그리고 낮고 좁은 周緣에도 小粒의 珠文을 周回시키고 있다. 그러나 내림새의 두께는 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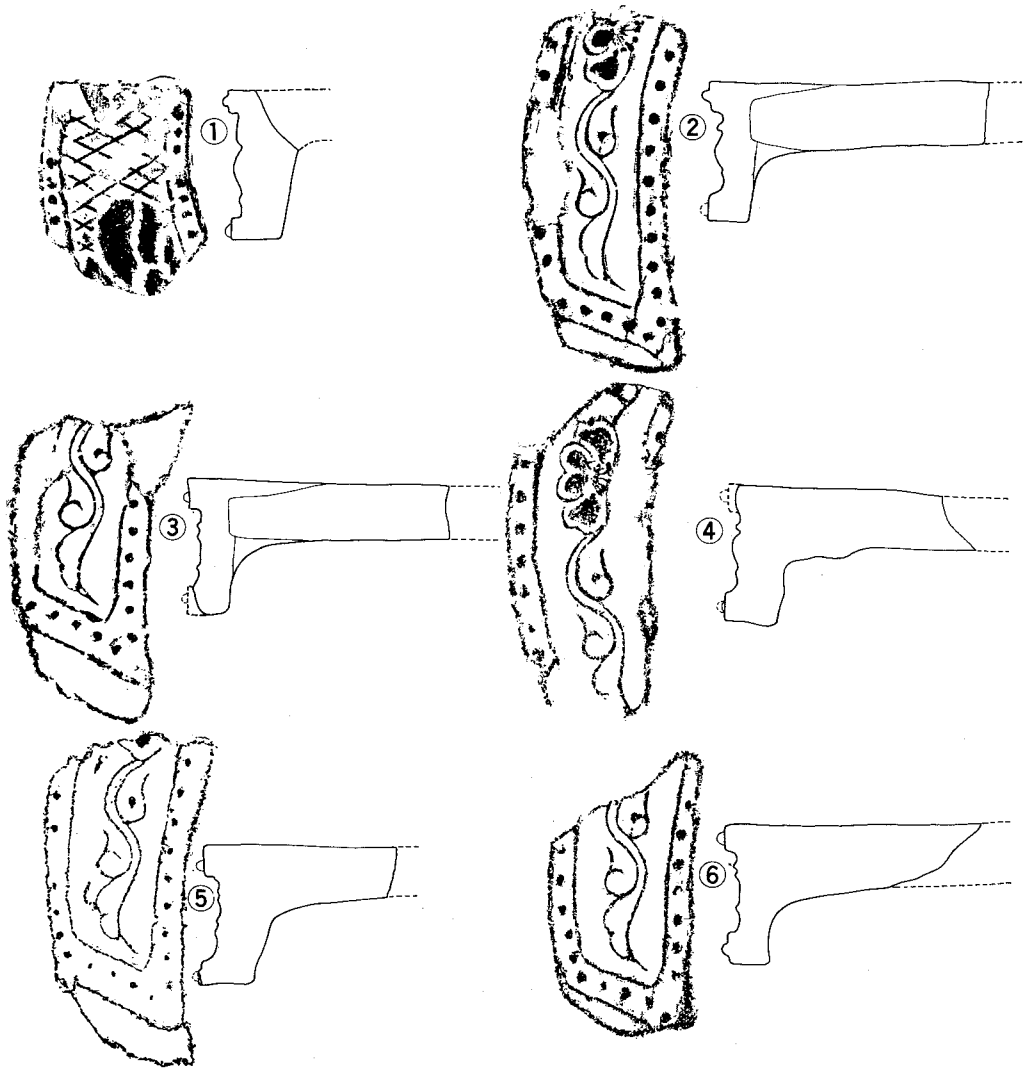
圖面 46의 ②~50의 ②는 唐草文이 施文된 것으로 比較的 狀態도 良好하며 數字的으로도 가장 많은 量의 것이다. 文樣은 滿開된 花文을 中心飾으로 하여 左右 各各 두줄기의 唐草文을 配置하고 있는데 위의 것은 中間에서, 아래 것은 끝에서 各各 各을 치고 있으며 中心飾으로 된 花文은 4

圖面45. 암막새 實測圖 ①~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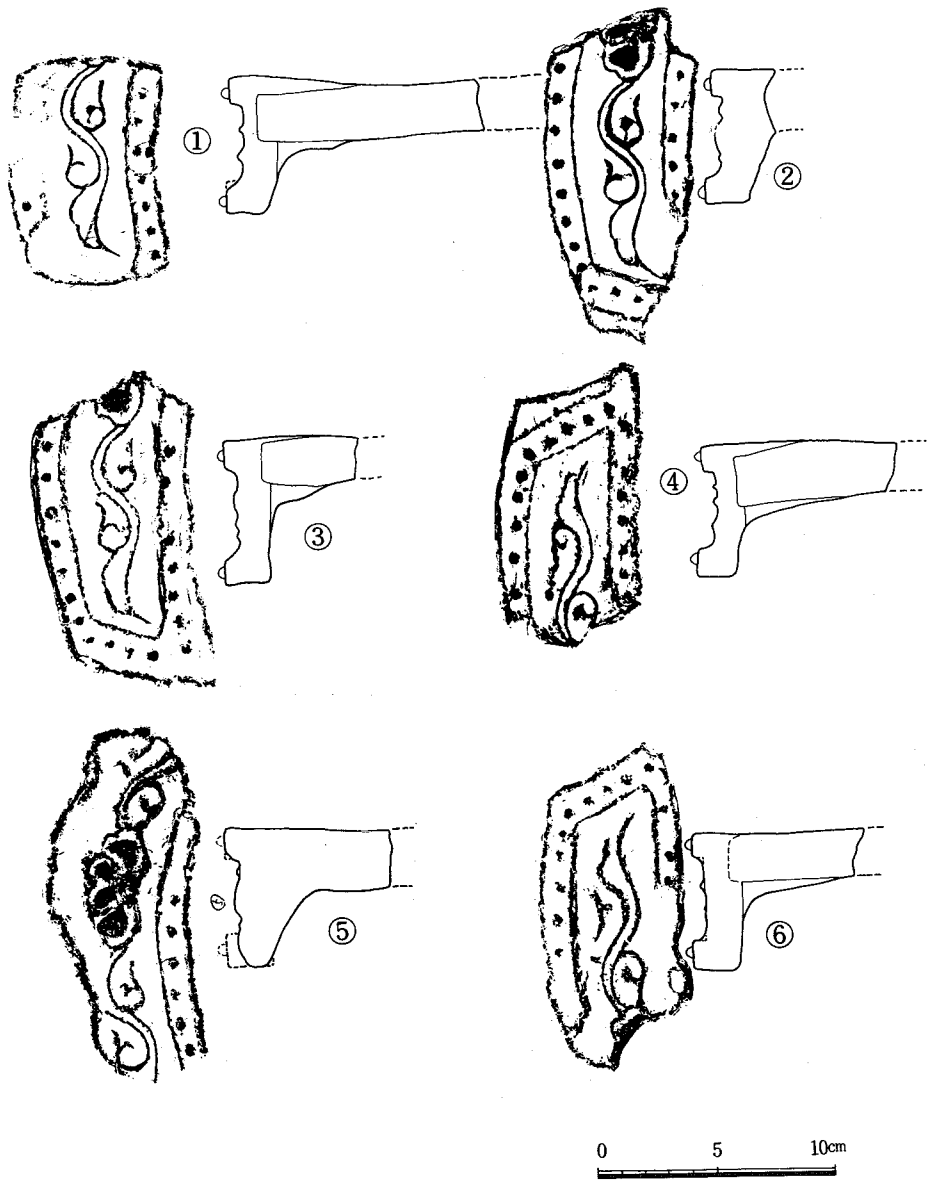
0 5 10cm

圖面46. 암막새 實測圖 ①~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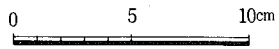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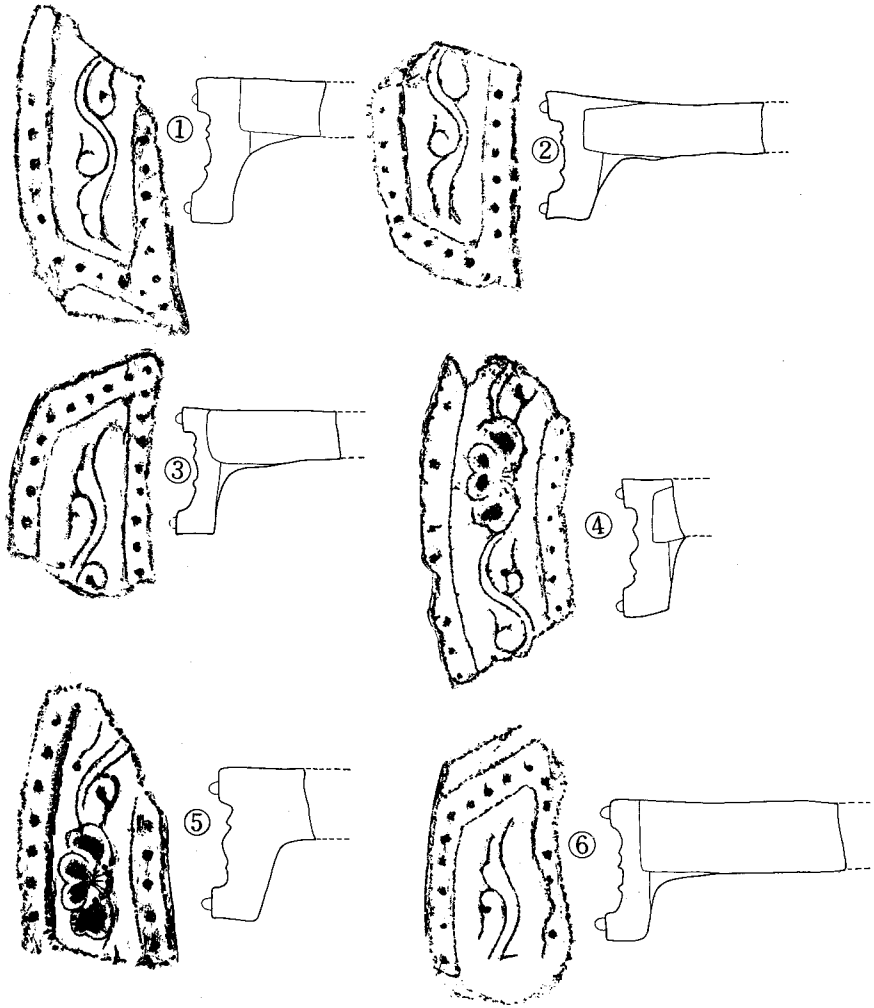


0 5 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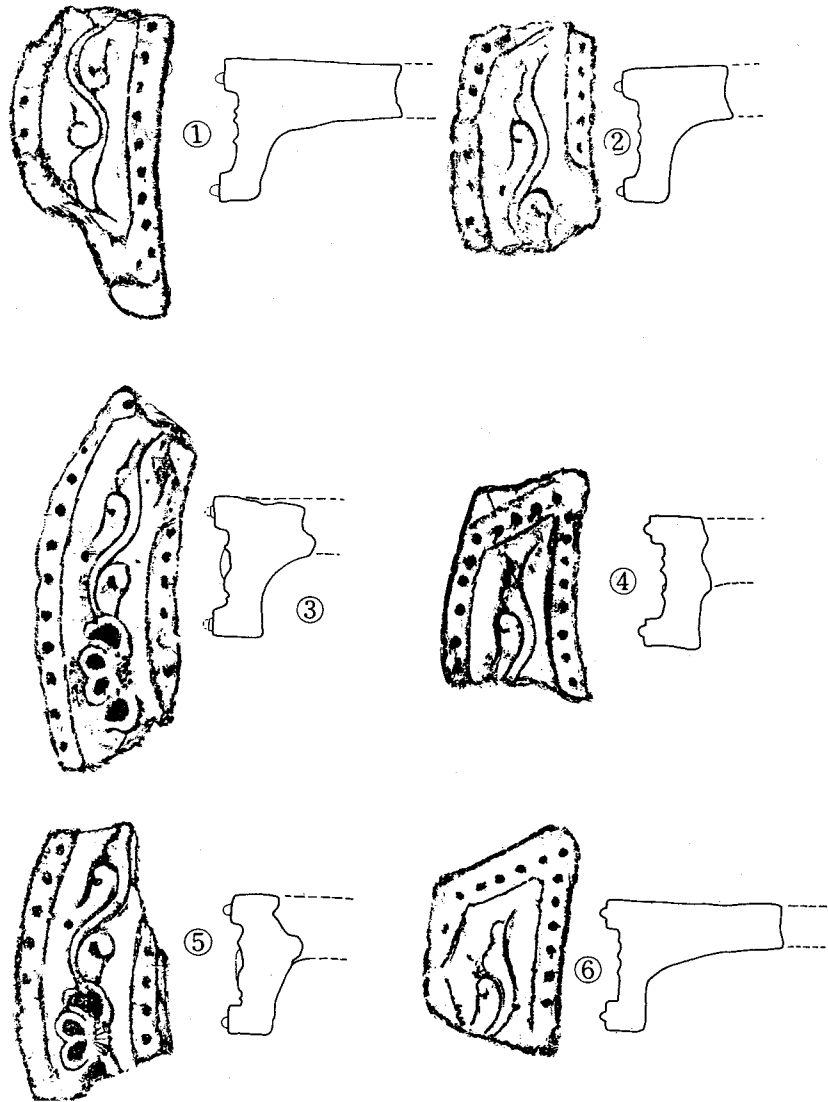
圖面47. 암막새 實測圖 ①~⑥



圖面48. 암막새 實測圖 ①~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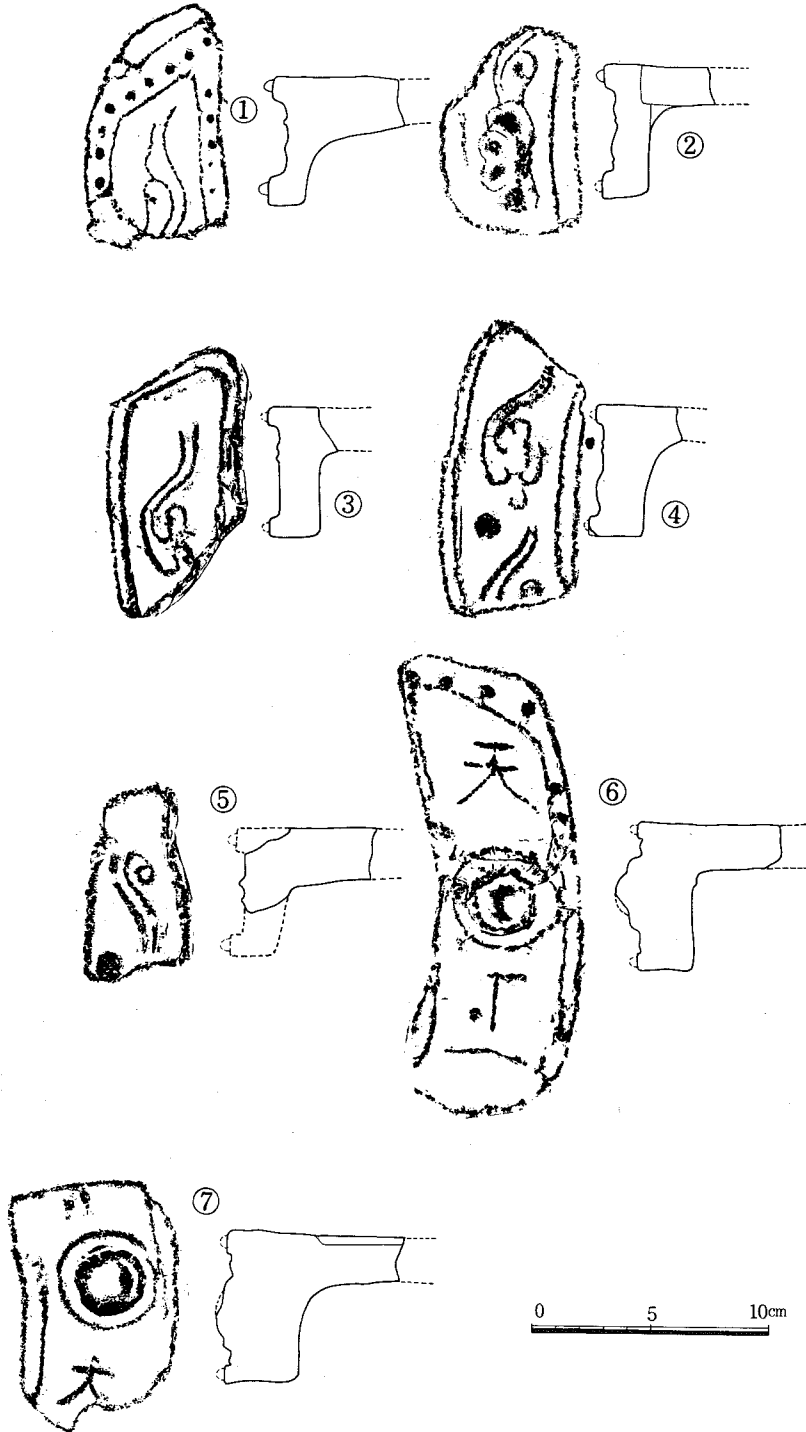


圖面49. 암막새 實測圖 ①~⑥



0 5 10cm

圖面50. 암막새 實測圖 ①~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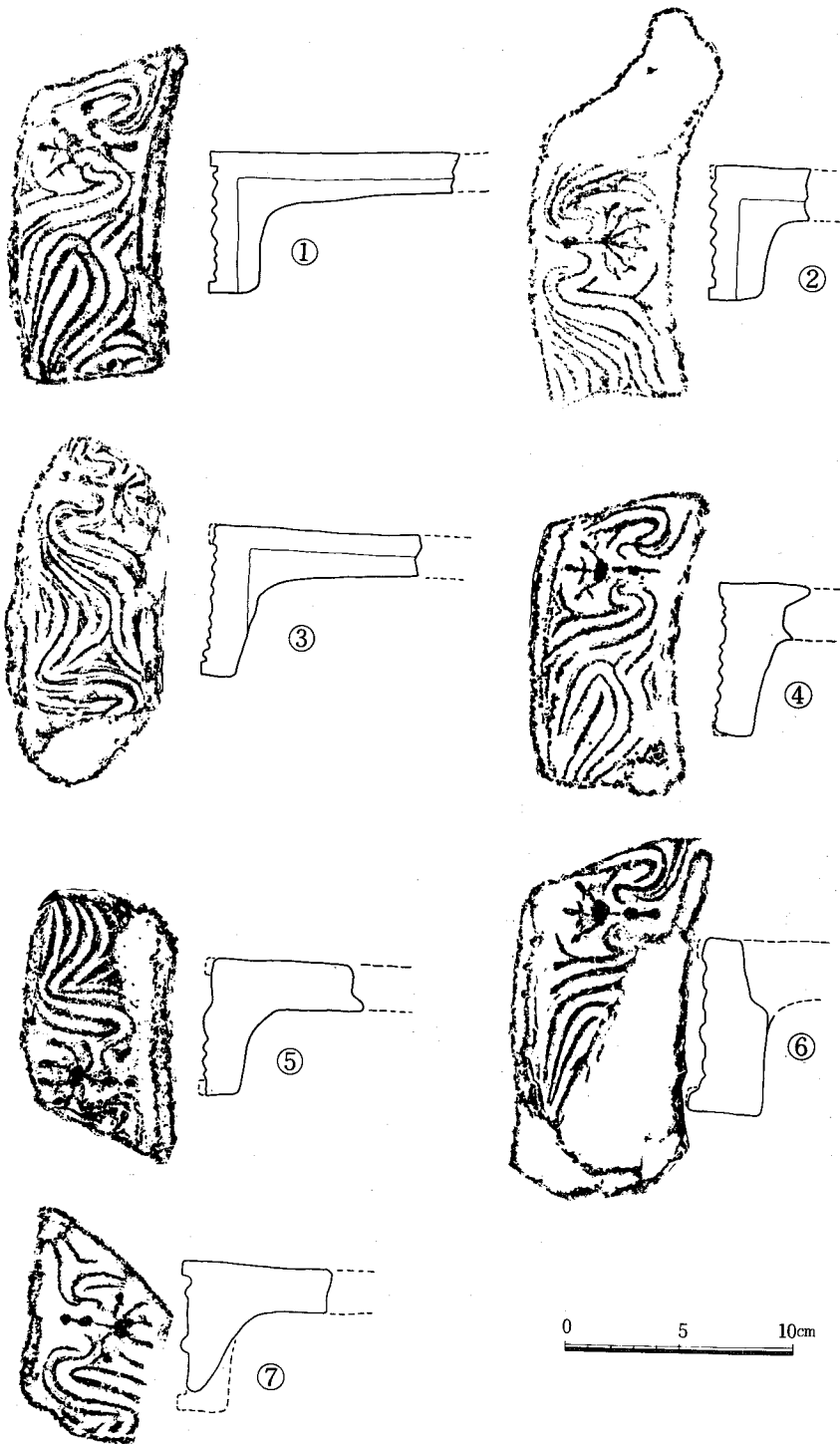
葉으로 위로 쳐든 꽃술帶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높고 넓은 周緣에는 聯珠를 두르고 있다.

圖面 50의 ③④⑤는 雲文을 施文한 것으로 불타서 表面의 磨滅이 심하다. 破片이어서 전체의 形態는 알 수 없고 內區에 獨立된 雲文을 連續으로 配置하고 中心飾에 해당하는 部位 下段에 가깝도록 太形珠文 하나를 두고 있다. 그리고 약간 높고 좁은 듯한 周緣에는 聯珠文을 周回시켰으나 대부분 磨滅되었다.

圖面 50의 ⑥⑦은 鬼目文을 가진 것인데 역시 불타서 磨滅이 심하다. 한쪽 部分이 缺損되어 전체 確認이 不可能하지만 文樣은 양쪽에 3段을 이루는 圓圈의 불룩한 鬼目文을 두고 그 사이사이에는 「天」「下」「大」라는 文字를 陽刻한 銘文瓦이다. 周緣은 약간 높고 좁지만 드문드문 珠文이 周回되어 있다.

圖面 51의 ①~⑦은 鳳凰文이 施文된 것으로 처음부터 燒成은 좋지 않았던 것 같다. 文樣은 中心飾인 봉황머리를 中心으로 左右에 날개를 벌린 모습이 連續되어 있는데 中心飾인 봉황머리는 꽃술과 같은 깃을 세우고 連續된 兩端의 鳳凰은 거꾸로 뒤집어 施文하고 있다. 그리고 周緣은 素文으로 그 크기가 一定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粗雜하고 늦은 時期에 製作된 느낌을 주고 있다. 암막새 또한 숫막새와 같이 12餘種에 달하는데 時期的으로 統一新羅에서 高麗朝에 걸친 것이다.

圖面51. 암막새 實測圖 ①~⑦



③ 숫기와(圖面 52, 圖版 31)

澗月寺에서 出土된 숫기와는 모두 玉緣이 附着된 것으로 比較的 量도 많았고 燒成度도 良好한 것이었다. 製作은 截頭圓錐形槌에 布木文이 있는 織物을 대고 그 위에 粘土板을 돌려 두드린 뒤에 안쪽에서 2分割하는 截線을 넣은 것이다. 때문에 凹面에는 布木文이 있고 凸面에는 두드린 打捺文이나 그 위를 물손질한 調整痕을 남기고 있다. 比較的 두께는 두껍고 玉緣이 긴 것과 짧은 것 두 종류가 있다.

④ 암기와(圖面 53~55, 圖版 32,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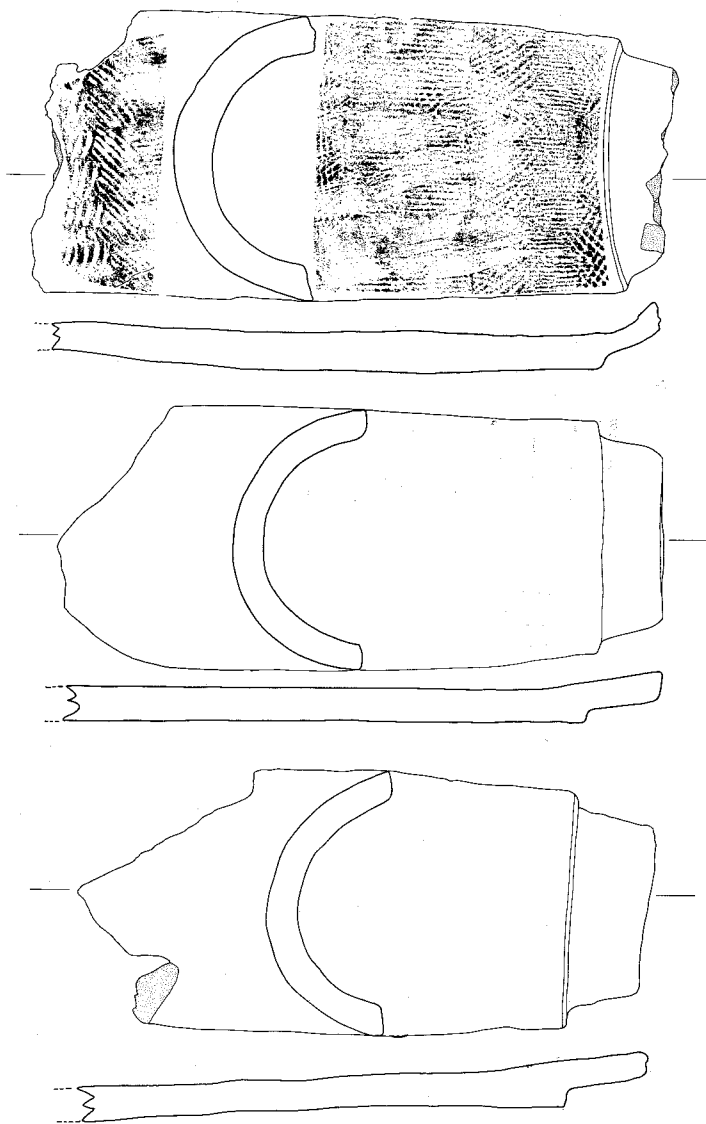
암기와片도 많은 量이 出土되었으며, 그중에서는 불에 탄 것, 表面의 文樣이 磨滅된 것, 比較的 燒成度가 良好한 것 등 여러 種類의 것이 있었다. 製作手法은 粘土板槌卷으로 4枚造인데 分割截線은 內側에 있다. 文樣은 凹面에 布木文이, 그리고 凸面에는 格子文, 斜格子文, 繩蓆文, 平行線文, 葉脈文, 唐草文, 銘文 등 多種多樣한데 銘文의 경우 「寺」「甘」「吉」字라든지 「ㄱ」字等 알아 볼 수 없는 것도 있었다.

라. 螺髮形土製品(圖面 56, 57, 圖版 34)

金堂址 中央 石佛臺座 地臺石 前方에서 集中的으로 出土되었다. 形態는 斷面三角形으로 둥글게 감아올린 모습을 하고 있으며, 粘土는 塑造材料와 같은 精選된 것이고, 表面이 검게 탄 것도 있다.

用途는 佛頭의 螺髮 혹은 小塔이라는 두가지 이야기가 傳하고 있으나 確

圖面52. 各種 罽기와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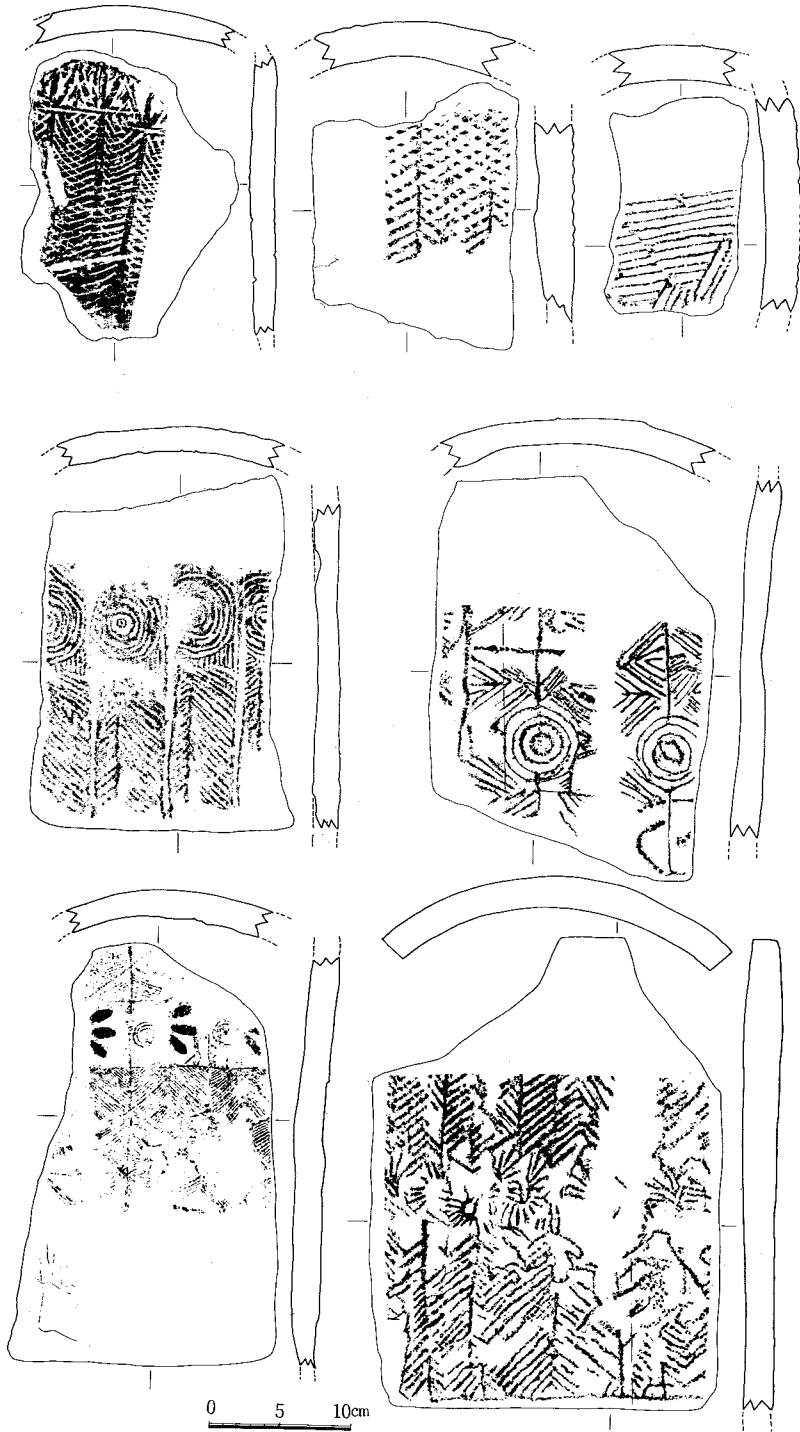


0 5 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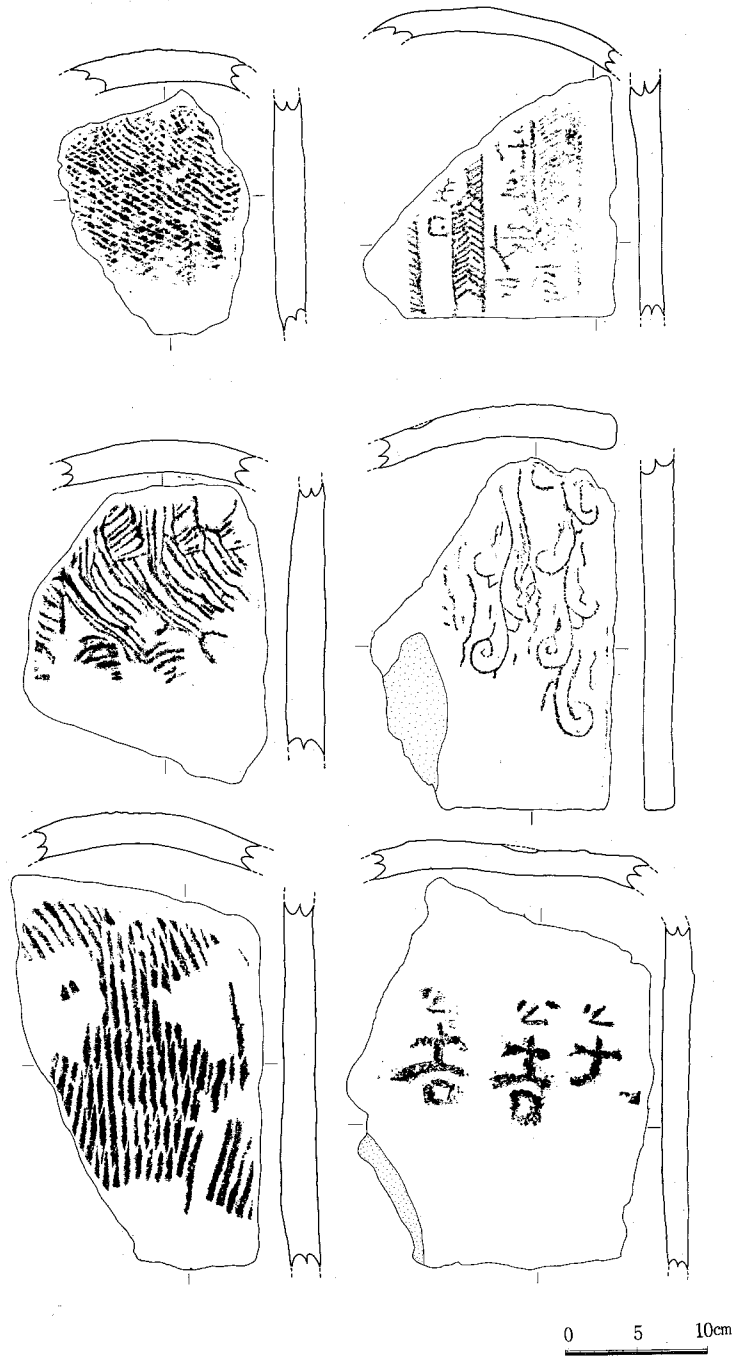
圖面53. 各種 암기와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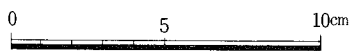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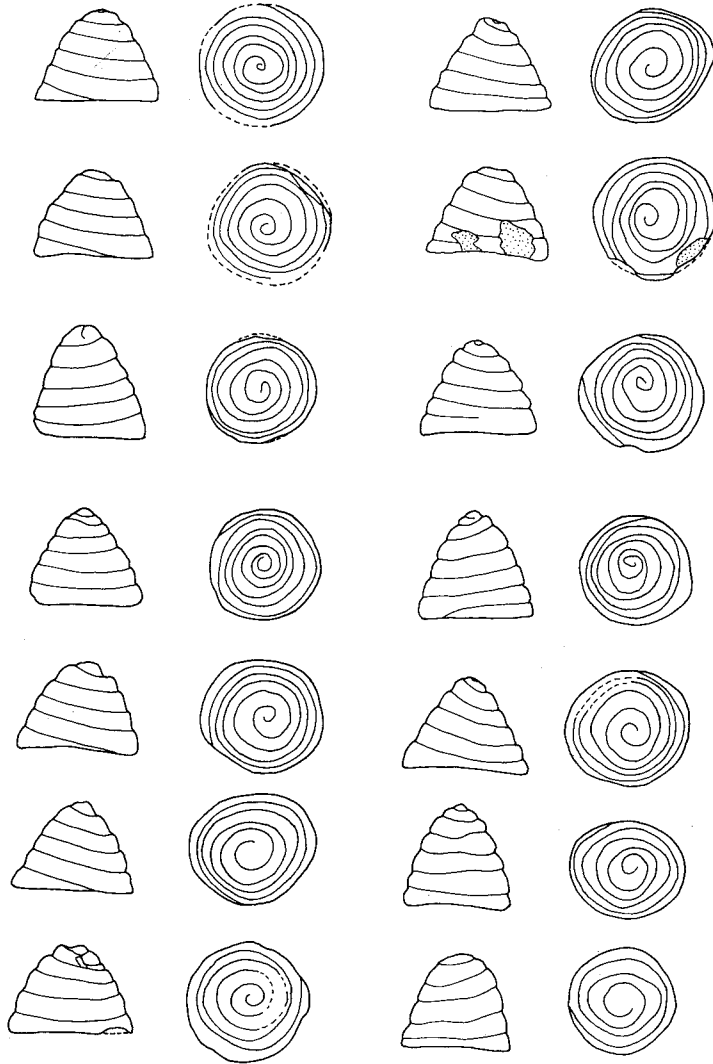
圖面54. 各種 암기와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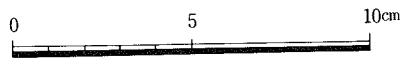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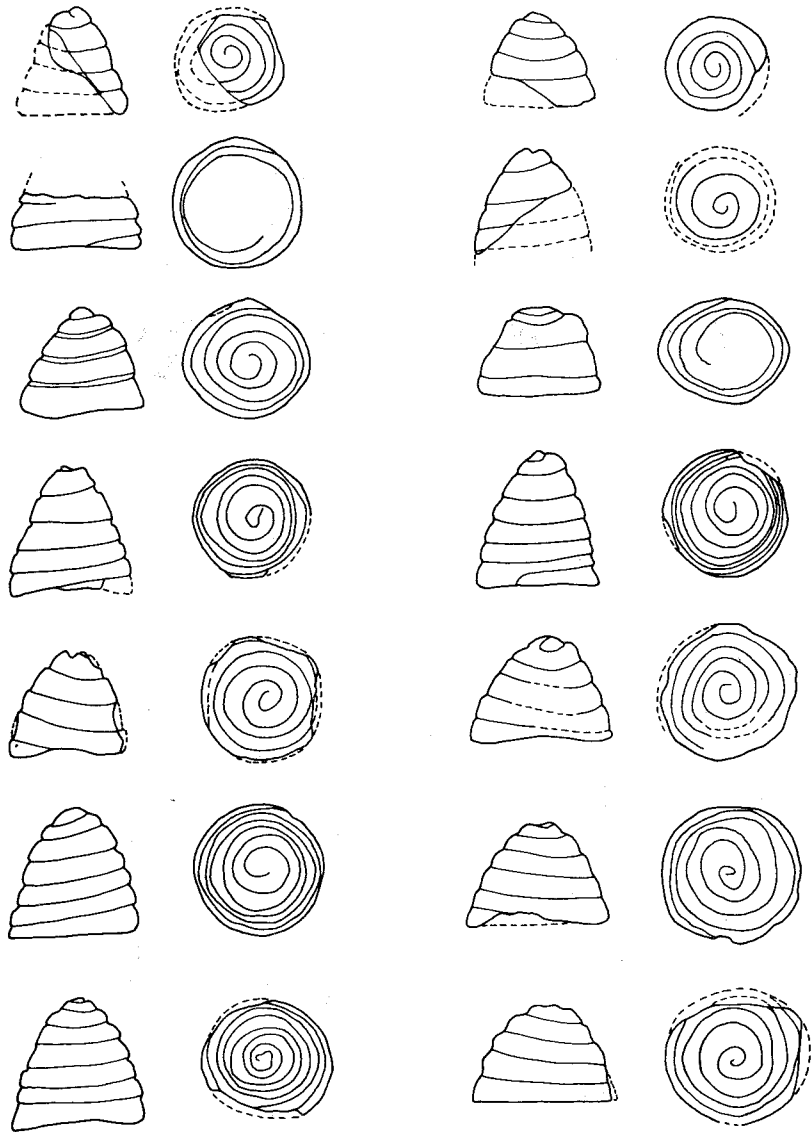
圖面55. 各種 암기와 實測圖



圖面56. 螺髮形土製品 實測圖



圖面57. 螺髮形土製品 實測圖



實히 알 수 없다. 모두 38個가 收拾되었다.

마. 土 器 (圖面 58~61, 圖版 35, 36)

圖面 58의 ①은 灰青色硬質의 壺形土器 口緣部片이다. 器壁에 비해서 口唇이 두껍고 內面에는 回轉자국이 있다. 口緣의 形態로 보아서는 廣口長頸壺片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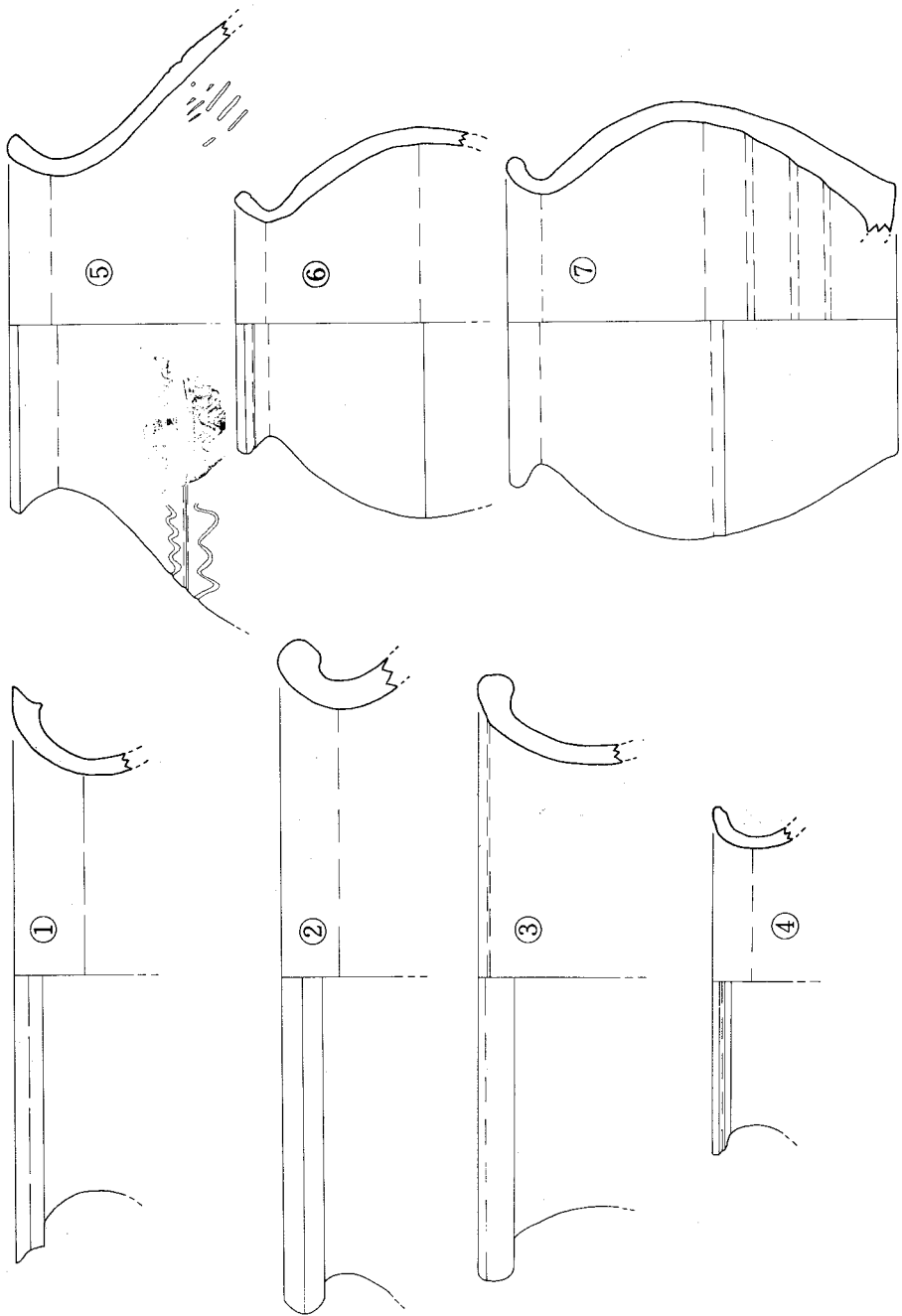
圖面 58의 ②는 灰白色硬質土器라고 할 수 있으나 硬質中에서는 燒成이 不良한 것이다. 胎土는 砂粒이 섞여있고 内外面에 回轉자국이 있으며 口緣은 바깥쪽에 粘土帶를 덧붙혀서 二重形態를 갖고 있는 것이다. 器壁의 두께와 口緣部位의 形態로 보아 大形의 壺形土器였다고 推測된다.

圖面 58의 ③은 灰青色硬質의 壺形土器片이다. 小片이어서 長頸壺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목이 길고 口緣部는 두꺼우며 밖으로 한 번 감아올린 形態이다. 胎土는 砂粒이 약간 섞인 粘土를 使用하였고, 燒成은 良好하며 口緣內面에는 自然釉가 酸化된 채 남아 있다.

圖面 58의 ④는 灰青色硬質의 壺形土器 口緣部에 해당하는 破片이다. 殘存한 頸部로 보아서는 小形土器로 燒成이 良好하여 가볍다. 現在 頸部の 잘라진 部分이 輪積한 部位라고 생각된다. 胎土는 良質粘土를 代用하였다.

圖面58의 ⑤는 灰青色硬質의 壺形土器片이다. 小片이어서 確實한 器形은 알 수 없으나 狹口短頸壺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推測된다. 胎土는 比較的 精選된 粘土를 使用하고 器壁은 얇으며 燒成度는 보통이다. 頸部内外

圖面58. 各種土器實測圖 ①~⑦



面에는 回轉자국이 보이며 肩部外面에는 波狀文의 沈線이 둘러져 있으며 内面에는 器面調整時 두드린 打捺文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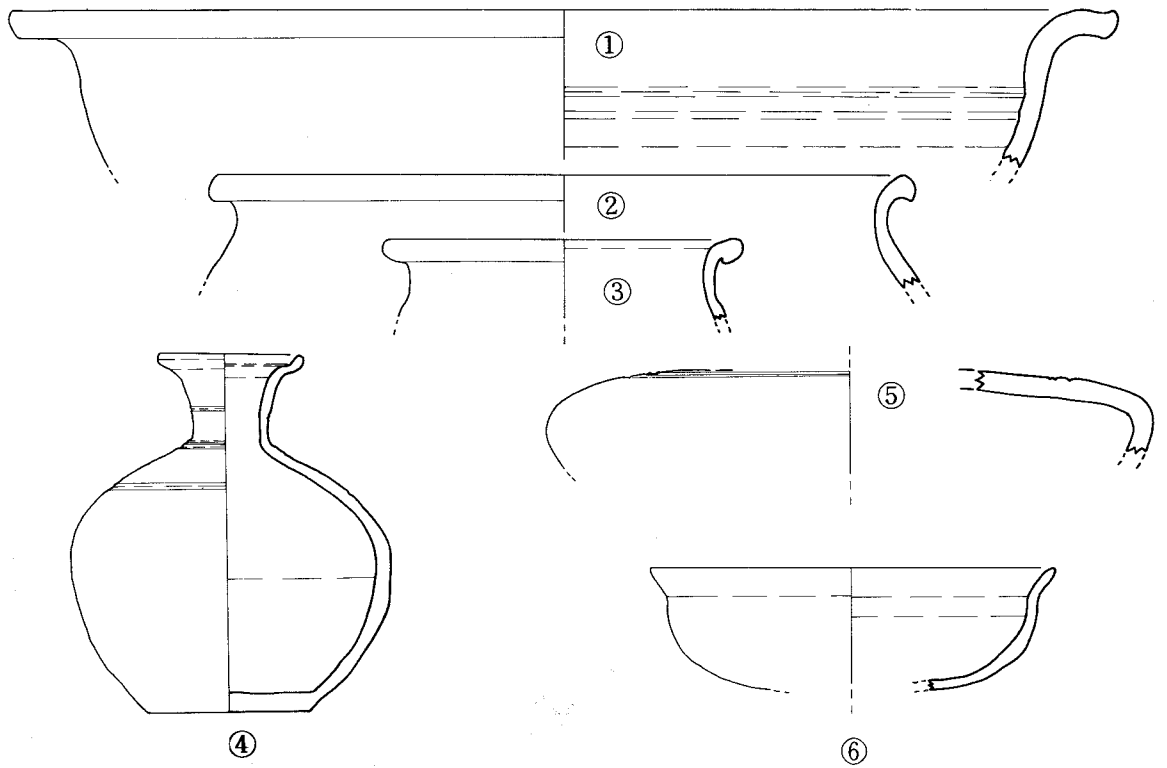
圖面58의 ⑥⑦은 灰青色硬質의 甕形土器片이다. 胎土는 精選된 粘土를 使用하고 아래부분의 器壁이 두꺼우며 燒成度는 良好하다. 成形技法은 確實하지 않지만 肩部에 해당하는 内面에 손끝으로 눌러붙힌 이음선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輪積法이 併用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外面은 단정하게 물손질한 느낌이 든다.

圖面59의 ①은 黃灰色軟質의 甕形土器片이라고 생각되지만 胴體下部가 떨어져 나갔으므로 確實한 形態는 알 수 없다. 胎土는 比較的 良好한 粘土를 使用하고 器壁은 얇으며 燒成度가 지극히 不良하여 胎土外壁의 粘土가 손에 잡힐 정도이다. 그리고 成形時 생긴 주름이 内面에 뚜렷이 나타나 있으며 그 위를 검게 칠하였던 痕迹도 있다. 만약 甕形에 屬하는 器種이라면 口緣部가 꽤 넓은 것이었다고 推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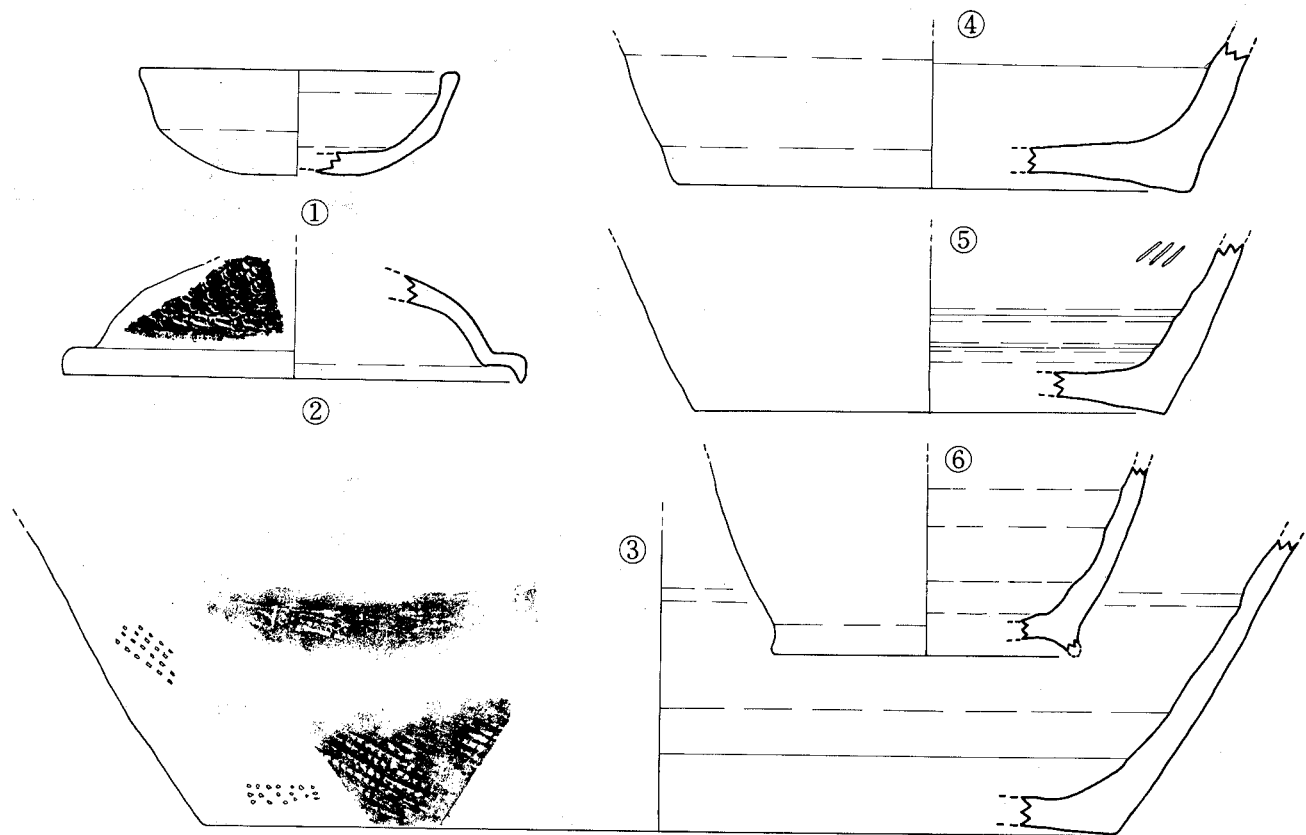
圖面59의 ②는 黃灰色軟質의 甕形土器片이다. 前者와 같은 燒成度를 갖기는 하나, 器種이 다르며 表面의 磨滅이 심해서 諸特徵을 確認하기 어렵다.

圖面59의 ③은 灰青色硬質의 小甕形土器片이다. 小片이어서 確實한 器形은 알 수 없으나 얇은 器壁에 内外面 共히 打捺文을 남기는 調整手法을 쓰고 口緣을 外側으로 한번 감아올린 것이다. 그리고 胎土와 燒成은 모두 良好한 것이다.

圖面59. 各種 土器 實測圖 ①~⑥



圖面60. 各種 土器 實測圖 ①~⑥



0 5 10cm

圖面59의 ④은 金堂址 中央에서 螺髮形土製品과 함께 出土되었다. 胎土는 比較的 精選된 粘土를 使用하고 器壁은 얇으며 燒成度는 良好하나 土器成形은 輪積法을 使用한 듯하며 外面에 씩여졌던 自然釉가 대부분 酸化되어 거칠다. 그리고 底部는 불에 탄 痕迹이 보인다. 이와 같은 小瓶은 昌寧桂城古墳에서도 出土된 바 있다.

圖面59의 ⑤은 灰青色硬質의 土瓶 肩部에 해당하는 破片이다. 破片이어서 確實하지는 않지만 器形은 胴體가 납작하면서 낮고 肩部가 밋밋하게 넓으면서 頸部가 긴 統一新羅時代 印花文 骨壺와 함께 出土되는 土瓶과 닮은 것이라고 推測된다. 胎土는 良好한 粘土를 使用하고 器壁이 두꺼우며 燒成度는 良好하다.

圖面59의 ⑥과 圖面60의 ①은 灰青色軟質의 皿形土器片이다. 모두 小片이어서 確實하지 않지만 底部가 약간 둥근 形態의 접시였다고 생각된다.

胎土는 砂粒이 섞인 粘土를 使用하고 燒成은 不良하며 器形은 서로 다른 것이다. 現在 모두 部分的으로 검게 칠해진 痕迹이 있는데 그 性格을 알 수 없으며 底部 表面은 깎아내기를 행한 調整痕迹을 가지고 있다.

圖面60의 ②는 灰青色硬質의 蓋部片이다. 보통 骨壺라고 불려지는 盒의 뚜껑으로 사용된 것인데 小片이며 外面에 印花文이 施文되어 있다. 胎土는 砂粒이 약간씩 섞인 粘土를 使用하고 燒成度는 良好하다.

圖面60의 ③은 灰青色硬質의 甕形土器 底部片이다. 殘存한 器形上으로는 大形으로 平底인데 外面에는 調整時 생긴 布木의 打捺文이 있고 内面에는

눌린자국이 있다. 胎土는 比較的 精選된 粘土를 使用하고 燒成도 良好하며 底部 胎土内에는 燒成時 생긴 氣泡자국과 圓板을 胴體에 附養하였던 연결자국이 남아 있다.

圖面60의 ④는 灰青色硬質의 甕形土器 底部片인데 表面이 磨滅되었다. 胎土는 砂粒이 섞여있는 粘土를 使用하고 燒成은 보통이다. 比較的 큰 器形을 가졌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랫동안 使用한 痕迹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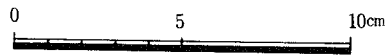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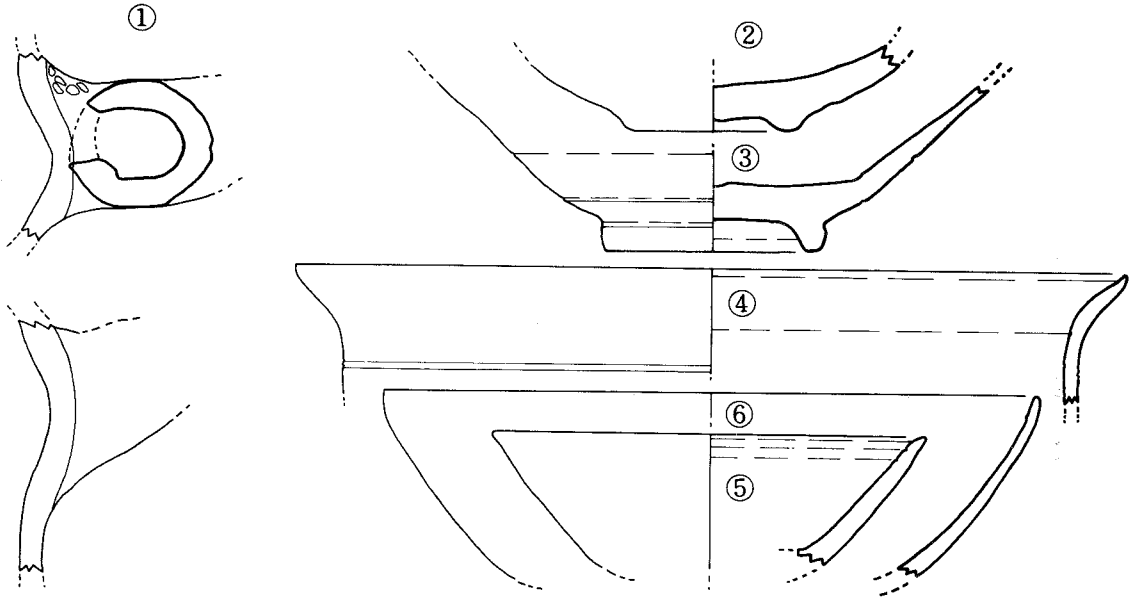
圖面60의 ⑤는 灰青色硬質의 甕形土器 底部片인데 그 特徵은 前記한 ④와 同一하다.

圖面60의 ⑥은 灰青色硬質의 甕形土器 底部片이다. 小形으로 胴體 以上部分의 特徵은 알 수 없으나 底部에 臺가 달리 듯 낮은 굽을 가진 것이다. 胎土는 比較的 良好한 粘土를 使用하고 燒成度는 보통이나 오랜 기간동안 使用한 듯하며 内面에는 調整時의 回轉자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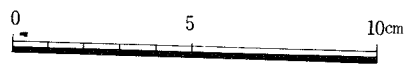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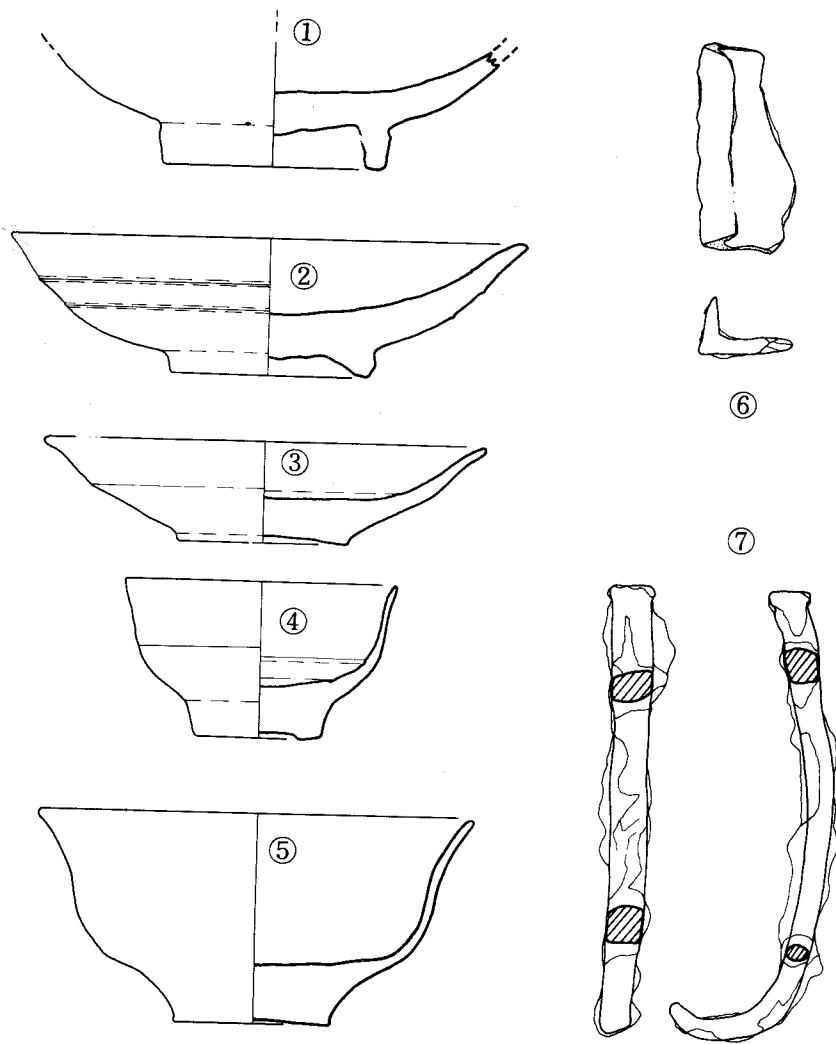
圖面61의 ①은 黑褐色軟質의 牛角形把手片인데 比較的 굽은 것이다. 胎土는 砂粒이 약간 섞인 듯한 粘土를 使用하고 器壁은 두꺼우며 燒成度는 不良하다. 赤褐色土器의 肩部나 胴體部에 附着되었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把手는 粘土板을 말아서 牛角形으로 만든 다음 胴體表面에 눌러붙은 모습이다. 때문에 把手의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部分은 内壁의 胎土가 |오목하게 밀려들어간 모습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遺蹟에서는 高麗靑磁, 朝鮮粉靑沙器, 白磁片 등이 少量出土되었다. (圖面61의 ②③④⑤⑥, 圖面 62의 ①②③④⑤, 圖版 36, 37)

圖面61. 把手 및 各種 磁器 實測圖 ①~⑥



圖面62. 各種磁器 吳 鐵器 實測圖 ①~⑦



바. 鐵製品(圖面 62, 圖版 37)

鐵器는 극히 드물게 出土되었는데 그 形態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도끼  
파편(圖面62의 ⑥)과 못(圖面62의 ⑦)이었다. 도끼파편은 鑄造한 것이  
며, 못은 木造建物에 使用된 것으로 鍛造한 斷面 4角의 것으로 끝이 뾰  
족하고 4角머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第V章 綜合考察

蔚州澗月寺址는 肝月山 중턱에 位置한 山地伽藍으로 東向하는 金堂址로 부터 石燈, 石塔, 中門址, 東門址로 連結되는 階段式 構造를 가진 廢寺址이다.

이번 調査는 澗月寺의 築造年代 把握과 石塔復元을 위한 基礎調査가 주된 目的이었으므로 金堂址와 南·北石塔址 周圍로 局限시켜 實施하였다.

그중 金堂址는 廢寺된 以後 伽藍內를 耕作地로 開墾하면서 대부분 攪亂시켜 버렸기 때문에 原狀 把握이 不可能하였으나 地下에 多少 移動된 建物の 柱礎石과 長臺石, 地枋石 등이 比較的 잘 남아 있어서 적어도 正面 3間, 側面 3間の 規模였음을 確認할 수 있었다.

金堂의 基壇部는 가로 1377cm, 세로 1072cm 크기의 方形으로 前方의 酌掛川에서 옮겨온 砂礫을 75cm 정도의 높이로 쌓아올려 다진 다음 그 위에 黃褐色粘土를 20cm 정도로 깔고 柱礎石을 配置하였으며 基壇部 周圍는 加工石으로서 築臺를 쌓았다. 築臺는 攪亂이 심하여 確實한 構造를 把握할 수 없었으나 生土層에 박혀있는 殘存遺構에 의하면 後面은 地形에 따라 낮은 單層基壇築臺를 두고 前面과 左右 側面의 前方은 地形이 낮아 堆積部位가 높았기 때문에 上·下成基壇의 二重築臺를 配置한 듯싶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이 아니라면 前方部位의 築臺에 擴大 또는 縮小로 인한 改築된

일이 있었다고 判斷해야 하는데 오히려 前者에 해당될 可能性이 짙다.

柱礎石은 外陣의 경우 層段形 圓形柱座를 가지고 그 사이에는 加工된 長臺石과 地枋石을 配置한 것이었으나, 內陣은 方形의 自然石을 使用하였다. 이 柱礎石과 長臺石, 地枋石은 새롭게 造成된 基壇部의 上層粘土層을 되파기를 行한 다음 直徑 30cm 크기의 積心石을 넣어 단단하게 다진 뒤 그 위에 各各 設置하였다. 그런데 調査 當時에는 一部 內外陣의 礎石이 位置를 바꾸고 있는 것이 確認되어 後에 改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道里間, 樑間의 規格이 一定하지 않은 것은 攪亂으로 因한 것이라고 解釋해야 옳을 것이다. 또 上·下成 基壇築臺는 地臺石, 面石, 甲石을 具備한 것이었는데 甲石上面의 平平한 形態는 比較的 舊式을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金堂址 內陣 中央에 位置한 方形의 佛像 地臺石은 5枚의 長臺石으로 組立한 것인데 四面에 隅柱와 撐柱가 彫飾되어 있고, 中心部位를 調査하였더니 3枚의 自然石으로 된 心礎石이 박혀있었다. 그러나 地臺石이 方形이므로 臺座石도 方形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 있지만 現在 寶物 370號로 指定되어 있는 澗月寺址石造如來坐像이 여기에 安置되었던 本尊佛일 可能性이 높다.

다음 南·北에 倒壞되어 있는 石塔은 調査結果 上輪部를 除外한 나머지 部分은 모두 復元 可能한 三層石塔이었다. 그중 北塔은 一般 伽藍의 東塔에 해당하는 것으로 自然岩盤 위에 築造된 것인데 4枚로 組立된 地臺石은 下

臺中石과 同一石으로 되어 있고, 또한 下臺中石 四面에 撐柱가 둘이 配置 되었으며, 周圍에는 平平한 돌을 깔아 塔區를 만들었다. 下臺甲石은 역시 4枚로 組立한 것이나 얇아서 대부분 破損되었고, 8枚石으로 組立된 上臺中石에도 四面에 各各 撐柱를 둘씩 가진 것이다. 그 위의 上臺甲石도 4枚石으로 組立되고 上下로 屋身괴임과 甲石副緣을 具備하고 있다. 初層屋身石은 高 125cm, 幅 132cm 크기로 四面에 門扉와 仁旺像이 施文되어 있으며 上面 中心部에 小方形의 舍利孔을 두고 있다. 그 위의 屋蓋石은 느리게 彎曲된 落水面과 5層의 屋石받침을 갖는 것이 特徵이며 隅棟端에는 風鈴을 매달았던 痕迹을 남기고 있고 2, 3層 屋身과 屋蓋石은 一般的인 三層石塔과 같이 점차 減量해 가는 形態이다.

南塔도 北塔과 同一한 特徵을 가졌는데 地臺石이 놓인 基壇을 礫石으로 쌓아올려 人爲的으로 構築하였다는 點과 初層屋身石의 門扉內에 자물쇠文을 두고 舍利孔이 北塔보다는 淺절정도 크다는 것이 다른 點이다. 특히 舍利孔이 크고 門扉內에 자물쇠를 配置한 점은 雙塔伽藍의 경우 西塔이 舍利塔이라는 것을 證明하여 주는 좋은 資料가 될 것으로 期待되며, 南·北 兩塔을 復元하면 上輪部를 除外하고 두 탑 모두 5.09m가 될 것이다.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遺物中 佛像은 寶物 370號로 指定되어 있는 石造 如來坐像과 이번 發掘에서 出土된 靑銅如來立像을 들 수 있다. 石造如來坐像은 낮게 鈍化된 肉髻, 肥滿한 얼굴, 짧아진 座高, 좁은 어깨, 通肩과 U字形의 階段式 法衣 等の 諸特性이 9世紀 中葉으로 推定되는 佛像들과

相通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靑銅如來立像은 불룩솟은 肉髻,矮少한 얼굴, 下臺만으로 構成된 둥근 座臺, 座臺에 彫飾된 八葉單瓣伏蓮文 등은 9世紀까지 내려볼 수 없는 先行된 特徵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瓦當類는 암·숫막새 기와와 암·숫기와가 各各 出土되었는데, 慶州地方 보다는 조금 세련되지 못한 特徵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며 막새기와의 경우 區分 可能한 것은 各各 12種類 정도였으며, 時期的으로는 統一新羅末에서 高麗, 朝鮮時代初期까지 編年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나머지 土器와 磁器片도 마찬가지로의 現像이었다.

마지막으로 澗月寺의 創建時期를 發掘調査 結果를 놓고 잠깐 言及한다면 大略 8世紀 中葉 以後로 推定하고 싶다. 그것은 前記한 바와 같이 石塔의 構造中에서 下臺中石과 上臺中石에 撐柱를 둘씩 두고 周圍에 塔區를 具備하고 있으며 初層塔身에는 仁旺像을 配置하는 등의 諸特徵은 8世紀 中葉에 많이 流行하였고, 靑銅佛의 特徵 또한 이 時期로 編年하면 크게 빠르지 않다고 思料된다. 다만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는 問題가 있다면 澗月寺址石造如來坐像이 石塔과 同時代에 製作된 것으로도 推定할 수 있다는 點인데 그렇다면 그 年代에 있어서 1世紀의 差異가 나는 셈이다.<sup>20)</sup> 어

---

20) 黃壽永 博士님은 韓國美術全集 6 石塔篇에서 澗月寺와 같이 初層塔身에 仁旺像과 門扉, 자물쇠를 새긴 慶尙北道 月城郡 筲項里 西五層石塔을 8世紀로, 下臺中石과 上臺中石에 撐柱 둘을 갖는 佛國寺釋迦塔, 葛項寺三層石塔(758年記銘)類는 8世紀 中葉으로, 塔區를 가진 慶尙北道 桐華寺三層石塔을 9世紀로 各各 編

했던 이 問題는 앞으로 調査를 계속하여 보다 알찬 資料를 蒐集하여 整理한다면 곧 解決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結果的으로 澗月寺는 8世紀 中葉을 前後한 時期에 創建되어 계속적인 增·改修를 거치면서 朝鮮時代에까지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結果는 眞德王時 慈藏律師가 創建하여 계속 전하여 오다가 壬辰倭亂時 불탄 것을 다시 重修하였다는 文獻上的 記錄과는 時期的인 差異를 보이고 있으나, 當時 어떤 規模를 두고 澗月寺라고 指稱하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實情이다. 앞으로 계속적인 調査研究와 好 資料를 期待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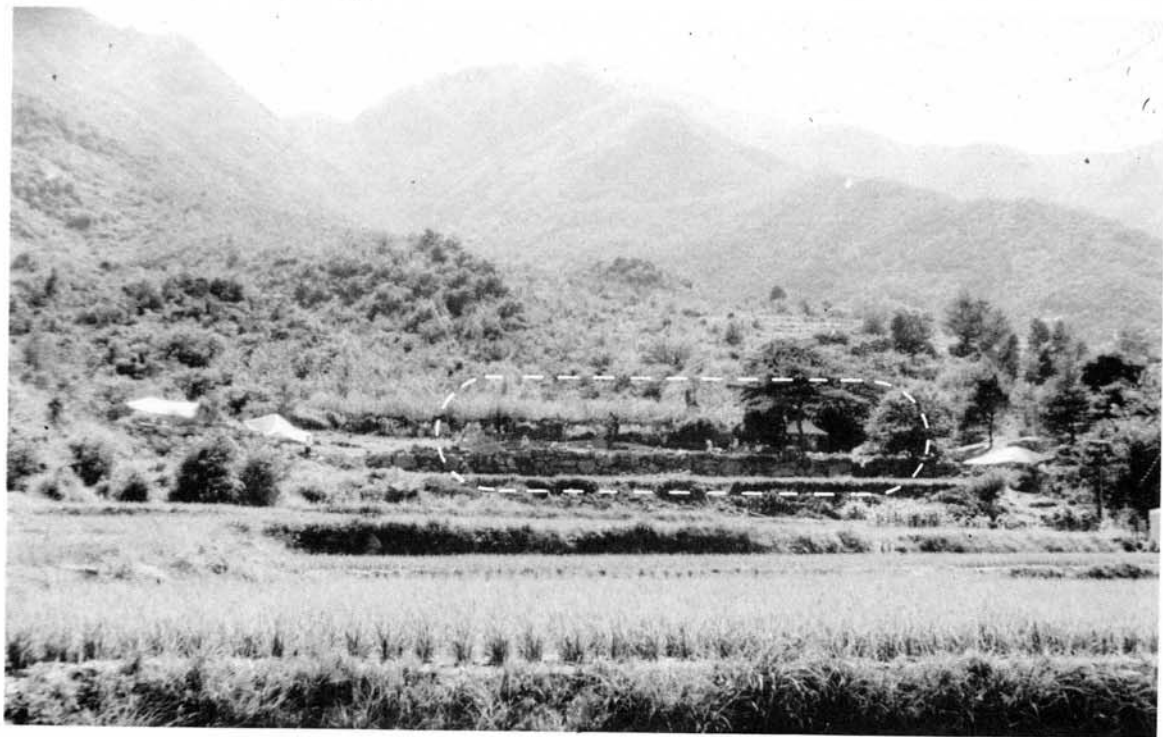
---

年하고 있는데 桐華寺三層石塔의 경우는 地臺石이 따로있고 撐柱도 하나씩 밖에 없는 特徵을 가져 澗月寺石塔이 보다 古代에 屬한다고 할 수 있으며 葛項寺三層石塔의 758年 銘은 이 石塔과 잘 어울리는 特徵을 가진 것으로 이를 基準으로 한다면 澗月寺石塔은 이 時期보다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澗月寺石造如來坐像의 경우 文明大 教授는 韓國彫刻史에서 A.D 850~900 年代로 編年하고 있는데 이것은 桐華寺毘盧舍那佛의 863年을 參考한데 있으며 秦弘燮 博士님은 韓國의 佛像에서 澗月寺址石造如來坐像과 同一한 特徵을 가진 靑龍寺石造如來坐像과 鷲捷寺石造毘盧舍那佛坐像을 9世紀로, 또 이와 비슷한 特徵을 가진 慶州南山三陵溪石造藥師如來坐像은 9世紀 中葉으로 推定한 點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와 가장 有似한 特徵을 지닌 澗月寺址石造如來坐像도 大略 9世紀에서 9世紀 中葉에 해당하는 時期에 製作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결국 年代의으로는 石塔과 石佛이 同時에 製作된 것이 아니고 그 先後가 있다고 解釋한다면 큰 問題가 되지 않지만 同時代라고 假定한다면 編年上에 兩者中 어느 쪽이든 修正을 가해 볼 必要性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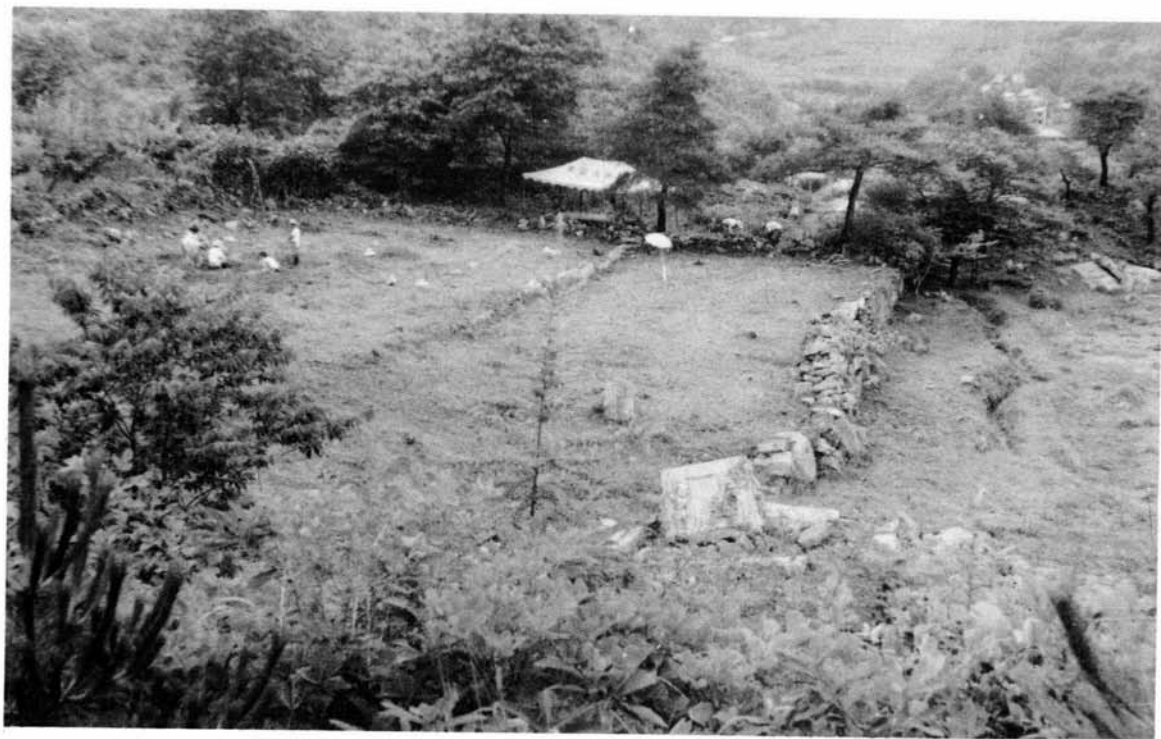
圖

版

圖版 1. 潤月寺 金堂址 全景



金堂址(點線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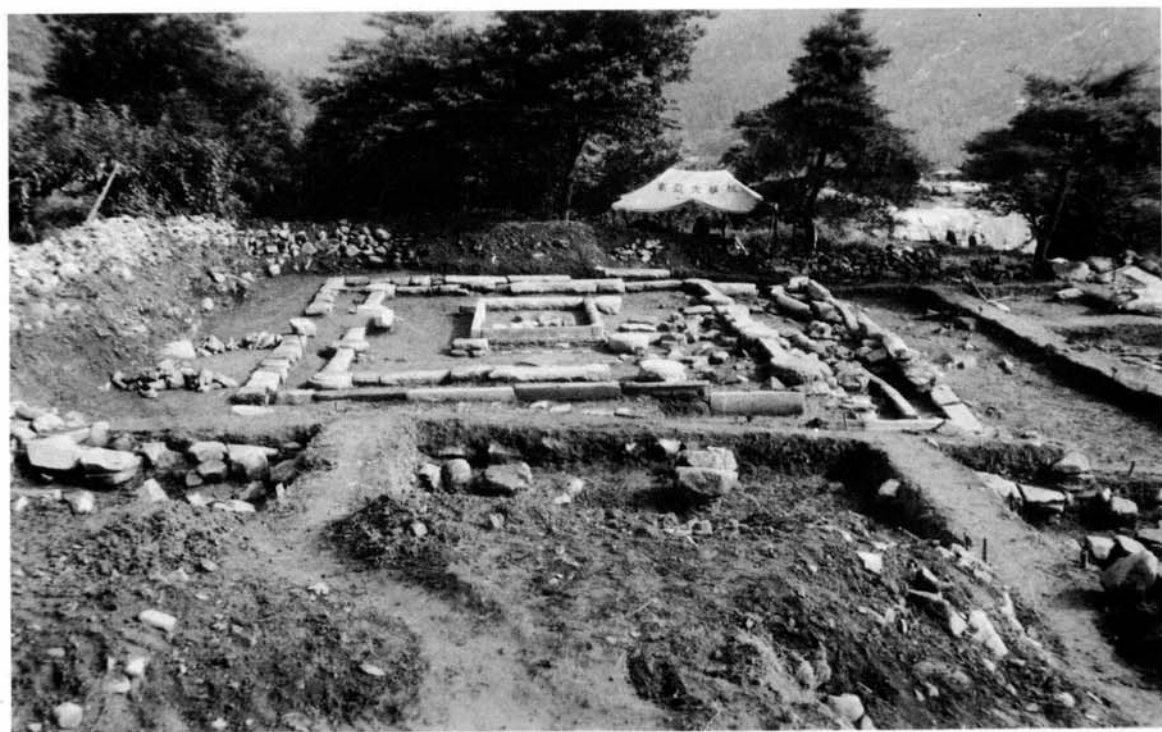


雜草除去後 金堂址

圖版 2. 發掘調査後 金堂址 全景



遠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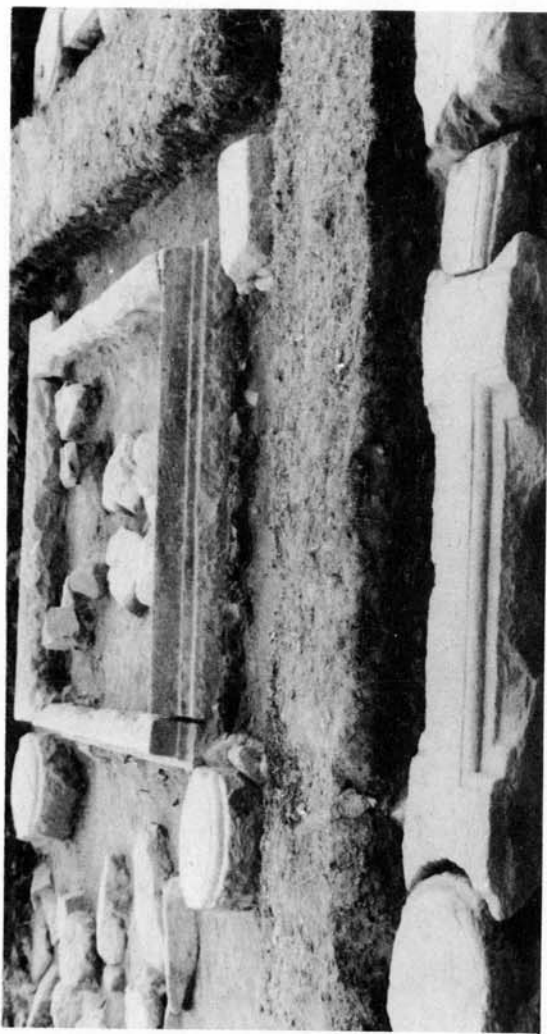


近景

圖版 3. 露出된 金堂址 各種 遺構



全景



佛像地臺石 周邊 (북쪽에서)

圖版 4. 整理된 金堂址 基壇築臺



前面築臺(북쪽에서 바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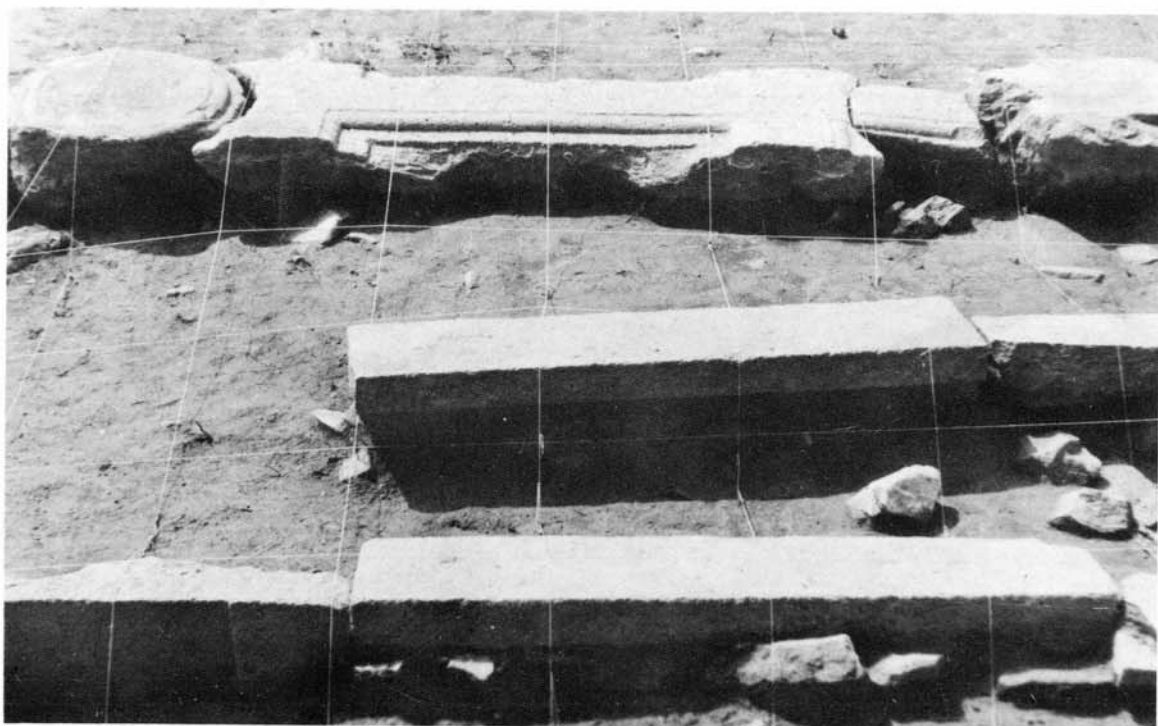


북쪽築臺(서쪽에서 바라본)

圖版 5. 整理된 金堂址 基壇築臺



後面築臺 (북쪽에서 바라본)



북쪽의 二重基壇 築臺 (북쪽에서 바라본)

圖版 6. 後面築臺와 남쪽 用途未詳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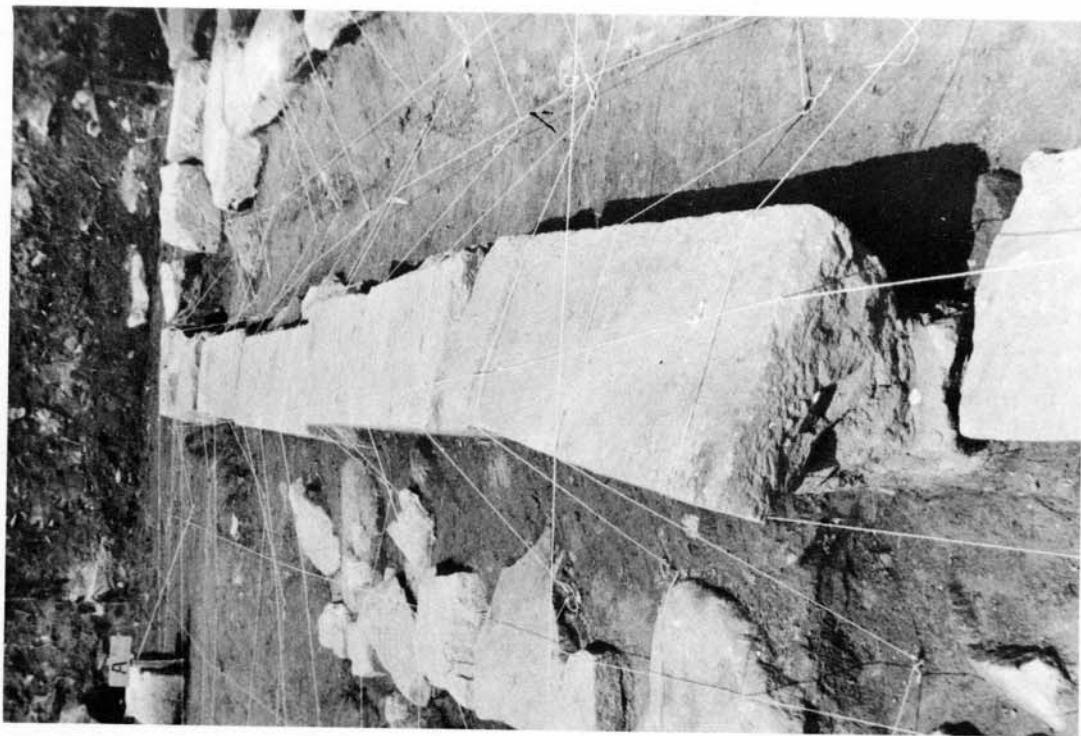


後面築臺 細部



金堂址 남쪽에 나타난 用途未詳 遺構

圖版 7. 남쪽 基壇 築臺와 礎石間의 長臺石



남쪽 前方에 나타난 二重 基壇 築臺



柱礎石과 長臺石 細部

圖版 8. 柱礎石과 長臺石의 連結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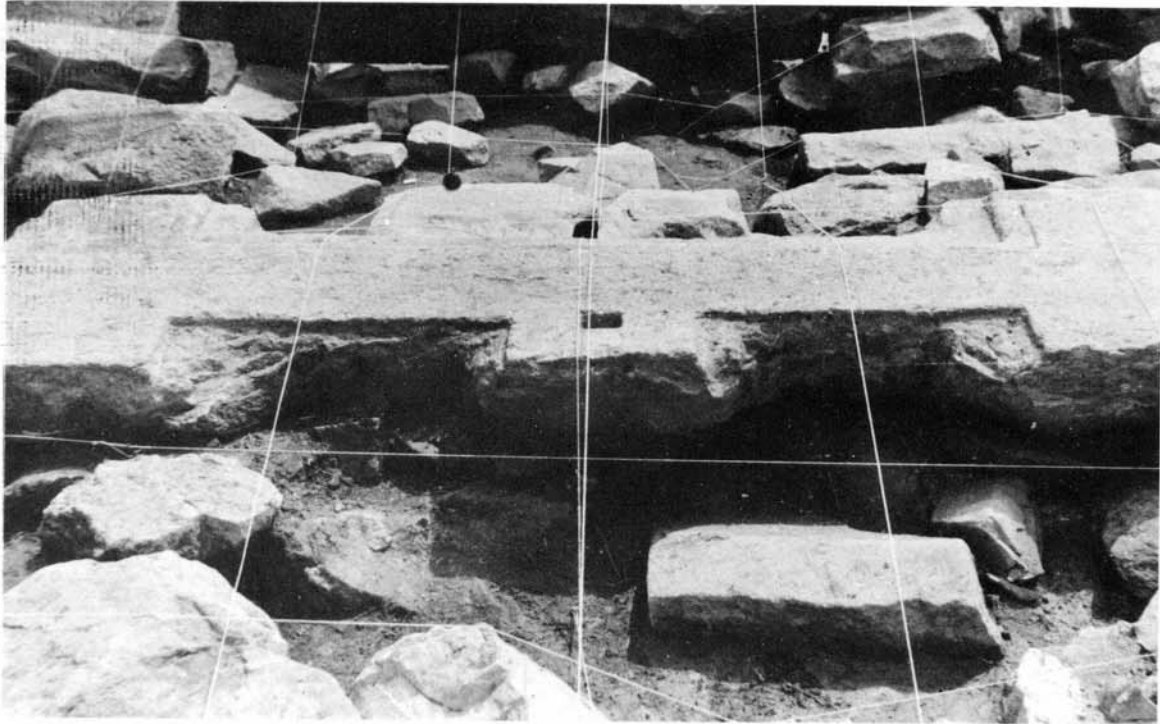


모퉁이 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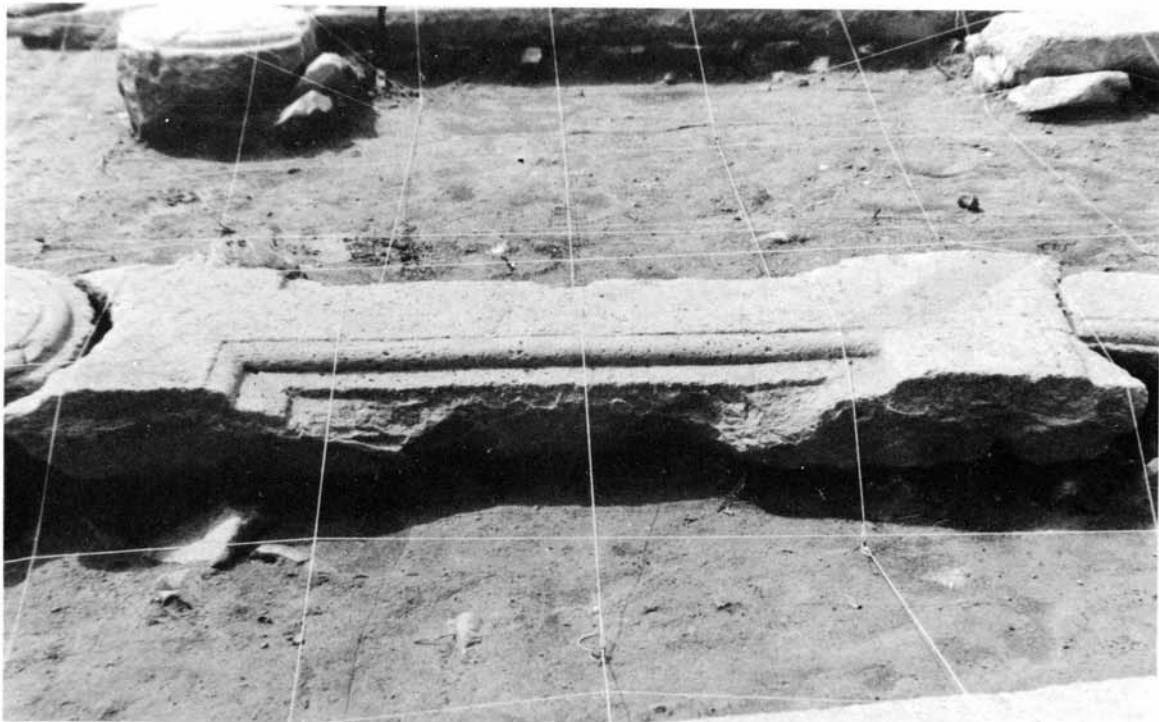


直線部分

圖版 9. 地枋石 近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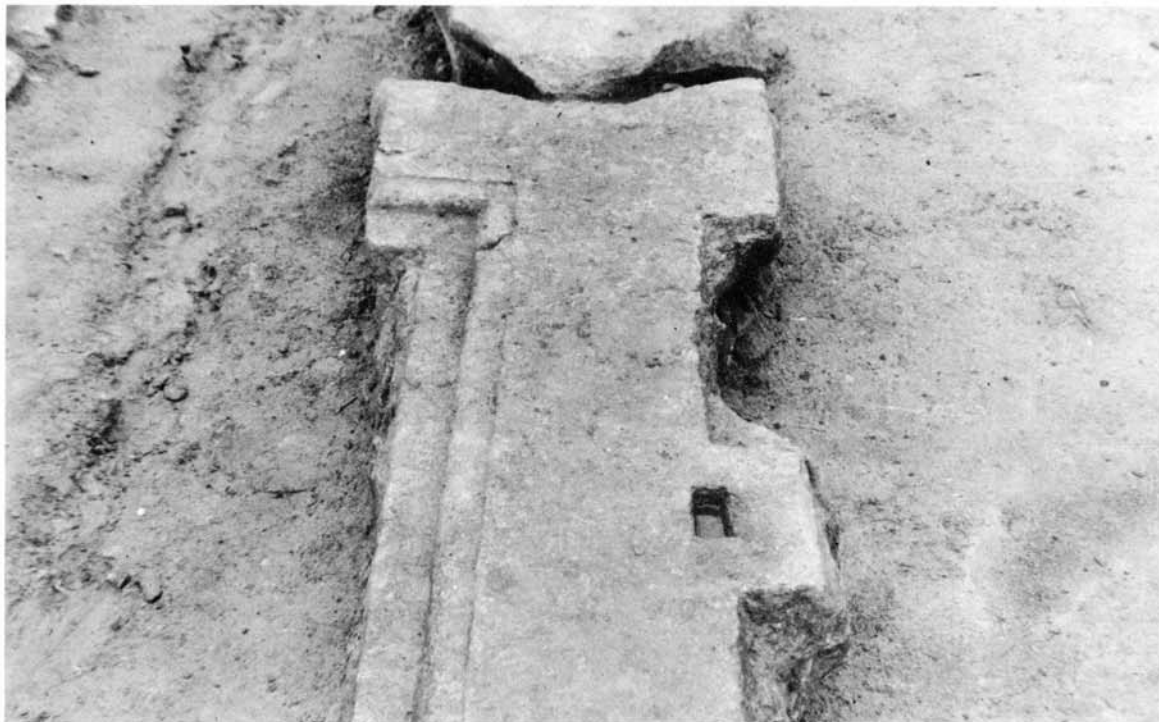


正面



북쪽

圖版10. 地枋石과 長臺石 細部



남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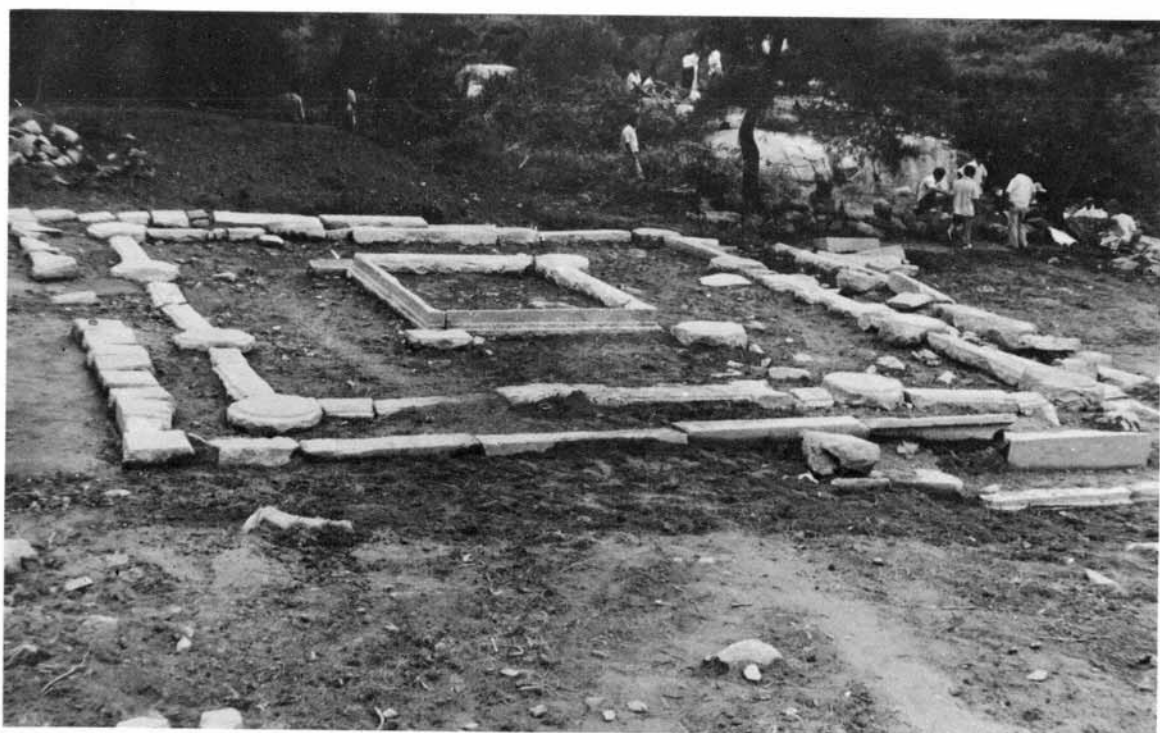


남쪽 끝부분

圖版11. 階段石과 復元整理後 모습



正面 階段址



臨時 復元後의 모습

圖版12. 發掘前 北塔址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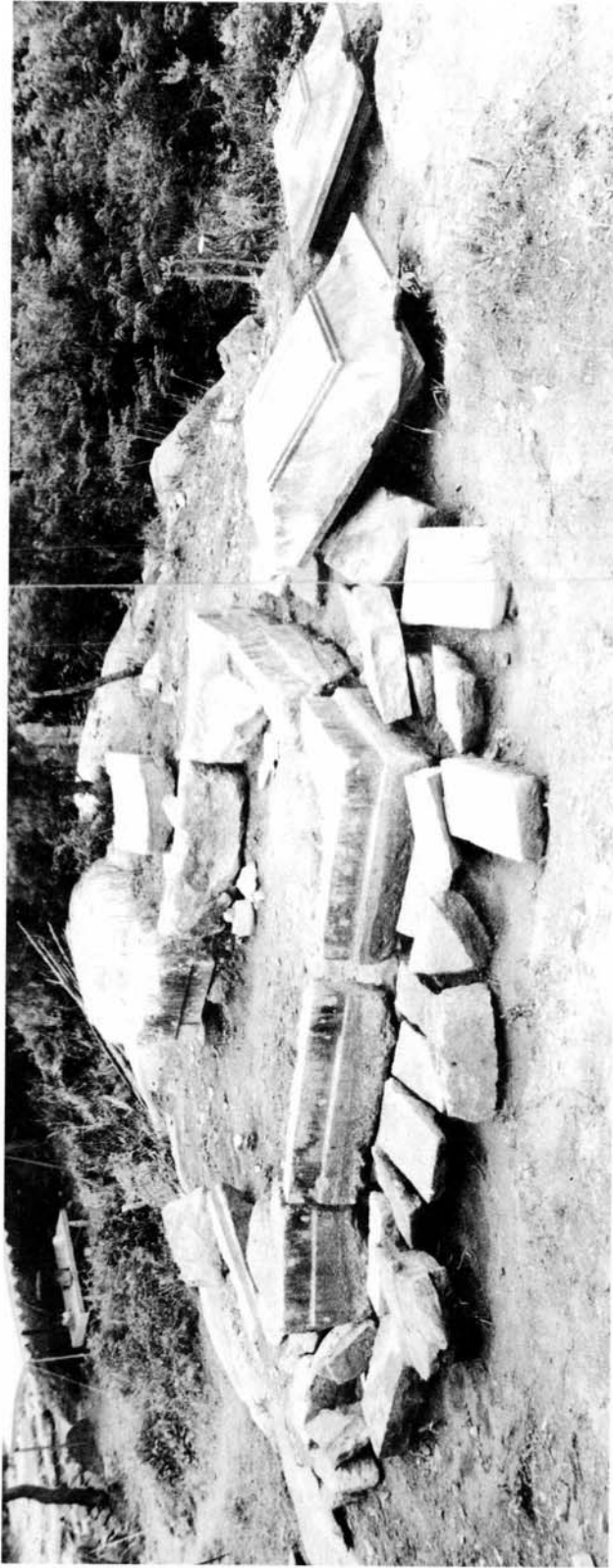


地臺石 周圍



굴러 떨어진 屋身 屋蓋石 周圍

圖版 13. 露出된 北塔址



동쪽에서 바라본 近景

圖版14. 露出된 北塔 初層屋身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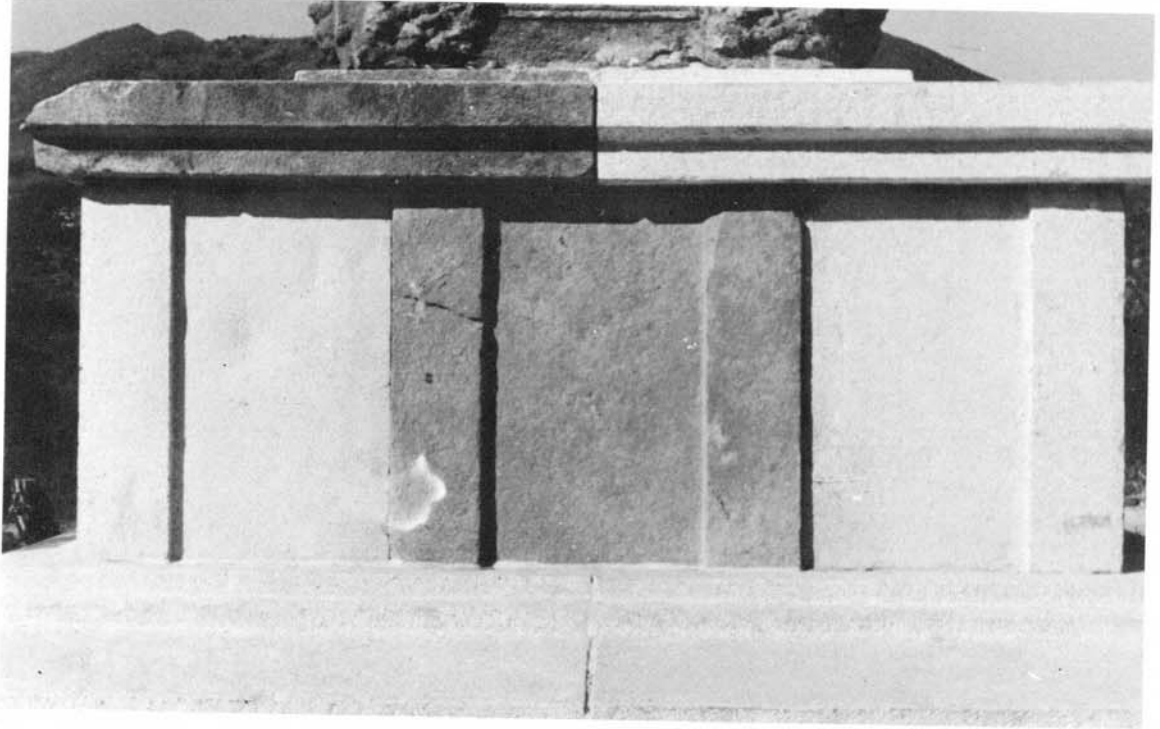


近景



仁旺像 部分

圖版15. 復元된 北塔 細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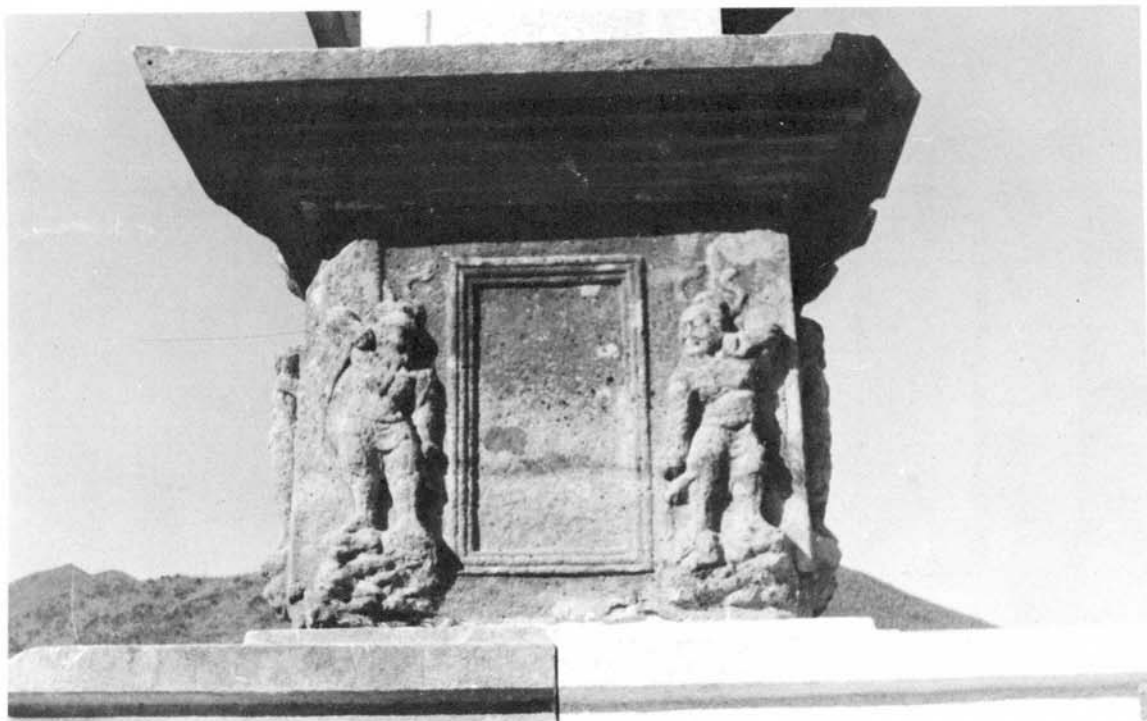


北塔 上臺中石의 撐柱



北塔地臺石과 塔區

圖版 16. 復元된 北塔



復元된 一層屋身



北塔의 復元된 모습

圖版17. 南塔址 全景



發掘 調查前



發掘 調查後

圖版18. 南塔 初層屋身 全景



近景



遠景

圖版 19. 南塔 屋身石 近景



東面



西面

圖版20. 石燈址 心礎石과周圍 砂礫層



石燈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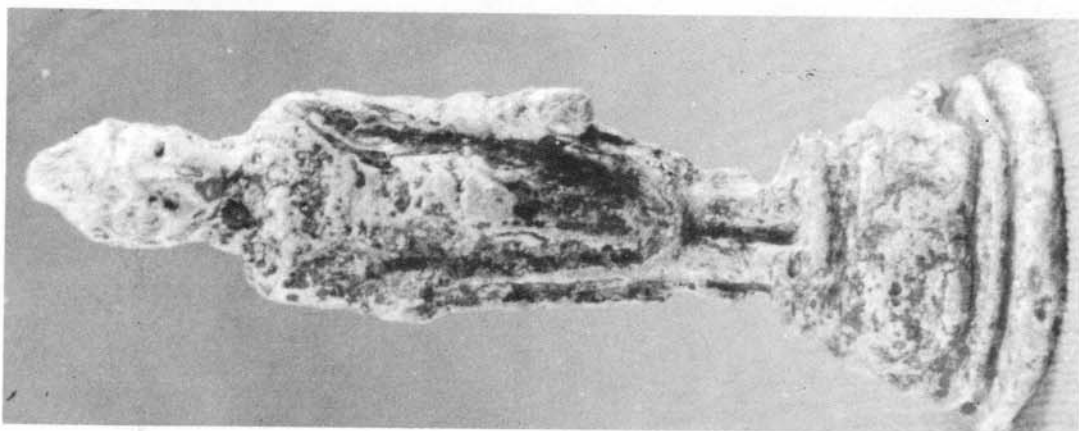


金堂址 前面 들의 砂礫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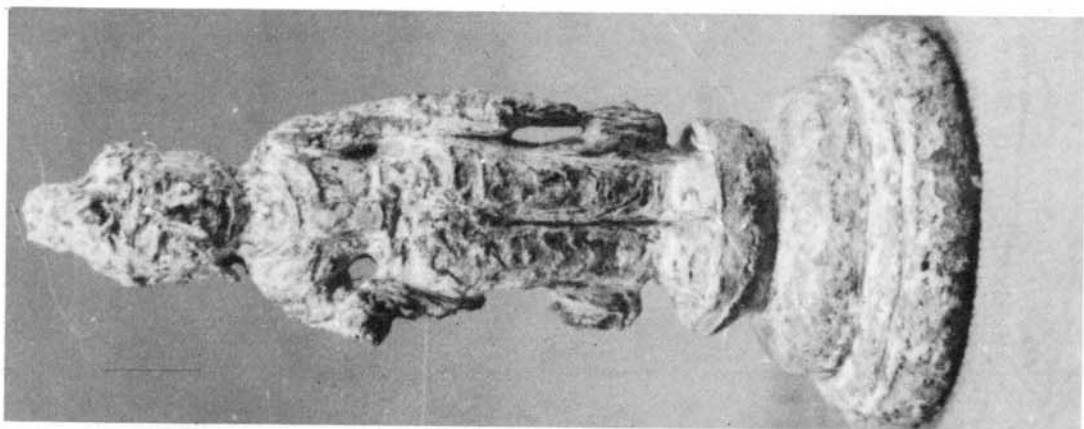
圖版21. 濶月寺址에서 出土된 佛像



石造如來坐像



青銅如來立像



青銅菩薩立像

圖版 22. 濶月寺址에서 出土된 佛像



破損된 石造如來坐像(南)



破損된 石造如來坐像(北)

圖版 23. 八角臺座



全 景



怪獸細部

圖版24. 潤月寺址에서 出土된 숫막새 各種 (下端의 숫자는 圖面番號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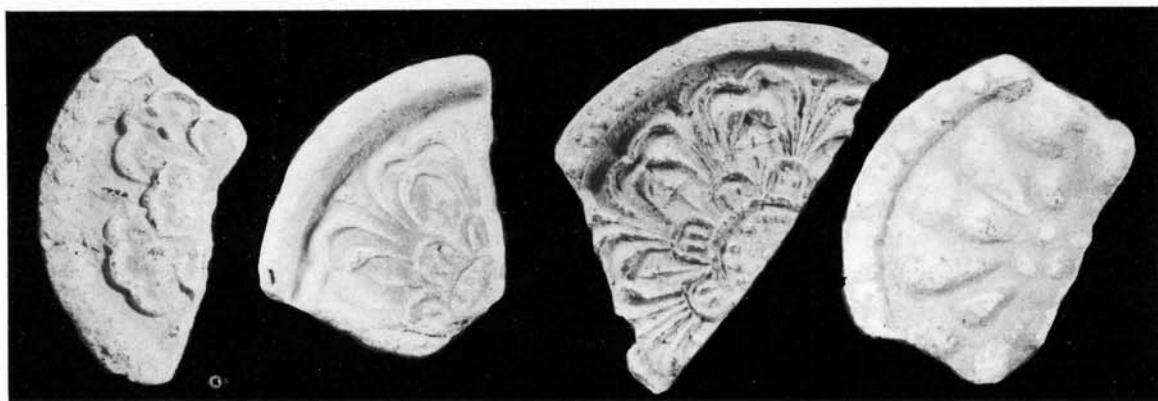
35-①

②

③

④

⑤



⑥

36-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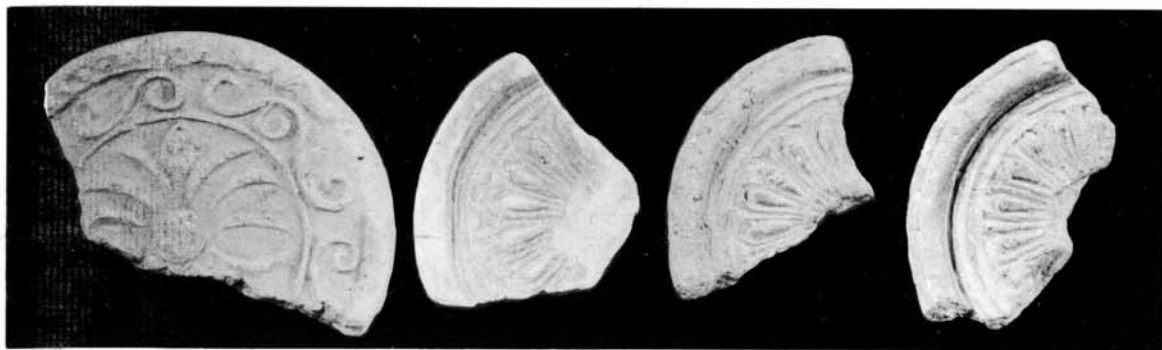
④

⑤

⑥

37-①

圖版. 25.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숫막새 各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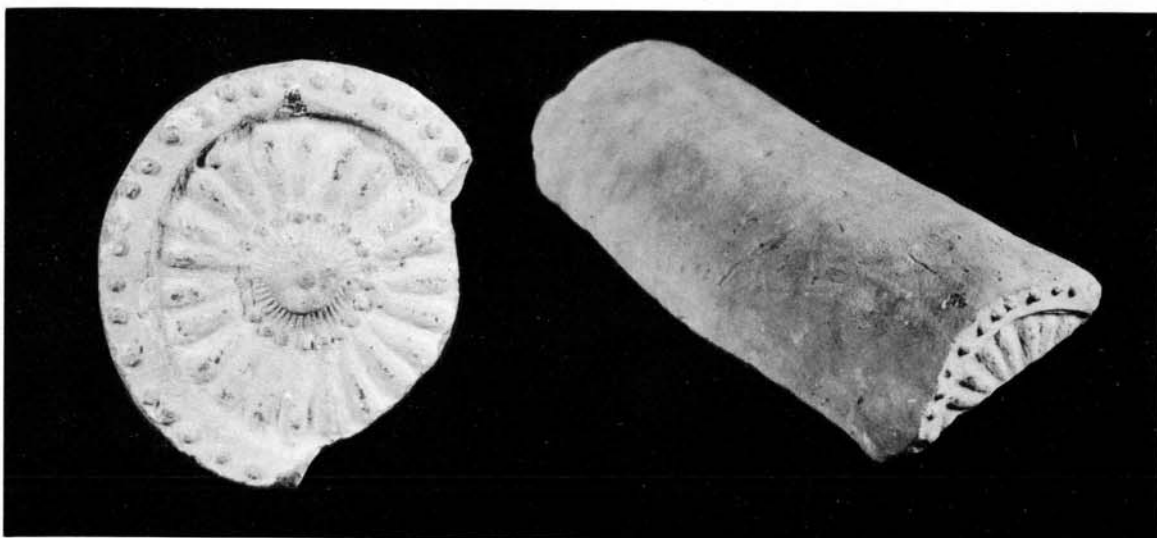


37-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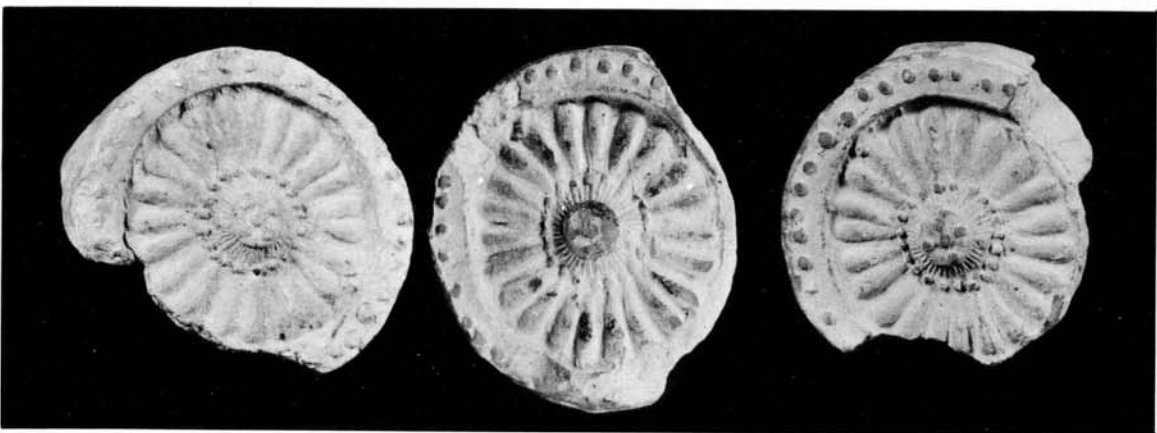
④

⑤



⑥

38-①



②

③

④

圖版26.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숫막새 各種



39-①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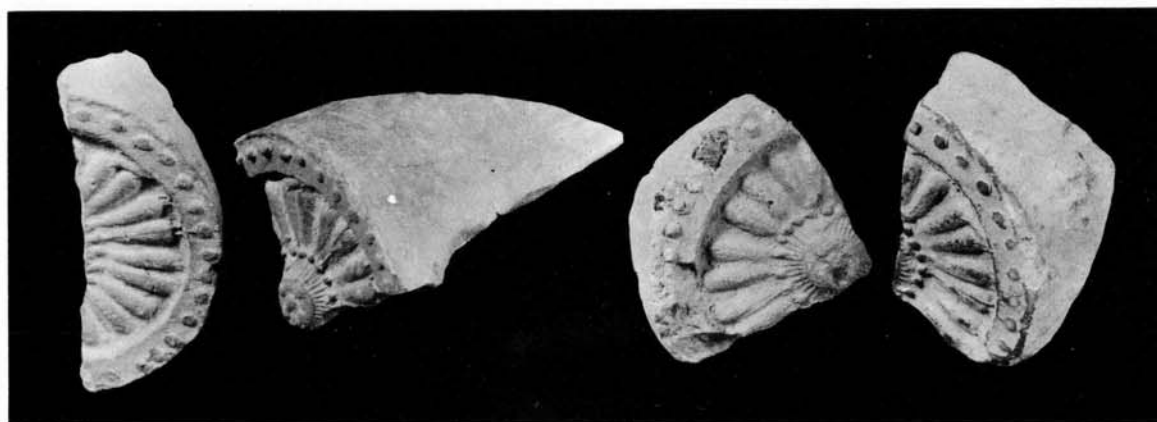


⑤

⑥

40-①

②



③

④

⑤

⑥

圖版27.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숫막새 各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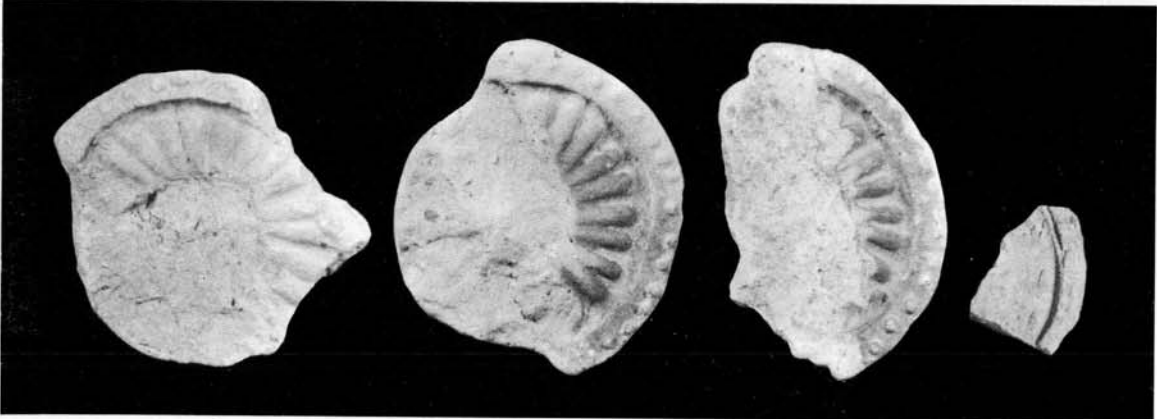


41-①

②

③

④



⑤

42-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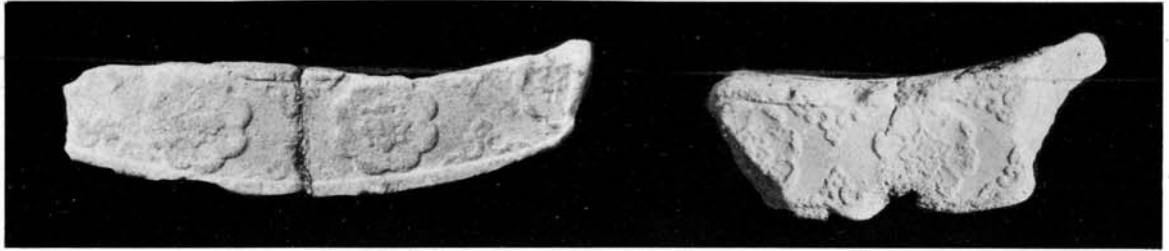
④

⑤

43-①

②

圖版28.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암막새 各種



43-③

④



⑤

⑥

44-①

②



③

④

⑤



⑥

45-①

②

③



④

⑤

⑥

圖版 29.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암막새 各種



46-①

②

③



④

⑤

⑥



47-①

②

③



④

⑤

⑥



48-①

②

③

④

圖版30.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암막새 各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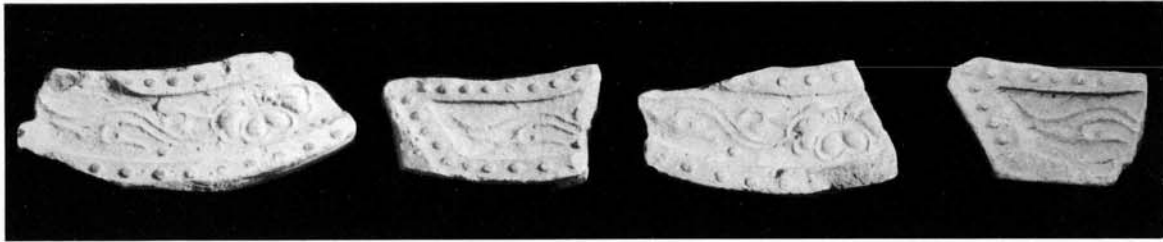


48-⑤

⑥

49-①

②



③

④

⑤

⑥



50-①

②

③

④



⑤

⑥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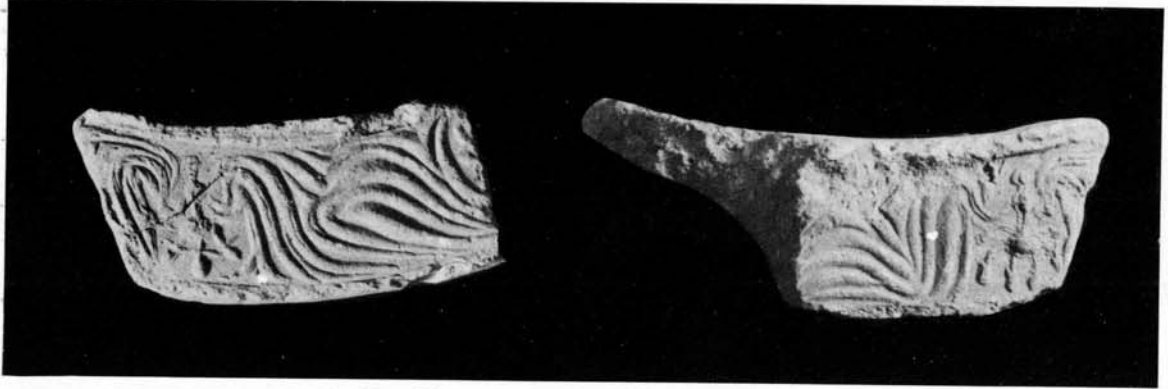


51-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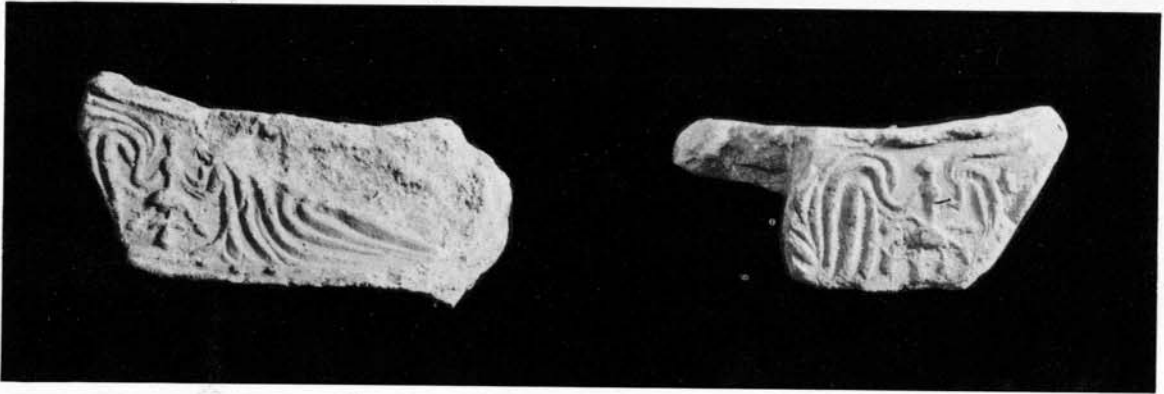
③

圖版31.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암막새 및 숫기와 各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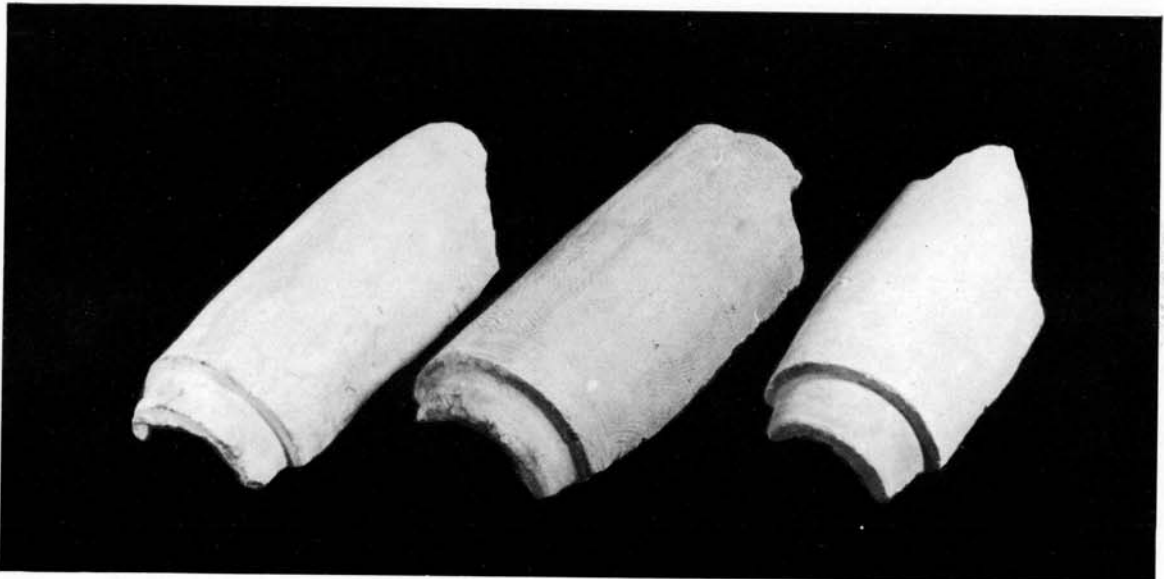
51-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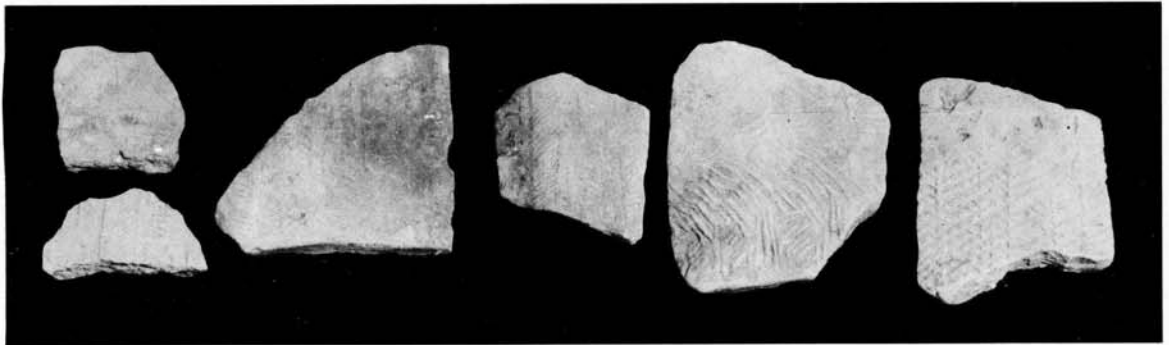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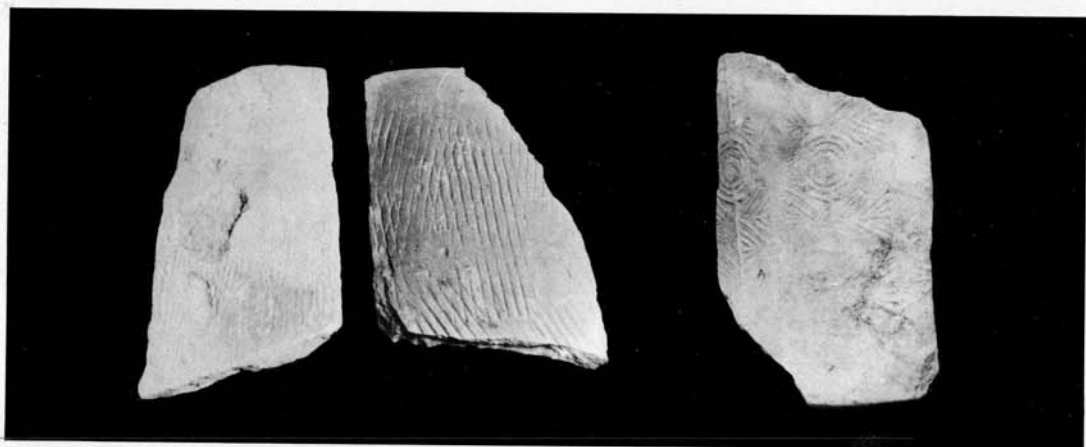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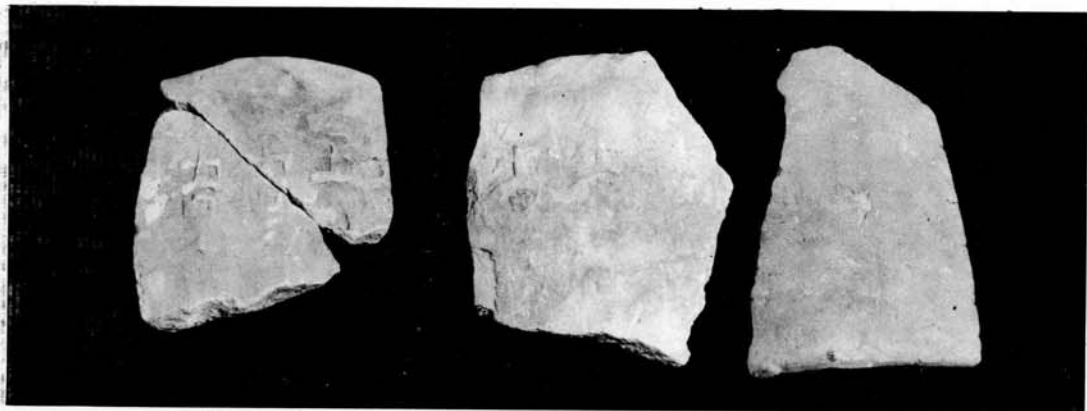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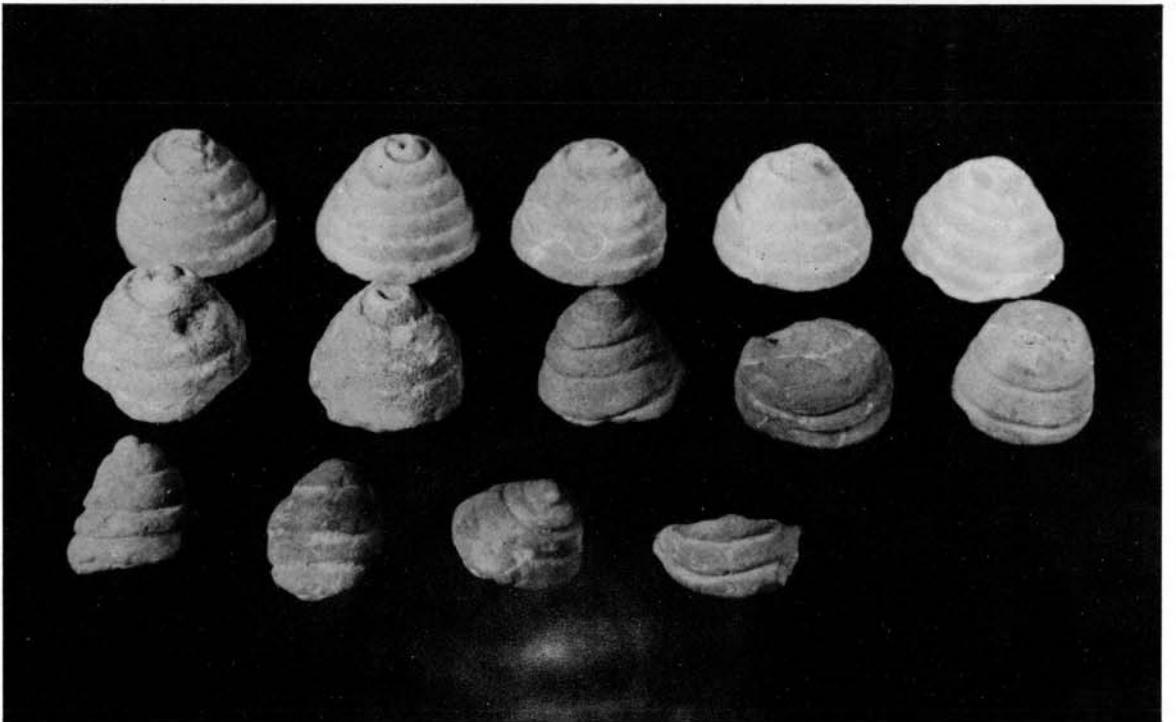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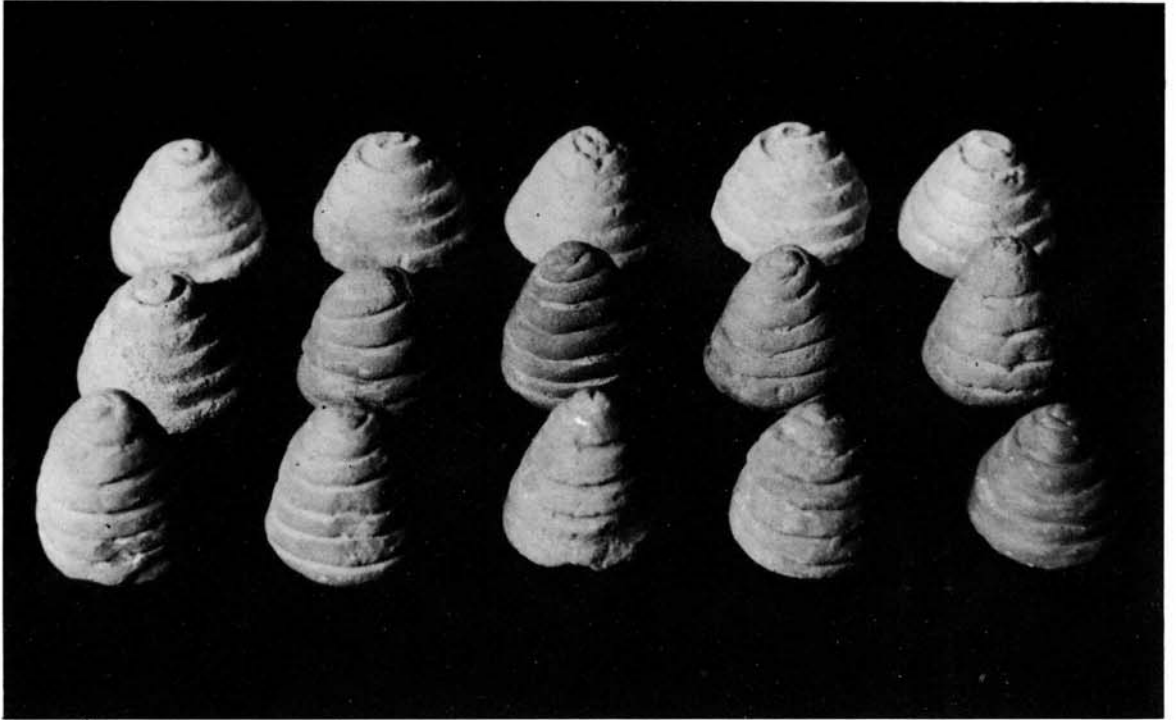
圖版32.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암기와와片 各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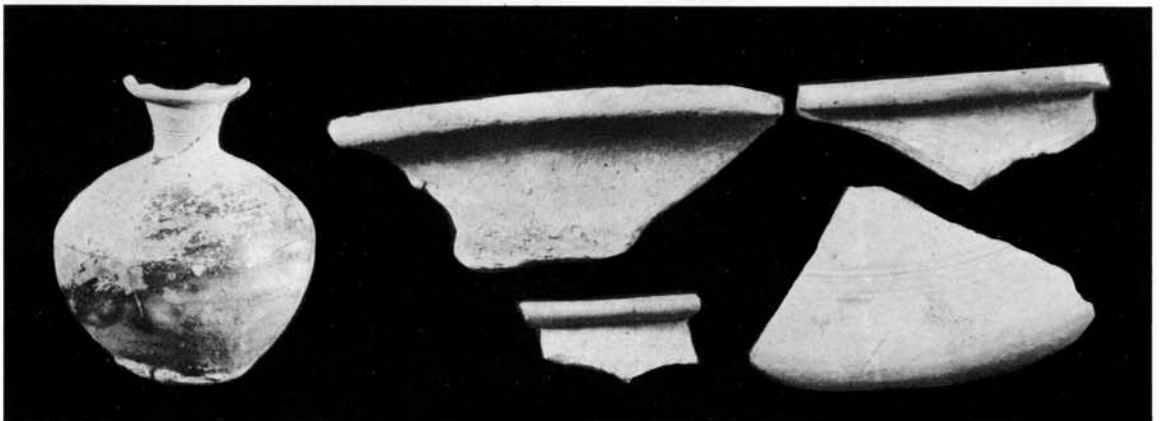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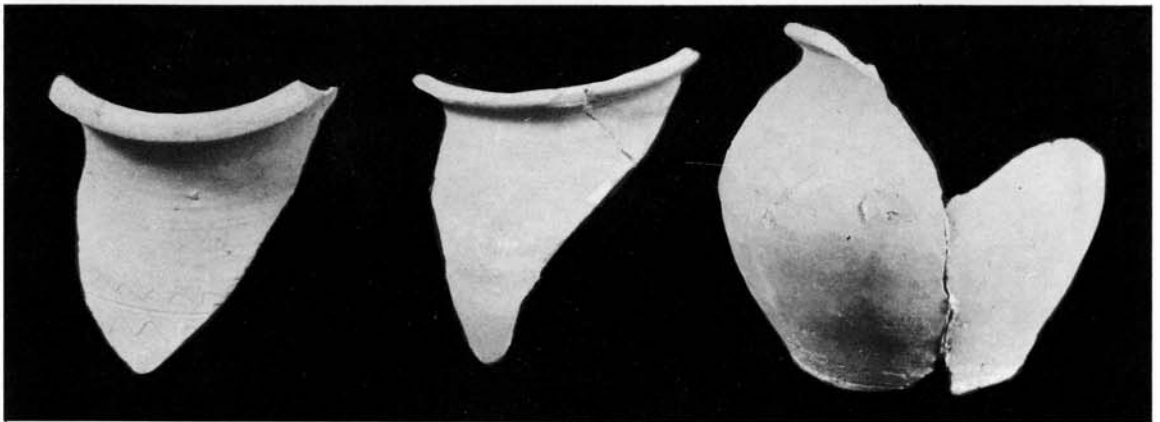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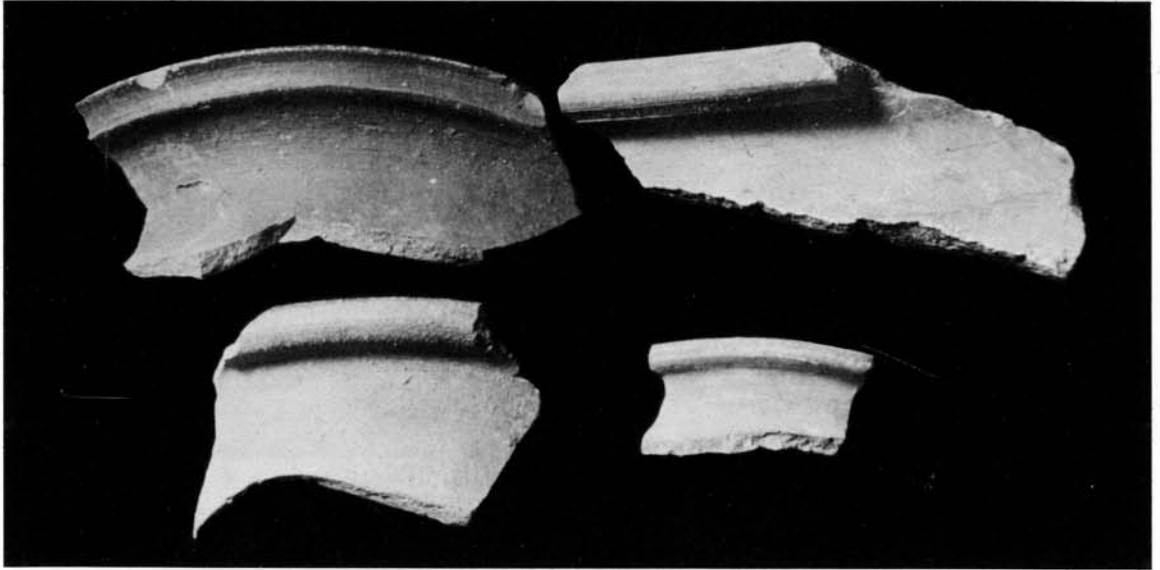
圖版33.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암기와와片 各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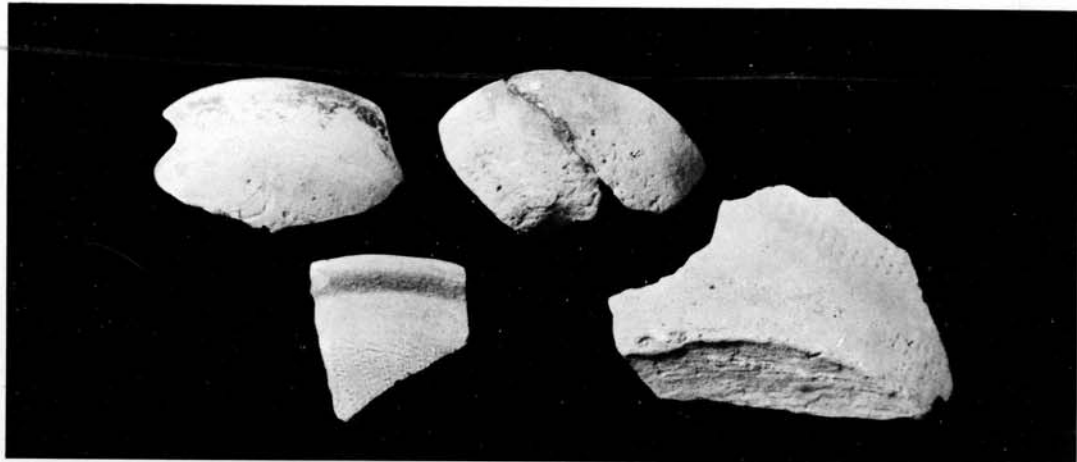
圖版34. 螺髮形土製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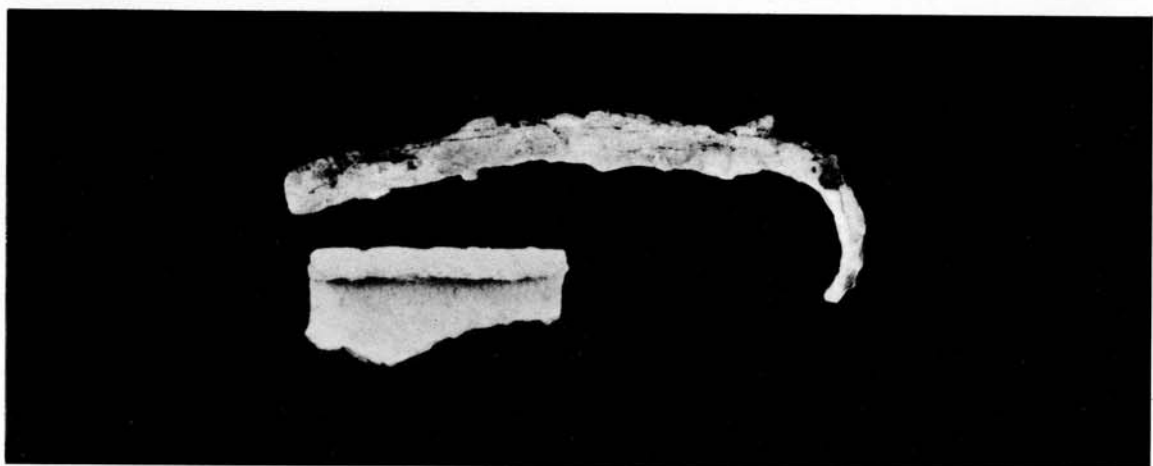
圖版35.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土器 各種



圖版36.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土·磁器 各種



圖版37. 澗月寺址에서 出土된 磁器 및 鐵器 各種



古蹟調查報告書 第十冊

蔚州澗月寺址

---

1985年 2月 20日 印刷

1985年 2月 25日 發行

發行  
編輯  
印刷處

東亞大學校 博物館

朝 陽 社

☎ 44-0679

---